

제14회 목포문학상 당선작품

1. 시/시조(본상), ‘탕자’ , 이창원
2. 시/시조(남도작가상), ‘목포에는 이런 소리가’ , 박행신
5. 단편소설(본상), ‘큐브가 있는 풍경; 0.083’ , 최수하
16. 단편소설(남도작가상), ‘길목의 무늬’ , 김성훈
29. 문학평론(본상), ‘형식의 변주, 과정으로서의 감성-최은영론’ , 신용성
42. 희곡(본상), ‘미얄’ , 허진원
91. 수필(남도문학상), ‘그녀는 나의 주인공’ , 주재현
95. 아동문학(남도문학상), ‘그림가족’ , 이연숙



제14회 목포문학상

시(시조) 당선작품

탕자

이 창 원

섬에는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떠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러저런 무리를 만들어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몰려다니기를 좋아해서

애초에 얻으려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은 무리들이 있었고

누가 뭘 얻었거나 잃었거나 아무 관심 없이 구경만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나를 포함하여 몇몇은 모든 걸 잃어버린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모든 걸 잃고도 절대 떠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훌쩍 딴 데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으나

나는 섬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

잘 돌아왔구나, 라며 내 말을 받아줄 것 같은 아버지는 어구를 정리하느라 외면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살면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갯바닥처럼 매끄러운 손놀림으로 갯바닥 색깔처럼 낚작 얹드린 물고기까지 건어올리는 솜씨였다

그 통에 아버지 손에는 어구에 베였다 아문 상처들이 셀 수 없이 많았으나

매년 되풀이되는 폭우에도 침묵처럼 잘 허물어지지 않는 벽돌담이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이따금 벽돌담 위에 손을 짚고 서서 저녁노을을 이끌고 돌아오는 배들을 구경하곤 했는데

햇볕에 오래 그을린 얼굴은 쯤처럼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낮익은 것이 낯선 것이 되고 그걸 또 얼마만큼 견뎌야 낮익은 게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섬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칠부터 벗겨지며 원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일까, 두엇이 부두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건넌 뒤라서

나는 배를 몰고 미끄러지듯 섬 안으로 들어간다, 귀어(歸漁) 생활은 어떠냐는 물음을 기다리면서

목포에는 이런 소리가

박 행 신

프롤로그

목포에는 이런 목포의 소리가 있었다.

1. 오포대에서

“퍼엉!” 혹은 ‘웨엥~~~~!’

폭발적이다거나 두렵다거나 귀청이 터질 듯하다거나 무시무시하다거나 그런 요란스러운 수식어 다 보내고, 아니 한때는 영달산을 등에 업고 휘날리는 눈꽃처럼 화려했던 소리들 다 보내고 이제는 지난했던 저 너머의 역사까지도 말없이 품고 있다.

“퍼엉!” 혹은 ‘웨엥~~~~!’

“엄니, 오포 텃응께 증심 묵어사 쓰것네잉!”

오포는 시간이 공간에게 보낸 유대감이었다.

삼학도건 선창이건 오거리건 불종대건 오포가 서민들의 공복감에 확 불을 댕기면 하던 일손 툄툄 털고 일어서서 상머리 주위로 주섬주섬 모여들었다 그들 그들이 따습거나 차거나 등글거나 모나거나 할 것 없이 손안에 꼭 쥐고 온 정오의 허기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순수하디 순수한 지상의 과제였다.

2. 목포역에서

“뛰 뛰~~~~!” 혹은 “빠앙!~~~~!”

건널목이거나 동목포역이거나 연탄재이거나 뒷마당 빨래거나 강아지 발걸음이거나 그런 사람살이들 다 보내고, 아니 한때는 목포 전시가지를 들었다 놓으며 위풍당당했던 기적소리들 다 보내고 이제는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먼 이웃들까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뛰 뛰~~~~!” 혹은 “빠앙!~~~~!”

“여기는 목포! 여기는 목포! 호남선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 없이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착이라는 소리는 결코 마지막 종착이 아니었다.

저 윗녘에서부터 어둠을 이끌고 온 보통이들이 야간열차와 함께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푸르스름한 여명을 열어젖히고 하나 둘씩 개찰구를 나서면 선잠을 이겨내고 마중 나온 무안동이건 산정동이건 죽교동이건 유달동이건 서산동이건 그런 골목길들이 나타나 보통이 하나씩을 쇼윈도우에 풀어 걸치면 종착이라고 이름한 그 소리는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파문이었다.

3. 목포항에서

“통통통통!” 혹은 “부웅~~~~!”

만호청을 거쳐 신목포항에 이르기까지 돛단배이거나 똑딱선이거나 중선이거나 용당간 철선이거나 제주간 '가야호' 이거나 그런 3대 항구 다 보내고, 아니 '목포의 눈물' 이라거나 '목포는 항구다' 이라거나 '눈물의 목포항' 과 같은 가요마저도 다 보내고 이제는 다도해를 너머 멀리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통통통통!” 혹은 “부웅~~~~!”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목포의 눈물' 은 '목포의 찬가' 가 보낸 '환희의 웃음' 이요 '목포의 희망' 이었다.

목포구 등대를 길잡이로 세우고 시하 바다 거친 물때를 거슬러 오르고 올라 화원반도 매월리 목포구등대와 달리도 사이 물목을 간신히 벗어나 고하도를 돌아 목포항에 이른 싱싱한 생물들이 어창을 열고 나와 부연 어스름을 다독여가며 황급히 어판장에 이르렀다. “어~~~~ 56번 48,000원! 어~~~~” 경매인의 선택을 받아 항동시장으로 중앙시장으로 청호시장으로 자유시장으로 동부시장으로 달려가면 시민들의 식탁은 어느새 환한 환희의 웃음꽃으로 피어났다.

에필로그

목포에는 이런 목포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제14회 목포문학상

단편소설 당선작품

큐브가 있는 풍경; 0.083

최 수 하

1. 경비밥 9년차에

강남 리아르 아파트 경비팀장 박춘호 씨는 얼마 전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다. 야간 순찰할 때 종종 헛것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아파트에나 ‘경비원 괴담’ 한두 가지쯤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건 헛수도 좀 되고 칠 벗겨진 벽에 금도 슬슬 가고 보일러도 새고, 뭐 그런 데라야지 여긴 그럴 턱이라곤 없는 곳이다. 재건축 완공을 한 지 이제 석 달 남짓 되었다.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집값만큼이나 화사한 건물 외양에다 입주민들의 자신감 넘치는 때깔하며, 단지 내에 있는 건 뭐든, 하다못해 아이들 놀이터의 모래알에서도 깔끔한 새물내가 나는 판에 어울리지 않게 헛것이라니, 귀신이라니.

한밤, 박춘호 씨는 경비초소 의자에 올라앉아 두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이런저런 아파트 경비밥 먹은 지 9년차. 이 정도 이력이면 이 바닥에서 볼썽 못 볼썽 엔간한 건 빠짐없이 겪은 베테랑이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다. 좀 전의 마지막 순찰 때였다. 비가 씨알도 굵어갓고 방울 방울이 워낙 내리쬘듯 쏟아져서 판초를 입고 맞아도 얼얼할 지경인데, 그 속에서 웬 벌거숭이 사내가 현웃 수거함을 뒤지고 있질 않나. 줌도독인가 하고, 그럼 어여 도망가라, 내심 빌면서 여차하면 이쪽에서 도망칠 태세로 멀찍이서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이자가 이게 갑자기 사지를 뒤틀고 발작을 하는 거였다. 한테 그건 별 문제도 아니었다. 도둑이고 강도고 간에, 혹은 미쳤거나 말거나, 무엇보다 그가 사람이라면 바닥을 뒹굴고 뭉개는 그의 궁둥이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 속으로 빗방울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나. 지나가서 틈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깨지는 그 빗방울들의 파편이 어떻게 보일 수 있나. 비와 손전등 빛이 사람 몸을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 건가. 그래도 돼? 그간 경비일 하면서, 요즘이든 언제든 몇 번인가 눈에 뵈는 헛것들은 돌아서서 고개 내두르다 보면 곧 싱거운 ‘설마...’가 되고 긴가민가가 되곤 했다. 등골에 남아있던 오소소함이나 께름칙함 따위는 사물함 깊숙이 꽂쳐둔 소주 한 잔, 근무 중 음주는 곧바로 해고지만, 그래도 그거 한 잔 몰래 먹고 나면 되레 호기가 되기도 했다. 까짓, 희끄무레한 거 하나 지나갈 수도 있지!

오늘 건 달랐다. 헛것이 ‘헛것’ 아니었다.

박춘호 씨는 갈급한 마음에 사물함을 뒤져봤지만 구급약 같은 소주는 빈병 자취도 없었다. 대신 먹다 남겨서 딱딱해진 청심환 쪼가리를 찾아냈다. 이게 언제 적 청심환

이나……. 옹기 파편 같은 그걸 입에 넣고 빈 플라스틱 통을 만지작대고 있자니 새삼 마누라 생각이 났다. 하마터면 귀신에 홀려 다신 못 볼 수도 있었다는 엄살기나 그로 인한 애뜻함 때문이 아니라, 몇 해 전 그녀가 구해다 줬던 부적이 아쉬웠던 것이다.

예전 그의 담당 아파트 동棟에서 며칠 상관으로 세 번이나 투신 소동이 벌어졌고, 급기야 어느 새벽녘 뻘! 하고 뭔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초봄이었다. 조경용 홍매화 가지 한쪽을 치고 떨어진 터라, 방금 부위가 모호해진 살덩이와 터져나온 피 위에 매화 꽃잎이 붙고 박히고 떠 있었다. 그 광경을 제일 먼저 본 이가 박춘호 씨였다. 그는 무릎을 벌벌 떨다 쪼그라들 듯 주저앉아 간신히 119를 눌렀다. 그 다음 며칠은 밥도 못 먹고 출근도 못했다. 홍매화 잎이 뭉개지고 너풀대는 꿈인지 기억인지에 뒤척이며 앓다가, 그나마 밥줄 잘릴까봐 억지로 다시 나서는 출근 참에 마누라가 무뚝뚝하게 가슴팍 주머니에 넣어준 게 청심환 한 통과 그 부적이었다. 이거 뭐냐커니, 왜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냐커니 하다 결국 싸우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종이때기,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두었더니 아, 이게 생각보다 든든한 거였다. 밤 순찰할 때나 사고현장 지날 때나. 축귀부렸던가? 호신부?

뭐가 됐든, 그게 귀신을 쫓아내든 몸을 지켜주든, 그러나 그게 술은 못 이겼다. 한잔 하다 괜히 마누라 흉과 욕을 가장한 자랑을 하느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좌중에 그걸 내비쳤던 것인데, 쥐봐 쥐봐 소리에 건너간 부적은 이놈 저놈 손때는 각설하고 술과 고추장까지 묻힌 채 돌아왔다. 박춘호 씨는 그날 술집 화장실 휴지통에 부적을 버렸다. 짜증난 속이었고 술김이었지만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쫓, 그러게 왜 괜한 데다 돈을 쓰냐고. 사람 성가시게…….

까맣게 잊고 있던 축귀의식도 떠올랐다. 그건 그가 경비일을 시작했던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배운 것이었다. 거긴 철거가 진행 중이어서 여기저기 빨간 스프레이로 칠갑을 한 문짝들이 너털거렸고, 깨진 유리창을 지나는 바람소리며 몇몇 알박기 세대의 외판 저녁 불빛이 하도 을씨년스러웠다. 그런 곳에서 졸며 깨며 혼자 밤을 새우다 보면 바람에 끄덕이 잡혀 날아가는 폐비닐 자락이나 거꾸로 처박힌 채 밤새 빼적대는 장롱 따위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저거 귀신인가 싶어진다. 그즈음 24시간 근무 맞교대 하던 초소 파트너가 밤마다 무서워 못살겠다며 점집을 찾아가 귀신 쫓는 결계를 배워왔던 것이다. 그는 그걸 근무 교대할 때 시범 겸해서 한 번은 꼭 실행한 다음 퇴근했다. 귀신에 대한 보안철저라고 했다. 밤샘을 한 주제에 퇴근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박춘호 씨가 꽤나 길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굳이 기다렸다가 함께 손을 모으고, 모으게 하고 작은 소리로 뭐라뭐라 중얼대었다. 사실이지 그건 새벽 땃바람부터 실소가 나오는 것이긴 했지만 박춘호 씨는 웃지 않았다. 그 다 먹고 살자는 안간힘이었던 데다, 그런 생계망게한 호의에 고맙다고 하는 것도 멋쩍어서 대신, 웃지나 말자 했던 것이다.

박춘호 씨는 초소 냉장고 밑에 피 두었던 오래된 신문지 뭉치를 꺼내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일 때 현장 승강기구덩이에서 유물처럼 나온 옛날 신문과 잡지, 짓이겨진 우표책 등속에서 되는 대로 주워온 것이라, 곰팡이 핀 종이 표면 곳곳에 모래와 시멘트 알갱이들이 늘어붙어 있었다. 박춘호씨는 신문의 성한 부분을 손바닥 크기로 조금

씩 찢어 자기 주변에 둘러놓았다. 그리고 그 쪼가리 한 장 한 장을 세계 올린 라이터 불로 돌아가며 태웠는데, 그 와중 주문 같은 걸 중얼대야 했지만 그건 배우긴커녕 애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저 두 손 모아 신령님도 찾고 하느님도 불러봤다가 ‘잡귀야물러가라’ 나 거둬 읊조렸다.

2. 펜로즈 계단 위의 사내

원장은 호들갑을 떨었다. 대강사님, 또 대첩입니다, 대첩. 다음 특강은 아예 잠실 운동장에서 하든가 여의도 광장에서 하든가, 하여튼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이러면서 3차까지 쏘겠다고 한다. 대강사는 고개를 젓는다. 예의상 한쪽 입가를 조금 올린 등만 등, 어쩔거나 웃어준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별일이다, 아내 생각이 다 나고.

차에 시동을 걸며 그는 코를 벌름댄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곰팡이 냄새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은 장마철이니까.

그러나 막상 퇴근길 도로에 나와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장대비 때문에 유리창도 못 열고 고스란히 맡게 된 냄새, 이걸 이러구러 넘어갈만한 정도가 아니다. 기껏 선루프 약간 열어놓은 걸로는 어림도 없다. 계속되는 헛구역질에, 그걸 참다보니 식은땀에, 두통에 눈앞이 다 감감해진다. 무언가 동물성, 고기나 생선 썩는 냄새임에 틀림없다. 그는 운전석 창을 열고 차라리 비를 맞는다. 그 수밖에 없다. 그의 얼굴과 앞섶은 비에 흠뻑 젖는다. 자기 아파트에 당도할 즈음엔 시트백 가죽까지 젖어 기대면 물이 배나온다. 그는 곧장 지하 주차장의 구석 자리로 내려간다. 실내등을 켜고 차 앞뒤 문을 모두 열고 팔을 걷어붙인다.

뭘까, 대체.

그러나 뭐 하나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콘솔 박스에서도, 운전석과 각 좌석 의자 밑과 발판에서도. 이제 남은 곳은 한 군데. 트렁크 개폐 버튼을 누르고 차에서 나와 돌아서자 벌써 차 꼬무니 쪽에서부터 아찔할 만큼 진한 악취가 끼쳐온다. 그는 빠르게 열린 트렁크 옆에서 고개를 돌려 잠시 심호흡을 한다.

혹시 내가 이 문을 지금처럼 열어놓고 깜빡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이 후텁지근한 장마철에 병든 고양이나 쥐 같은 것이 들어가서…….

으으, 그는 진저리를 친다. 그만큼 궁금도 하다. 그는 상체를 트렁크 반대편으로 틀고 기다린다. 이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린다. 말을수록 짐승 시체 썩은 내가 분명하다. 그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물고, 하나, 둘, 셋! 한 순간 고개를 돌려 들여다본다. 없다.

별거 없다.

다만 낮선 물건들이 몇 널브러져 있다. 검붉은 얼룩이 져있는 운동화 한 켤레와 삼날

에 덩어리 흙이 말라붙어 있는 야전삽, 흔히 ‘빠루’라고 하는 쇠지렛대, 비상용 차량 정비 공구함과 손전등, 휴대용 2륜수레, 흙물이 배인 목장갑 한짝.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그는 가웃하다가 곧 수궁한다. 어젠가..., 아니면 그 전 언젠가 이 물건들을 사용했던 것 같다. 낯설지만 처음 보는 건 아니다, 분명.

내친 김에 그는 트렁크 바닥 판을 치켜든다. 예비 타이어를 놓아 둔 움푹한 홈을 살피기 위해서다. 판을 들자마자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악취가 터져 나온다. 그 냄새폭탄을 얼굴에 맞고 반사적으로 물러나 엉덩방아를 찢듯 쭈그러 앉은 그, 입으로 내장이 쏟아지는 듯한 구토가 나온다.

뭔가, 뭔가 별집 같은 게... 움직이는 것도 같고.....

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다.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 얼핏 눈에 띈 그것은 짐승 썩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는 트렁크 문을 닫는다. 아무래도 더는 무리다. 집에서 현 마스크라도 가져올 요량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몸에 뻐 악취가 새삼 진하게 풍겨온다. 그는 그 자리에서 비와 냄새에 젖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간다. 악취가 따라온다. 아예 그의 숨결에서 나는 것 같다.

우라질!

그는 샤워 물줄기 속에서 북북 힘주어 비누칠을 한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 중얼거림 끝에 그는, 뱃살 무더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성기를 씻느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든다. 두어 주일쯤 전에도 방금했던 푸념을 똑같은 어조로 한 적이 있다. 가끔씩 신문·방송에서나 보고 들던 그런 일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운전 23년차 경력에 사소한 접촉사고조차 없었던 그였다. 그런 그가 집 근처 소방도로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되레 가속기 페달을 꼭 눌러 밟았던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차가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돌진해 들이받은 게 길모퉁이 전봇대였으니 망정이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봇대가 범퍼를 우그려 밀고 보닛에 까지 들어와, 애초부터 차에 박혀있던 것인 양 서 있었다. 전조등 하나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다른 하나는 시신경 같은 두어 줄 전선에 매달린 채 간신히 떠 있었다. 그 반투명 유리 표면에서 가로등 빛이 탁하게 어둡거렸다. 운전석과 동승석 주변으로 커다란 찌뽕 같기도 하고 버섯 같기도 한 에어백들이 몽땅 부풀어 있는 게, 그 용도야 어떻든 간에 사람 더 짜증스럽고 심란하게 만들었다. 우라질, 그는 달랑거리는 전조등을 툭 건어쳤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샤워 물줄기 속에서 그는 머리를 감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때 차를 맡겼던 정비소 놈들 짓이다. 그 놈들이 장난친 거야. 시일이 지나면 썩어 문드러질 만한 뭔가를 트렁크 바닥에 히죽 던져 넣은 거지. 그런 거야. 그는 볼 살을 푸들거리며 읊조린다. 내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분이 치솟자 머리카락이 아예 뭉텅이로 빠진다. 그렇잖아도 이미 빠진 머리카락이 배수구에 시커멓게 얹혀 있다. 한 서너 줍은 좋이 될 듯싶다. 머리털이 지금처럼 빠지게 된 건 1타 왕좌를 내주면서부터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없어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우긴다.

얼마 전까지 그는 강남 No.1, 중학영어 1타 자리에 등극해 있었다. 어쩌다 특강이라도 한 시간 할라치면 애들이 학원 건물 밖 차도에까지 줄을 서곤 했다. 아이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그의 나이 마흔 초반부터였다. 강남 학원가는 그런 곳이었다. 강사 나이 마흔 지나면 불장 다 본 퇴물이 되는 곳. 패스트푸드점의 1인용 테이블처럼 여충없는 녀석들이 나이 든 선생은 그냥, 무조건, 꺼리며 비토를 놓는다.

몰락의 징후는 ‘에드거 앨런 포’에서 왔다. 그의 초짜시절부터 포는 불패의 강의 양념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애너벨리」가 특히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추운 날, 젊디젊은 아내가 영양실조와 폐병으로 쓰러져서 불기라곤 없는 지푸라기 더미에 누워 죽어갈 때, 불행한 시인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신의 낡아빠진 외투를 덮어주는 것이 고작이었지.

이쯤에서 일단 말을 끊고 한 3,4초가량 빗물 흐르는 강의실 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이들의 미간은 으레 비감한 표정으로 찡그려졌다. 눈을 지그시 감고 마무리 한방을 터뜨려 줄 때다.

아내가 죽자 시인은 슬픈 방황을 거듭하다가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를 한 편 쓰지. 그게 바로 애너벨리야.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지. 먼 먼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그때, 왕국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날아왔다.

선생님, 그거 작년에도 들었던 건데요.

먼 먼 옛날,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가 문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균열은 한 군데서 그치지 않는 법이다. 애너벨리에 이어 ‘펜로즈 계단’도 무너졌다. 끝없이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 도달할 곳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2차원의 가상 계단. 그 계단과 계단 위를 걷는 사람의 그래픽 사진을 아이들에게 들이대면서,

이 사람 누구? …… 바로 너, 녀들. 공부의 방향이나 방법이 안 좋으면 다 이 사람처럼 된다. 쳇바퀴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지. 그렇잖아? 하지만, 우린 돌파한다. 누구와 함께? 이 대강사님과 함께!

이렇게 값진 정신무장을 시켜주곤 했다. 아이들은 결의로 눈을 빛냈고, 그 역시 무리를 이끌고 적을 맞닥뜨린 장수마냥 비장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러나 그건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3차원 세계에서 함께 살던 동종 인류였을 때 얘기였다. 어느 새엔가 아이들은 차원을 벗어난 외계 종족으로 바뀌어 있었던 걸 그는 알지 못했다.

저거 뫼비우스 띠의 계단 버전인가?

무지렁이. 저건 에셔Escher, 딱 에셔 그림 아니냐.

어느 놈인가의 이 잘난 체를 필두로 곧 선생에 대한 불평과 비웃음이 섞여 나왔다. 우리가 뭐 초딩도 아니고…….

초딩은 왜? 야, 요즘은 개들 멘탈 장난 아니야.

선생님 전요, 수업이 진도에만 꼭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금이 가고 군데군데 부서지던 날일수록 그는 서둘러 집에 들어갔다. 그런 날

은 놀랍게도, 아내가 보고 싶었다. 그녀를 마주하면 이내 분이 차오르고 그 분김으로 집을 뛰쳐나올 줄 알면서도 그랬다. 그 다음엔 자동차 핸들을 내리쳐가며 속도 게이지 판의 바늘이 거의 끝까지 돌아가도록 고속도로를 타곤 했다. 정처 따윈 물론 없었다. 도로 곳곳에서 과속 감시의 폭죽이 터졌고 그 폭죽세례 속에서 그는 욕설을 지껄이며 웃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미라가 되어 있었다. 결혼 직후부터 그랬다. 아니 그 이전부터, 어쩌면 그녀는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이었다. 몸도 마음도, 하다못해 언뜻언뜻 사물을 바라보는 눈길마저도 바짝 여윈 상태로 그녀가 원귀처럼 결혼서약을 했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세 번 산부인과를 찾았다. 네 번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매번 아내는,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는 병원 문 앞에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엉버티며 어차피 할 거 일찍 식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때마다 그는 아직은 아니라고, 병아리 강사 주제나 면하면, 돈 좀 벌면 하자고 울상을 짓다 화를 내다, 어느 땐 지겹다며 입속말로, 그러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하게 욕을 웅얼대기도 했다. 여자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는 섬뜩한 구속감에 몸을 떨었다.

신혼 첫날 밤, 아내가 된 여자는 돌아누운 채 말했다.

이게 결혼이니?

그는 아내의 어깨를 돌려 반듯이 눕혔다. 아내가 눈부신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거지 같은 거 한번 하긴 했으니까... 이제 이혼해야지. 그게 너 바라는 거잖아.

그는 말없이 아내의 건조한 몸을 만지고 안았다. 아내는 가만히 웃었다. 그가 아내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도 입가에 조각이라도 된 듯 웃음은 그대로였다. 꺼풀을 껌박이지도 않은 채 샹들리에를 바라보던 아내의 눈이, 그 멍한 눈빛이 이번엔 그의 눈을 파고 들었다. 작고 단단한, 압정 같은 소리 하나가 그의 귀를 찔렀다.

꺼져.

그의 성기는 바짝 오그라들었다. 그녀 말대로, 꺼진 것이다. 그리고 오직 발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을 먹기 전에는 아내 앞에선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입에 달았던 대로 돈 좀 벌고, 그 돈을 국내외의 다양한 유흥가에서 화풀이하듯 써댄 부작용 내지 파생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뭉텅이로 빠졌고, 팬티엔 오줌도 정액도 아닌 낫설고 역한 체액이 묻어났다. 그 얼마 후 아내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누렁우물처럼 깊고 탁하고 멍한 눈길로 말했다.

병원에 갔다 왔어, 비뇨기과.

그녀는 담배에 불을 댕기고 나서 마저 말했다.

왜 왔는진 내가 잘 알 거야. 이견 그런 병 중에서도 참... 지독한 거라더라.

그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저번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땀 땀 잘만 밀어내더니. 그날 특강비 몇 푼 갖다 줬더니, 그 약발이었나?

아내는 소파에 등을 묻고 모금마다 담배연기를 길게 토해냈다. 그 모습을 그는 끈기

있게 지켜보았다. 필터 끝이 타들어가자 아내는 비로소 뽕초를 잉크렸다. 피울 때처럼 천천히, 여러 번 잉크렸다. 아내의 눈은 그를 향해 있었지만 기실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없는 존재였다. 혼잣말로 아내가 말했다.

너하고 나, 끝내야 돼. 지금도 너무 늦었어.

그는 낄낄대며 그 웃음 곁에 말마디를 실었다.

하긴, 담배가, 사내보다 맛날 수도 있겠다. 그지?

하, 하고 아내가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닿은 주변 공기가 흠뻑 젖어 있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다. 아내는 심상하게 읊조렸다. 병신... 비웃음에도 격이 있는 건데. 흠뻑 젖은 공기와 심상함의 틈새에서 그녀의 경멸은 한층 깊고 길게 울렸다. 그는 가족 허리띠 버클을 풀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격. 격조! 그 잘난 게 뭔지 내 보여줄까.

허공을 가르는 허리띠에서 겨울 찬바람 소리가 났다. 아내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를 악물지도 않았다. 언제나 그랬다. 오히려 그가 이를 악물었다. 언제나 그랬다. 버클을 움켜쥔 그의 손과 팔에 소름이 돋았다. 악문 잇새로 갈라진 소리가 나왔다.

좋아. 아주 좋아. 고통 받는 것도 능력이거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옷가지며 일상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게 한 달 전 일로 기억한다. 어쩌면 일 년 전 일인지도 모른다. 아무려나 상관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소파에 알몸을 던진다. 피로가 몰려든다. 맞은 편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넘어 있다.

이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샤워를 두 시간도 넘게?

그 오랜 시간 욕실에서 뭘 한 건가. 샤워 후에 하려던 일도 뭐였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문득 음식 선내가 맡아진다. 그는 주방으로 가보지만 거기엔 음식 국물자국도 없다. 코를 찡그리며 두리번대는 그. 현관문 앞에 벗어놓은 옷에 눈길의 미친다. 거기서 풍겨오는 냄새다.

마스크! 그래, 마스크를 찾아야 해.

그는 마스크를 찾아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다. 전쟁을 하듯 찾는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뒤집어진다. 4계절 옷가지며 이불과 시트가 쏟아져 나오고 싱크대에선 냄비와 크고 작은 접시들이 팽개쳐진다. 현관엔 신발장에서 나온 신발들이 뒹군다. 그는 숨을 헐떡이다 쪼그라들어 앉는다. 뒤집어진 구급함이 그의 눈에 든다. 거즈와 파스, 머큐로크롬과 소화제 등속.

그렇지, 약국! 거기 가서 하나 사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걸!

그는 벌떡 일어나 달려나간다.

자정이 지난 시각 불 꺼진 아파트 상가에 들어서서야 그는 자신이 우산도 없이 장맛비를 고스란히 맞고 왔음을 깨닫는다. 그는 물기가 줄줄 흐르는 팔을 들어 약국 문을 두드린다. 혹시라도 안에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같은 건 없다. 그저 너무 안타까워서.

어쩐다, 이제.

그는 둥그렇게 처진 어깨로 빗속을 다시 나선다. 뜻밖에도 아파트 건물 너머에 가게 불빛이 한 점 떠올라 있다.

웁다, 24시간 편의점!

그는 그리로 뛰어들자마자 외치듯 묻는다. 마스크 어디 있죠? 마스크, 마스크! 점원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점원은 천연덕스레 기지개를 켜다. 격분한 그, 점원의 귀뺨을 올려붙였지만 상대는 앓은 채로도 여유롭게 피한다. 이 자식 죽여버린다! 그는 몸을 날려 점원에게 달려든다. 놈의 목살을 단단히 움켜쥐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찌된 일인지 그 혼자 가게 밖 빗물 웅덩이에 처박히고 만다. 그는 잠시 미동도 없다. 비가 벌거벗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떨어져 박힌다, 박히는 것 같다. 관자놀이에선 실없는 눈물이 빗물과 섞인다. 빗줄기는 세쳤지만, 그래도 적의에 차 있는 것 같진 않다.

애너벨리와 펜로즈 계단의 균열 이후 그의 왕국은 누더기가 되어갔다. 그 누더기를 놓고 고만고만했던 새끼 강사들이 서로 할거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가 학원가에 데뷔 시키고 봉토를 나누어 준 그의 시종이었다. 입시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고액의 찍기 특강이나 땅 부자, 증권 부잣집의 맹한 애들 독선생질 따위 기름진 먹이도 그의 손을 거쳐 배분되었다. 간혹 문제유출인 듯 아닌듯한 냄새나는 먹이 관련해서 경찰이나 사정당국이 자질구레한 시비라도 걸어오면 모두 제가 대신 덮어쓴다고, 우리는 대부분을 위한 강남 마피아라고, 리더를 중심으로 역 브이(v)자를 그리며 나는 새의 무리라고, 모두 핏대를 세우며 조아렸다. 그러나 그들 시종의 눈에서 그는 점차 지워져 갔다. 허하고 얇어진 그의 존재 농도를 그들은 적의와 불쾌감으로 채워 맞췄다. 빈약한 완력으로 왕좌에 앉아 있는 자, 추했던 것이다. 왕좌 전체가 먹잇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래도 차마 한입에 삼킬 수는 없고, 행여 땀 놈이 삼킬세라 신경은 쓰이고……. 그에 대한 호칭도 ‘쌤’으로 바뀌었다. 네 글자 모두 정중히 발음하던 대강사님 대신 뼈죽 내민 아래턱으로 그를 가리키며 쌤! 가끔은 쌤 앞에 그의 성을 붙이기도 했다.

민쌤, <엔젤파탈>에 나도 한번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거기 새끼마담인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에휴, 그런 엘 뭘……. 학원가 계보상 손자뻘 되는 강사 녀석이 사우나에서 마주치자 대뜸 이렇게 수작하며 웃었다. 그 말투와 웃음에는 사자의 먹이에 이빨을 들이댄 새끼 하이에나의 우쭐함 같은 것조차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제 영역에서 쫓겨난 늙은 수컷이었다. 국보급 대강사 격에는 모자란다고 때로 툭툭거렸던 독일제 명차가 유일한 길동무였다. 밤새도록 고속도로나 동해안 7번 국도를 시속 170, 180을 넘나드는 속도로 달리다 휴게소나 길가 모텔에 쓰러져 자곤 하였다. 선잠을 켜 새벽녘엔 때 묻고 냄새나는 이불을 부르쥐고 방바닥에 머리를 짓췄었다. 그 떨림과 충격이 온몸으로 번진 것인지, 아니면 뇌전증 발병인지 이즈음 사지가 뒤틀리는 전신발작도 나왔다. 발작 중에는 모텔 창으로 뒤섞인 색깔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왔다. 청각과 시각이 뒤죽박죽되어, 고속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소음이 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바뀌어 보인 것이다. 그런 감각 착란과 절로 용이 써지는 몸 뒤틀림이 끝난 직후엔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최고 수위로 부풀었던 어떤 거품이랄까 풍선

이 터지고 나면, 허탈과 충만감이 태극 문양처럼 그 잇바디가 꼭 물린 채 고요 속을 떠돌았다. 급기야 그는 시간표를 접수 당하고 말았다. 학원 강사에게는 사표보다 더 치욕스런 것이었다. 그날 그는 책상에 안경을 벗어 내려놓고 양주병 밑바닥 모서리로 그것을 부수었다. 방아를 찧듯 조근조근, 안경알이 가루가 될 때까지.

널브러져 앉아 있는 그의 눈이 편의점 불빛에 켜진다. 그렇지, 나는 학원을 관봤지. 그것도 꽤 오래 전에.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그러다 곧 비시식 웃음이 새난다. 아니지. 오늘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것도 최우수반에서.

그는 자신의 말 한 마디, 몸짓 하나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눈들을 본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 일이다. 아하하, 그는 소리 내어 웃으며 천천히 일어난다. 무수한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수한 파편으로 깨져 퍼진다.

한결 기분이 나아진 그는 아파트 단지 내 현웃 수거함들을 뒤져보기로 한다. 그 함 위에 버려져 있던 현 양말을 기억한다. 경비 영감이 쭈뼛대며 여우털 모자를 꺼내어 갖는 걸 본 적도 있다. 거기 양말이나 모자를 버린다면 마스크라고 버리지 않을 리 없다. 옷가지들을 후비고 꺼낼 쇠꼬챙이도 수거함 근처 어디쯤 걸려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곧 함을 뒤지는 그의 손끝이 떨린다.

이럴 수가……. 장갑, 팬티에 생리대, 심지어 콘돔까지도 나오는데 마스크가 없다니.

마스크가 없다니!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른 수거함으로 내달린다. 단지 내 동과 동 사이를 떠돌다 결국 주저앉는다. 그 꿇발 선 얼굴에 돌연 눈부신 빛이 쏟아진다.

뭐요? 거기 누구요?

검은 망토에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그를 내려다본다. 빗줄기는 사내의 망토 속에서 나오고 있다. 검은 해일 같은 빛.

당신 옷통 까고 거기서 지금… 아니, 저 미친놈 팬티도 안 입었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썰룩이고 사타구니에서는 지린 오줌의 김이 올라온다. 팔다리와 허리가 놀라운 각도로 휘고 꺾인다.

하참, 비도 오는데 이게 웬…….

검은 망토의 사내가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에서 현란한 색깔 조각들이 쏟아진다. 입으로 색깔을 뱉다니, 저 자는 대체 뭐가. 사신死神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천사일 바에야 악마였으면 좋겠다. 천사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망토 사내는 잠시 가웃한다.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들어 한동안 비를 맞으며 고개를 내두른 다음 그를 다시 내려다본다. 순간, 사내는 몇 걸음 허청대며 물러난다. 그리고 망토 자락에서 바람이 일도록 획, 몸을 돌린다. 그 몸에서 검은 빗물방울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다.

현웃함을 파다 사지가 뒤틀린 '미친놈'은 태아처럼, 죽은 갑각류처럼 몸을 동그랗게 만다. 퍼붓는 빗속에서 아내가 다가온다. 찢긴 옷 조각 사이로 가죽 허리띠 자국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눈길은 더욱 멍해져 간다. 그는 허리띠를 놓치고 뒷걸음친다. 벽이

그의 등을 막는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타래송곳이 겹겹이 돌며 파고들 듯 아내 목소리가 반복해 들려온다. 끝내, 이제. 제발……. 그는 두 팔로 머리를 싸고 내두른다. 그때, 벽에 걸어놓고 애지중지, 바라만 보아도 좋았던 앤틱 골프채가 그의 손에 닿는다. 몇 백 년 전 스코틀랜드 장인이 만들었다는 롱노우즈 우드. 그에게는 독일제 명차보다도 이 앤틱 클럽이야말로 자신이 상류층임을 증거하는 표식이다. 진짜 상류층. 그 표식을 휘두르며 그는 기도한다. 그만, 그만! 이윽고 타래송곳의 타래가 풀어지며 겹겹으로 파리를 틀고 있던 원들이 제각각 흩어진다. 그는 누워있는 아내를 끌어안고 읊조린다. 먼 먼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애너벨리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았지 하늘의 천사도 바다 밑의 악마도 아름다운 애너벨리와 내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다네 먼 먼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반복해 읊조리며 그는, 마침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다. 마스크 따위 필요 없어 보인다. 발작이 두려움도 뒤뜰었던가 보다. 성큼성큼 차로 다가가 트렁크를 열고 그 밑판을 번쩍 치켜든다. 그곳엔, 예비 타이어가 놓여있어야 할 그 둥근 홈엔 사람이 둥글게 파리를 틀고 있다. 태아처럼 웅크린 그 사람의 얼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하얗고 작고 통통한 것들이 꺼풀처럼 붙어서 일제히 꼬물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얼굴을 손으로 쓸어본다. 손의 자국을 따라 구더기들이 쏠려 떨어지고 파리 인간의 속 얼굴이 나타난다. 어디선가 본 듯하다. 파리 인간은 싱긋, 웃음을 머금고 있다. 바로 그다.

그 자신의 얼굴이다.

으아아아, 그는 머리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린다. 살충제를 쏜 나방처럼 그는 제 얼굴에 붙어 파닥거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눈부신 불빛과 함께 어디선가 낡은 신문지 쪼가리가 그의 눈앞으로 날아든다. 저 쪼가리 보고 싶지 않다.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는 눈을 감고 급히 얼굴을 튼다.

그의 감은 눈 속으로 오늘인가 어제, 아니면 먼먼 옛날, 강당 강의실마저 미어 터졌던 자신의 특강 풍경이 불연속 화면처럼 순간순간 확대되어 다가온다.

대강사님, 또 대칩입니다, 대칩. 다음 특강은 아예 잠실 운동장에서 하든가 여의도 광장에서 하든가, 하여튼 무슨 수를 내야겠어요. 자, 가십시오. 3차까지 무제한 풀코습니다.

원장의 호들갑에도 그는 고개를 젓는다. 예의상 한쪽 입가를 조금 올린 등 만 등, 어쨌거나 웃어준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별일이다, 아내 생각이 다 나고.

차에 시동을 걸며 그는 코를 벌름댄다.

이게 무슨 냄새지?

3. 쪽창

비가 오는 데다 신문지가 워낙 눅눅해서 그랬는지 박춘호 씨의 축귀의식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무리 불을 붙여도 신문쪽 하나가 끝내 다 타지 않고 남았다가, 환기를 위해 경비실 문을 열었을 때 채와 함께 어두운 창밖으로 날아갔다. 빗살을 뚫고 날아갔다. 지금 바람이 세긴 해도 이견…….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박춘호 씨는 소름 돋은 두 손으로 빈 청심환 통을 꼭 감싸 쥐었다.

날아간 신문쪽에는 유난히 작은 글씨체로 이런 내용의 공고가 실려 있었다.

무연고(행려)사망자 공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행려)사망자 인적사항 공고(안)

성명	성 별	주민등록 번호	본적	발견일시	발견장소	사망 원인	처리 방법
			주소		안치장소		
민** (신분증 훼손)	남	**1016- 12**3** (신분증 훼손)	불상	2011.4.8 (09:40)경	서울 강남구 대치11동 772-5 강변아파트 지하주차장 內 BMW749Lf 폐차 트렁크	미상	화장
			불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안실		

201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끝 -

길목의 무늬

김 성 훈

소금 맛이 나는 계단을 올랐다. 파닥거리는 날갯소리가 귓전에 닿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의 진원지를 찾았다. 오래된 시멘트 바닥을 뚫고 나온 풀이 듬성듬성 눈에 보였다. 풍우에 벗겨진 땅의 속살을 타고 줄기 뻗은 풀의 생명이 경이로웠다. 그 사이로, 떠난 이를 기억할 까닭 없는 뱀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다. 내 걸음보다 네 뺨 걸음 앞서 먹잇감인 씨앗을 찾느라 요리조리 총총거리며 돌아다녔다. 먹이를 찾는 물 입감이 놀라웠다. 사람의 인기척을 신경 쓰지 않는 뱀비둘기의 태도가 도도해 보였다.

뱀비둘기는 새끼가 있을까. 먹이를 생으로 새끼에게 물어다 주지 않는 뱀비둘기의 습성이 떠올랐다. 어미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위 속에서 소화된 그것을 게워내어 새끼를 살찌운다. 뱀비둘기의 습성은 바다에서 소화된 그물을 다시 잇는 다순구미의 아주머니들을 닮았다. 초등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 난 그 아주머니들을 봤다. 바다에서 탄 까만 얼굴보다 구부정한 등을 먼저 봤다.

땅거미가 조선내화의 노후 담벼락에 기대어 있고, 어깨를 굽은 아주머니들은 그물을 수선하는 데 집중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엉키거나 찢긴 그물을 잡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를 반복했다. 무한 집단 노동의 시간이었다. 아주머니들은 듬성듬성 풀처럼 앉아 있었다. 뱀비둘기의 분홍빛이 감도는 진한 회색빛의 깃털은 해풍이 절인 시멘트 계단 색과 비슷했다. 더 이상 그물코가 보이지 않는 밤에 아주머니들은 귀가했다. 그때 그들의 걸음에서 떨어진 색이었다.

유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미풍에는 마른 장작을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어느 집에서 밥하는 냄새일까. 물이 귀해 샘을 파준 사람의 공덕비를 주민들이 세워준 동네였다.

이곳에서 짓는 밥 냄새는 타지역에서 느껴보지 못한 애뜻함이 있다. 공동 식수대에서 기른 물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웠던 아주머니들이었다. 쌀 씻을 물을 구하는 것은 흘러간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세월이 바꾼 것은 물 길는 양동이 대신에 정수기 물통이 집마다 놓여 있다는 것뿐이었다.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노인들의 모습이 흔히 보였고, 그들의 시큰한 무릎은 그간의 삶을 대변했다.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관을 매장하기 어려운 동네였다. 가가호호 LPG 가스통을 사용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들이 대다수인 동네였다. 덕분에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몇 개 되지도 않는 동네 가로등에는 △△석유, □□석유, ○○석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스티커 아래로 ‘주택 매매’ 홍보지도 있었다.

주택 매매
다순구미 길 ○○ 즉시 입주 가능
큰방 2, 주방, 창고방, 화장실(넓음), 작은 마당(수도 설치), 바깥 창고 있음.
울수리됨(단열, 샤시 포함) 기름보일러, 에어컨 2, CC카메라 3대, 불박이장 있음.
유달산 운동하기 좋음
010-****-****'

복사 용지 한 장을 상에 두고, 사인펜 뚜껑을 열고 정갈하게 글씨를 썼을 노인의 손을 상상했다. 살림살이가 좋아져 이사하는 노인들은 드물었다. 대개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가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평생을 분신과 같은 집을 내놓으며 쓴 매매라는 글자였다. ‘있슴’에서 ‘있음’으로 변한 시간을 읽었다. ‘있슴’에 멈춰진 맥락의 시간이 슬프게 다가왔다. 주택 매매 홍보는 사실, 노인의 자기소개서와 다름없었다. 열기설기 만든 판잣집에 큰방을 내고 창고 방을 내고, 화장실을 넓혔던 노인의 수고가 집의 내력이자 노인의 이력서였던 셈이다. 나는 주택 매매 홍보지를 통해 얼굴도 모르는 노인의 세월을 읽었다. 전봇대에 주택 매매 홍보지를 손으로 꺾꺾 누르며 붙이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을 노인의 형상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의 모습과 겹쳤다.

홍보지는 비에 젖고, 해를 쬘면서 살이 뒤틀렸다. 곳곳에 물이 흐른 길에는 글자가 꽃처럼 번져있었다. 오랜 기간 입고 벗다 보니 닳았을 다순구미 엄마들의 왜 바지처럼 정겨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구정 무렵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으니, 근 한달여 만에 찾았다. 계단 곳곳은 녹이 슬어버린 아버지의 심장처럼 갈색의 곰팡이 포자가 올라와 있었다. 동네 어른들의 고무신을 신었던 내 유년의 기억에, 언제나 고무신은 그 계단에서 벗겨졌다. 나는 줄곧 넘어져 무릎에 생채기를 냈다. 여섯 일곱 살 때, 딱지는 쉽게 생겼다. 권을 바라보는 지금, 도처에 위험한 시멘트 바닥이 있었다. 그것들은 더 많은 상처를 내게 주었다. 딱지는 생기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어 흉터라도 눈에 보이면, 그것을 가리켜 상처가 있던 자리라 말했을 것이었다. 도무지 그런 기회가 내게는 오지 않았다.

담벼락에서 벗겨진 하늘색 시멘트 껍질은 계단에 박제된 유물처럼 전시돼 있었다. 누덕누덕 메워진 시간의 층위에 구뎃발 보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먼저 으깨진 시멘트 껍질에 떨어졌다. 패잔병이 돌아갈 길이 있던가. 나는 새우처럼 등을 굽히고 계단을 오르고, 나를 할 대 삼은 햇빛은 화살촉을 온 동네에 쏘았다. 별이 잘 들고 따뜻하다고 해서 다순구미라 불린 동네답다. 그러나 이름과 다르게 슬픔과 기쁨을 반반 섞어, 가난을 머리에 이고 지고 사는 동네였다.

목포에 시가지가 조성되기 전, 목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그작저작’ 살던 동네였다. ‘그작저작’ 아주머니들은 생선 운반과 그물 수선을 업으로 삼았다. 한때 썰매 선창이 있던 바다를 메우고 마을과 마을을 잇대어 지은 달동네는 목포의 시작이었지만, 푸른 페인트가 벽을 칠해놓은 온금동 골목은 가파른 계단

처럼 위태로운 사람들이 근근한 목숨을 유지하는 전쟁터이기도 했다.

‘고향’이라는 두 음절의 발음이 어색했다. 마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던 시대도 있었다. 밤에 가로등을 켜지 않아도 사람의 말소리가 빛이 되었던 시대였다. 작은 방은 셋방을 놓고, 한 집에 서너 가구는 죽히 살았던 고향 땅이었다. 방을 가르고, 마루를 내는 면적마저 줄여 창고 방을 냈던 시절이 있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사람들의 음성거림을 들었던 시절이 거짓말 같았다. 멧비둘기가 구구 우는 소리조차 어느 예배당에서 간혹 들리는 종소리처럼 아득했다.

한발과 다른 한발이 교차 되며 닿는 계단이었다. 안전의 용도보다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제 난간이 있었다. 손으로 난간을 짚고 계처럼 옆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던 팔십대 노인의 형상이 떠올랐다.

‘노닐다’는 음성이 순간 들렸다. 그 옛날 모세의 계단 위에 올려진 흙 없는 숫양의 울음 같았다. 음성의 발원은 어디였을까. 내가 내뿜지 않은 음성의 곁에, 다순구미 사람들, 더 좁혀 아버지 이현덕 씨의 절뚝거리는 보행은 왜 떠 올랐을까. 뇌졸중은 난간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었다. 탄력 잃은 고무줄이 끊기듯, 아버지의 뇌는 스위치를 껐다. 뒤로 넘어지며 계단 턱에 뒤통수를 찼었다. 미처 난간을 잡을 겨를도 없었다.

아버지는 현덕이라는 이름보다, 동네에서 조금 새끼로 통용되는 군집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리 때 먼 바다로 나간 선원들이 조금물 때면 항구로 돌아왔다. 모처럼 돌아온 선원들은 그때 아이를 가졌다. 생일이 엇비슷한 아버지의 친구들을 삼촌이라 부르며 산 세월도 있었다. 조금 새끼 대부분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지극히 당연한 생의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나는 결혼하지 않은 조금 새끼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조금 새끼 아들이라는 별칭은 모든 조금 새끼의 자녀들이 갖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동네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기표였다. 왜냐하면 조금 새끼가 낳은 자녀들도 물때에 맞춰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아들과 딸의 명칭이 따로 더해질 이유 따윈 없었다. 그들은 그대로 조금 새끼가 됐다. 조금 새끼가 조금 새끼를 낳았고, 그 조금 새끼는 또 조금 새끼를 낳았다는 식이었다.

조금 새끼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불렀지만, 실상 나는 그의 피를 잇는 새끼가 아니었다. 모두가 새끼라고 하니까 새끼였지만, 나는 그의 온전한 새끼일 수 없는 영성한 위치에서, 뼈가 자라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털이 났다. 선대의 조금 새끼들을 따라 후대의 조금 새끼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축이 어긋난 좌표에서 살았던 까닭에, 지금껏 결혼을 유예했다. 내 본질은 무엇일까. 이정표는 보이지 않았다.

해상 케이블이 갈라놓은 다순구미의 하늘에서 한 주먹씩 양복 바짓단을 타고 외로움이 눈가까지 올랐다. 바다에서 서는 장을 파시라고 한다. 나는 파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서산동 유곽에서 버림받았다. 나를 낳은 어머니를 일컬어 누구는 임자도 여자라고 했고, 또 누구는 흑산도 각시라 했고, 더러는 산다이 색시라고도 했다. 동네 사람들

의 절구질하는 입방아가 싫었다. 아버지가 없는 밤은 우레 치는 태풍이 오는 날처럼 무서웠다. 불 꺼진 방,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찬 이불이 싫었다.

“니 얼굴 내 얼굴 각얼굴이라도, 니 마음 내 마음 한마음 아니냐?”

탁주를 마셔 벌게진 얼굴을 하고 아버지는 새벽녘에 들어와 민요를 불렀다. 동네 아이들과 개판이 되게 싸우고 온 날에도 아버지는 민요를 불렀다. 아버지는 명든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산다이 색시들에게나 부르는 술판 노래를 내게는 부르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파시에서 배운 노래라고 했다.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 이불을 힘껏 끌어 올렸다. 서운했지만, 아버지의 노랫소리에 나는 스르르 잠에 빠졌다.

가족이 뭘까, 사랑이 뭘까를 묻는 동안 나는 아주 오랫동안 어두운 길을 헤맸다. 가로등 불빛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가 줄곧 외웠다는 사도신경을 입으로 읊고 손으로 만졌다. 달순 엄마가 일러줘 안 사실이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대목을 통해 나는 위로 받았다. 태생의 천박함에 응시한 타인의 시선들이 버거웠다.

“하나님 전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매일 기도를 했다.

이제는 오고 같이 드문 황토색 나무 대문을 열었다. 행정구역상 다순구미로 일번지에서 쪽 걸어, 계단을 밟고, ‘온금슈퍼’ 간판에서 ‘금’과 ‘퍼’만 남은 글자를 확인하고 계단을 오르면 볼 수 있는 집이었다. 아버지와 내가 달순 엄마에게 세를 얻고 살았던 집이기도 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 선생 오셨고만!”

날이 새도록 그물을 수선하다 보니 허리만 굽은 것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휘고, 지문도 닳았다. 세월이 굽혀버린 신장을 땅에 던지는 여인이 햇살보다 더 밝게 웃었다. 사족보행을 느리게 하는 달순 엄마였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내게 알려준 분이자, 한때는 내 어머니의 친한 친구이기도 한 분이였다.

“야아, 시상 무상타만은, 네 대그뻘에도 서리가 도둑질했다. 시상 요지경 혀도 세월은 먼저 지름길로 오제.”

달순 엄마는 놓친 사위를 대하듯, 아니면 달순이보다 다섯 살 위인 죽은 아들을 대하듯, 나를 반가워했다. 입가가 올라가며 미소 짓는 달순 엄마를 보자 마음이 알싸해졌다.

“직행버스 못 타고 정류장마다 서는 완행버스 탔으께요. 그간 별일 없으셨죠?”

일제 강점기 유곽촌이 있던 동네, 서산동, 그곳에서 산다이 색시들의 밥을 만들고, 빨래하며 품삯을 벌었던 달순 엄마였다. 얼굴에 툭툭 새겨진 주름이 아슬아슬하다. 영산강이 바다로 빠지고, 바닷물이 영산강이 되는 그 길목이 목포이다. 주름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를 걸치는 길목이었다. 이 어느 곳에서 나는 담수가 되었고, 바닷물이 되었는가. 푸른색으로 칠해진 슬레이트 지붕이 달순 엄마를 가렸다. 그의 그림자는 내 구두발 앞에 포개졌다.

바다에서 올라온 노을이 조선내화의 굴뚝을 휘감았다. 나는 달순 엄마가 누워있던 큰방으로 들어갔다. 안테나 수신을 받아야 하는 구형 텔레비전이 한쪽 방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엉거주춤, 그 텔레비전 옆으로 자리를 잡았다. 노인의 체취가 엉겨 붙은 노릇한 냄새가 방금까지 달순 엄마가 누워있던 이불에서 났다. 불 꺼진 적막함이 달순 엄마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숙성된 내 외로움은 빛이 필요했다. 형광등 불빛을 빌리기로 했다.

휴학, 복학, 취업, 명예퇴직, 재입학 등의 단어가 빚어낸 내 세월을 흥금 없이 털어놓고 싶었다. 적어도 달순 엄마에게만큼은 나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형광등이 길을 터준 방에 누렇게 변색 된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때론 낡은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싶었다. 형광등에 비친 달순 엄마의 방에서 졸음이 몰려오는 듯했다. 운동회고 소풍이면 내 도시락까지 싸줬던 달순 엄마였다. 그 품에 엄마의 젖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이따금 아버지가 먼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달순네 집에 들어가 그 좁은 방에 꾸역꾸역 발을 들이밀고, 유달산 자락에서 얻어온 도깨비바늘을 그 집 이불에 달라붙게 했다.

달순 엄마와 내 어머니가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나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꺼냈다. 달순 엄마가 지난해 집 살림을 정리한다며 내게 준 사진을 다시 본 주인에게 꺼낸 데에는 나름의 각오도 있었다. 아프리카 케냐로 전습 선교사가 되어 떠나 기 전, 나는 내 본질을 찾고 싶었다. 뿌리 없는 열매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도 물었던 질문, 달순 엄마에게도 던졌던 물음의 연쇄 고리를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나는 다순구미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캄바어로 타조의 산(KINYAA)이라는 어원을 가진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로 출국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싶다’라는 말로 찾은 선교의 길이었다. 전습 선교사, 원하지 않으면 선교회에 정한 일정만 마치고 귀국하면 그만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보고 싶다’는 하나의 문장이 내 삶을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대부분의 아이가 손에 뭍 들고 있는지 아세요? 노란 액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본드예요. 이 아이들이 구걸한 돈으로 하는 짓이 본드나 환각제 사는 것이라고요. 저는 케냐에 처음 왔을 때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목걸이와 지갑을 탈탈 털어버린 여자였습니다. 이후에 깨달았죠. 하나님의 계획 말이에요.

저는 판잣집을 수리하고, 네명의 미혼모들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70여명의 유치원생과 150여명의 청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를 운영하며 결인들에게 무료 급식까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이에요.’

전습 선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문이었다. 나는 대학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공고문을 봤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라면 사랑을 알까. 사랑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엇이고, 그 크신 사랑이란 뭘까. 나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을 꺼내 보이자 달순 엄마는 마치 사진을 처음 보는 것처럼 웃으며, 손때가 탄 사진을 자기 손으로 문질렀다. 사진 속 달순 엄마와 어머니는 아직 어머니가 되지 않은 소녀였을 때였다. 날씨 좋은 날 재보 선창가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소녀들은 정면으로 시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분을 예쁘게 바른 어머니와 세수도 한 것 같지 않은 달순 엄마의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았다. 식모 일을 하면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였다고 달순 엄마는 어머니를 회상했다.

훗날 신문에 ‘후조(候鳥)’라고 기사를 쓴 기자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남자 정 따라 떠도는 인간 갈매기 떼, 정조 관념에 어긋난 아름다운 꽃을 일컫는 요화(妖花), 산다이 색시, 파시의 여자라 표현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 얼마 전에 읽었다. 밥상을 물릴 때쯤, 달순 엄마를 통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은 어머니가 받은 화대였다는 것을 말이다.

“딸 낳으면 갇치지도 않고, 어짜든지 줄줄이 낳은 새끼들 틈바구에서 입 줄일라고 안했드라고. 네 엄마나 나나 딸이 아니드라고. 배 타고 나가 소식 없는 애비 대신해 세 발낙지 췌ن 와리바시같이 동생들 있었잖어. 고등교육은 못 시캐주더라도 소학교는 나와야 안 쓰것어. 나는 글도 모르고 배움도 없지만, 동생들 무식은 면해야 않것어. 그래야 커서 밥 빌어먹고 살거 아니것어. 너는 그란디, 뫼담시 또 쓰잘데그 없는 말을 묻냐.”

어린 시절 바다 굿을 하던 무당의 사설처럼 신과조가 느껴졌다. 익숙한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다시 듣고 싶지는 않았다.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말들 사이에서, 달순 엄마는 미묘한 낌새를 눈치를 채 것일까.

“내 정신 좀 봐라, 밥은 무엇냐. 그라든 네가 단디 마음 먹고, 애비도 가불고 나도 갈 날 이제 얼마 없응께, 밥 묵고 너사 내 말 듣고, 도야지를 잡든, 그 불알로 축구를 하든 맘대로 혀라. 땀 속에 한을 달고 살면 고것이 너를 잡을것잉께. 너도, 나나 네 애 미맨큼이나 그작저작 살 팔자는 아닌갑다.”

달순 엄마가 밥을 차리기 위해, 방 하나를 건너간 사이였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아버지는 왜 업둥이인 나를 키웠는지, 어머니는 왜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침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달순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은 액자를 쳐다봤다. 흑백 사진이었다. 머리를 곧게 빗은 달순이의 중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 날렵한 턱선, 커다란 눈을 가진 체구가 작은 아이가 바로 달순이었다. 일본풍 세일러복을 입은 중학생 달순이가 내 방문을 열었을 때가 떠올랐다.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의 방문이 썩 달가운 사건은 아니었다.

위도에 조기 파시가 섰다는 것은 동네 어른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달순이네 외삼촌은 임자도 타리 파시 때 목돈을 꽤 벌었다. 외삼촌은 누나 덕분에 내가 잘됐다며 이제 부모 대신에 누나한테 효도하겠다, 공부 잘하는 달순이의 고등학교는 서울로 유학 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 외삼촌이 잠깐 달순 엄마와 달순이를 보러 온다는 것이었다. 달순 엄마는 자기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선착장으로 나갔다, 집에는 달순이와 나만 있었다.

아버지 몰래 다니기 시작한 교회였다. 나는 교회 청소년부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사실 찬양 사역을 한다기보다, 통기타를 치면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허세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용돈을 모으고, 더러는 친구들에게 빌려서 통기타 하나를 장만했다. 집으로 가져온 통기타를 보고, 아버지가 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답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또한 크게 개의치 않았다. 사실 내게 별 관심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해매는 그대로 다’의 가사가 있는 291장 찬송가는 E플랫과 B플랫의 코드를 잡을 줄 알아야 했다. 처음에는 기타 치는 게 재미있었는데, 두어 달 기본 코드를 외우고, 손톱 끝에 물집이 잡히자, 기타 치는 것이 슬슬 물리고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코드를 몇 번 잡다가, 교회 친구들끼리 몰래 돌려 보던 플레이보이 잡지를 집에서 혼자 보고 있었다. 방문을 걸어 잠갔어야 했는데, 깜박 잊어버렸다. 금발과 파란 눈의 서양 여자의 풍만한 가슴골을 보며, 나는 야릇한 감정에 쌓였다. 바지를 내리고 방바닥에 누웠다. 섹스한 기운이 돌았지만 금방 괜찮아졌다. 곰팡내 나는 벽을 마주 보고 수음할 때였다. 방문이 덜컥 열렸다.

“너 시방 뭐하는 것이여?”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던 내 양물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고, 귀두 끝에는 물방울이 맺혔다. 몽정하고 난 아침처럼 찻찻함이 몰려왔다. 낮부끄러웠지만, 팬티를 계속 내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인기척이라도 좀 해.”

“조그만 것이 컸다고 그 짓이냐? 허벌나게 징그라야! 떠날 이유 추가!”

목소리가 한껏 들뜬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입이 간지러워 내 방을 찾아온 듯했다.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머무른다.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은 떠난다. 떠날 이유도 머무를 이유도 찾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일상을 산다. 나는 살았고, 달순이는 늘 지긋한 춘

동네를 떠나야겠다며 이유를 만들어서 찾는 듯했다.

한번은 달순이에게 왜 다순구미를 떠나고 싶은지 물었다.

“넌, 좋냐? 난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말을 주고받았다.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었지만, 좋냐는 한마디의 말이 내 정곡을 쿵 찔렀다. 벗어나야만 하는 가난, 바다 것의 비린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 커리어 우먼이 될 것이라는 달순의 답에는 나와 비슷한 외로움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외로움을 키운 것이라면, 달순이는 이곳을 벗어나야만 사라질 수 있는 외로움이었다.

옆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문 밖에 누가 오고 가는지, 심지어 내 방에서조차 내 공간을 침해받으며 사는 삶에 대해, 나는 어렸지만 고민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집사나 권사님들께서 두레나 향약의 옛 전통의 멋스러움, 공동체의 참다운 가치에 대해 내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다. 서로 돕는 풍속에 대해 나는 그리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살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있다. 제약 회사에서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고 사표를 억지로 회사는 내게 쓰게 만들었다. 자기 것을 지킬 자가 있는 자들은 그들끼리,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편을 갈라 의지한다는 것이다. 두레나 향약도 사실은 공동체의 멋이다기 보다는 오히려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과시가 서는 날 외삼촌은, 유곽에서 포주와 색시의 장난으로 가진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고 달순 엄마에게 말했다. 그들 패거리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말에는 분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벽을 통해 감정이 내게 전달됐다.

“이 씨발 것들, 요런 호로 잡녀러 것들!”

달순 엄마는 방바닥을 치며 욕을 했다. 달순이가 방을 뛰쳐나가면서 절로 닫힌 문소리가 내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뭔가 사달이 날 것 같아 불안했다. 나는 달순을 쫓아 밤의 계단을 밟았다. 계단의 끝이자 마을의 시작점에 달순이가 쪼그려 앉았다. 교복 치마가 맨바닥에 쓸리며 구겨졌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망가질 때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별도 뜨지 않는 칠혹이 달순이 등 뒤에 서 있던 나와 달순이 사이의 공간을 칠했다. 다순구미에는 머물 이유가 없어도, 머물러야 했던 달순이가 있었다.

세를 준다고 하지만, 달순이네 살림 사정이 좋지는 못했다. 딸 하나 있는 것 고등학교 교육도 못 해 줬다고 달순 엄마는 내게 여러 번 한탄했다. 공부는 달순이가 더 잘 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다. 달순이를 그리워하는 달순 엄마를 보며, 내 엄마는 왜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쌓으며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물 길은 마을 풀 보기 싫다며 달순이는 집을 나갔다. 고작 가출하여 간 곳이 목포 여객터미널 부근이었다. 사실 가출이라기보다는 터미널 근처의 직업소개서 사무직원으로 채용됐다. 나는 그 소식을 신학교 입학하고 한 계절이 지나서야 들었다. 아버지가 말해줬는지, 달순 엄마가 직접 말해줬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말이 사무직원이지만, 선원

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커피를 따라주는 일이 달순이 맡은 역할이었다.

달순이는 내 핑계 삼아, 내가 다니던 광주에 있던 대학교에 찾아왔다. 한참 동안 우리는 일에 대해,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달순이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오는데 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 성적 농담을 스스럼없이 던지는 아저씨, 그들의 웃음소리,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누군가 바늘을 가져와 톱 찌르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아낼 것 같았다.

들개가 킁킁 짓는 야심한 밤, 나는 달순의 터진 입술에 내 입을 포개었다. 아랫도리는 금방 뭉쳐 올라왔고, 나는 좀 더 억세게 달순을 안았다. 달순은 나를 힘껏 밀치고 내 뺨을 때렸다.

“뭐? 목사가 돼야? 너도 똑같아, 자지 달릴 놈들은 다 똑같아. 너도 내가 만만하냐 이 씨발놈아!”

기숙사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에도 아랑곳없이 달순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사람들의 맥락 없는 소리가 아우성쳤고, 나는 낮부끄러워 그 자리를 피했다. 울음이 나를 쫓았다. 나는 그 울음을 덮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경에 매달렸다. 누가 옆에서 무슨 일인지 묻는 것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므로 나는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해명할 까닭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사실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을 비롯한 동기생들은 내 입을 쳐다봤다. 말을 해도 소문은 생명을 가져 부풀려질 것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상상하여 거짓이 꼬리를 물은 것이었다. 애매모호한 내 자세를 나무라던 동기들이 입을 다물었다. 교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동기들이 하나둘, 곁을 내주지 않았다.

간장과 고춧가루로 짭조름하게 맛을 낸 꽃게무침이 밥상에 올려있었다. 게 몸통 살을 엄지와 검지로 쪽 빼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하얀 밥에 게살을 올려놓는 달순 엄마의 손이 정겨웠다. 나는 미취학 시절 방이 비좁아 달순네 방턱에 걸터앉았다. 밥 냄새가 나면 달순 엄마나 달순이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혼자 있는 것을 알기에 나를 챙겨줬다. 하지만 나는 머뭇거리며 밥상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그들 가족 틈으로 끼어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방턱을 내 자리로 잡았다. 더 보채면 내가 안 먹는다고 갈 거라고 달순 엄마는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객식구인 내게 고등어 흰 살, 고사리무침 등을 올려 주며 어서 밥 한술 뜨라고 권한 손이었다. 해풍과 세월이 말린 달순 엄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검버섯이 피어오른 손 등에서, 10대 후반 내 어머니와 교제했던 소녀의 여리고 고왔던 시절이 읽혔다.

“너, 삼학도 야그 아냐?”

탁주 몇 잔이 돌고, 뜬금없이 달순 엄마가 절절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유달산에서 수련 중인 한 청년을 사랑한 세 처녀, 청년은 수련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그 세 처녀를 달래 떠나보냈지만, 후에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고, 처녀들 보고 떠나지 말라고 활을 쏘았는데, 그만 그것이 세 처녀가 탄 배에 꽂혔다. 배는 서서히 침몰했다. 이윽고 세 처녀는 학으로 변해 지금의 삼학도 자리에 세 섬으로 떨어졌다는 전설이었다. 목포 태생이라면 모르면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구술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가 그렇듯, 허술한 지점이 있었다. 청년은 무엇을 수련한 것일까. 그 후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랑을 묻기 위해 아주 먼 길을 돌아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길이었다. 해매고 기어코 걸어가야만 하는 가나안 광야 순례길이었다. 한 청년을 사랑한 세 처녀, 세 처녀와 한 청년의 시소 추는 평평할까. 그것은 성적인 에로티시즘을 수반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원이 되는 내 사랑을 알기 위해, 나는 수백 번 아리랑 고개를 넘나들며 서산동과 온금동을 바라봤고, 목포 앞바다에서 소리치며 울었다. 뱃길을 아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를 유해를 뿌린 목포의 바다는 다순구미의 좁은 계단 폭처럼 웅졸해 보였다. 바다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용해주지 않았다.

달순 엄마는 한참 동안 내 가족사에 대해 말했다. 목이 탔는지 연거푸 탁주를 마셨다. 이제 됐냐는 듯이 꼭 트림을 하고 입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리고는 마을 잔치 때 목포의 눈물을 부르기 전처럼 목을 길게 뻗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맞춰 술상에 젓가락 장단을 두들겼던 마을 산다이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한 발을 올리고 어깨를 등실등실 흔드는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아이를 낳고 급격히 쇠약해지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월급이 깎이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기를 쓰고 어머니의 매상을 올려주려고 했다. 매상을 많이 올리면 오산다이, 그렇지 못하면 산다이. 어머니는 어선이 입항하는 날, 나를 낳고, 기침하고, 다시 유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잘 살아야 해. 우짜든지 너랑 나는 잘 살아야 해.”

호기롭게 말하며, 다 큰 아들에게 입술을 쪽 내밀며 뽀뽀하려고 했다. 나는 싫다고 발버둥을 치며 아버지를 밀쳐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새끼데 뽀뽀 한번 해주지 않냐며 아버지는 편잔을 주었지만, 우리 부자는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머리 검은 짐승 거뿔 키워도 잘만 산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약속이라고 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버지는 조기와 세월을 맞바꾸었다.

“아따 맞아, 너 기타 칠 줄 알지? 달순이 방에 기타 있을 것인데, 좀 갖고 와서 한번 쳐봐라.”

달순 엄마는 눈을 반쯤 감고, 젓가락을 쥔 채 그대로 벽에 기대며 말했다. 마치 다음 노래는 나보고 하라는 넘김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상을 살짝 물리고, 바닥의 이불을 끌어 달순 엄마를 덮어 주었다.

나와 아버지가 살던 곳이 달순이의 방이 됐다. 고등학교를 입학 할 때쯤 아버지는 조기 님짓배를 탔다. 부자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다. 그래봤자 달순네 집과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우리 집이 생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다.

달순 엄마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푸념 어린 노랫소리가 그 옛날처럼 벽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했다. 주인 잃은 통기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사를 하며 내가 달순에게 선물로 준 기타였다. 달순이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음악적 감각도 좋았다. 내게 배운 운지법을 곧잘 익히더니, 어느새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그 음색이 노래에 따라 별빛같이 잔잔해졌다가 폭풍우처럼 거세지기도 했다. 목포 바다의 파도를 닮았다.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였다. 목포 터미널 부근에서 나는 오래 서성였다. 집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았다. 불 꺼진 집이 싫었다. 다순구미의 적막함이 싫었다. 그러다 막상 집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 어둠에 익숙해졌다. 상병 이 호봉 사격 우수로 포상 휴가를 받았다. 그때도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텅골며 시간을 죽였다.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은 외로움이 싫으면서도 그 외로움을 쫓는다. 구타와 욕설이 오가는 내무반 보다는 외로움이 있는 집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이었다. 제대 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이 있었다. 앞으로 먹고살 것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질책 너머로,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내 몸 곳곳에 곰팡이 꽃을 피웠다. 시나브로 내 몸이 어둑어둑 사위어가다 고사 되고 싶었다.

들꽃처럼 핀 네온사인이 내 권태로움과 엉켰다. 라이브 카페였다. 하얀색 면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회색 병거지를 썼지만, 나는 단숨에 그녀가 달순이라는 것을 알았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도다”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목숨을 내던진 성악가 윤심덕이 부른 사의 찬미가사였다. 달순이의 눈은 관객에게 있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노래만은 단조로웠고, 나직하여 하마터면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을 뻔했다. 달순이에게 나는 무엇이였을까. 나와 달순이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 방에서 목을 매고 스스로 삶을 거둔 가련한 목숨이었다. 내가 머물던 방과 달순이가 머물던 방에는 사람의 말로 찾을 수 없는 단어가 있었다. 줄이 튕겨 나간 기타 안쪽에 휘갈겨 쓴 ‘좋냐’가 보였다. 플레이보이 모델을 가위로 오려 붙여 놓고 쓴 ‘좋냐’는 글씨, 그것은 내게 묻는 말 같았다. 사는 게 좋냐는 말 같았다.

‘노닐다’는 음성이 내게 다시 찾아와 방에 잠시 머물렀다. 나는 달순 엄마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기타를 들고나왔다. 더 들을 말도, 따져 물을 질문도 이제는 사라졌다. 산다이는 파시만의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달순 엄마를 비롯한 윗대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었다. 나와 달순이는 각자의 방법으로 산다이를 즐겼다. 다만 달순이는 그 놀이를

중도에 스스로 끝낸 것이고, 나는 좀 더 해보기로 결정한 점이 달랐다.

견습 선교사 돼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고민했다. 출국하기 전에 기타 줄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공고문을 쓴 선교사가 노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떠나고 싶어 했던 달순이를 업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노래는 달순이가 하면 된다. 이것은 C, 저것은 F코드야라고 했던 그때처럼,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옛날 파시 산다이 판이 벌어졌던 심야의 시간은 떠나기 좋은 날이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밤바다가 보였다. 며칠 전, 뉴스에서 서산-온금동 재개발이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뉴스 화면 속 현수막 하나가 내 머리에 간헐했다. 나는 바다를 보며 ‘세입자 임대아파트 및 주거 이전비 신청 및 접수’라는 문구를 돌을새김 했다. 파시 불빛이 한번 켜졌다 사라졌다. 창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비행기 내부로 향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었고, 달순 엄마가 길을 냈던 날말이었다. ‘파시’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젊은 남녀 커플 한 쌍이, 케냐 여행에 들떠, 하쿠나 마타타를 서로 속삭였다. 낯선 곳으로의 삶은 달순이 꿈꿨던 것이었다. 승무원이 식사 수레를 끌고 통로 쪽으로 걸어왔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승무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났다. 바다, 파시, 산다이 그리고 장단 있는 노랫말을 품은 향기였다. 내 마음은 벌써 젓가락을 술상에 두들기며 멋진 인생 한 곡을 뽑고 있었다.

“아리아리아리동동 스리스리스리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제14회 목포문학상

문학평론 당선작품

형식의 변주, 과정으로서의 감성 - 최은영론¹⁾

(소외에서 공감으로)

신 용 성

1.

형식을 외형으로 고정시키는 경우 소설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 소설의 서사가 개인의 삶과 죽음을 관통시키는 전기 형식을 취할 경우 개인의 체험이 관념으로 정립되는 시점은 목적인 아닌 과정의 어느 지점이다.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관념을 정화하는 이념적 생성 작업을 통해 형식의 윤리를 규정짓는다. 윤리는 미학적 구성 요소들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세부적인 형상화를 조건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가는 주제의 본질에 접근한다. 따라서 창조적 주제는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와 반응하는 과정으로서의 형식이 구체화되는 형태를 띤다. 이때 형식은 재료를 통해서 구현되는데, 최은영 소설에서 문학적 언어로서 재료는 서정적 주관의 의미화로 발현되는 감성이다. 형식으로 변주되는 재료가 작가의 체험 언어로서 감성이라는 특별한 형성물로 단일화, 체계화 되면서 최은영 소설의 골격 구조는 완성된다.

최은영 소설의 구조는 인물의 개성적이고 특별한 체험으로 해석되는 세계를 특정한 질서를 가진 하나의 ‘감성’으로 통합하려는 헤겔의 변증법적 의지, 감성이라는 관념으로 구체화되면서 형식화된다. 주관은 서사의 내밀함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윤리의 이념적 구속으로부터 독자적인 시선을 확보한다. 작가의 시선은 소설의 인물을 통해 끝없이 내부로 향하지만 인물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변화에도 민감하다. 자기와 타자,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삼자 관계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시간이라는 유동적 개념을 끌어들이며 진화한다. 최은영이 만들어내는 인물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최은영의 문학세계는 단선적 주제와 중층적 감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작가가 세계를 보는 눈은 무겁지만 복잡하지 않다. 작품 속의 인물 역시 어둡지만 존재성은 뚜렷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며 서사 방향은 직선이 된다. 현존재의 주관적 감성은 서사의 틀에서 부유하지 않으므로 과정이 목적으로 전도되기도 어렵다. 형식의 굴레에 구속되지 않는 서정은 인물의 동선을 자유롭고 일상적이게 만들지만, 또한 완성되지 못한 형상화 과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두려움과 소외감으로 경계심을 놓

1) 여기서 사용된 최은영 작품 중 장편소설 『밝은 밤』(문학동네, 2021.7.) 외 소설집은 다음과 같다.(본문 괄호 속 번호는 위의 소설집 순서에 따른다.)

1. 『쇼코의 미소』, 문학동네, 2016.
2. 『내게 무해한 사람』, 문학동네, 2018.

지 않으면서 언저리를 맴돈다. 필연적으로 인물들은 상호보완적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고, 끈끈한 유대의식 형성을 위하여 각각의 감성을 공유한다. 최은영의 소설에서 문학성은 인물의 개체성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보편적 당위로 승화하는 부분이다. 이때 형식은 주관에 의한 자기 통찰의 과정이 내재화된 형태로 감성의 추상성을 본질과 가깝게 형상화한다.

최은영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물의 의식 내부로 잠입한다. 의식에 내재된 감성적 인식을 발현하여 실재의 일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최은영 특유의 색깔을 입힌 창조적 인물을 완성시킨다. 이때 인물은 의식으로 형상화된 현상에 대한 은유의 범주화를 통해 인간 정서의 보편적 질서의 결을 포착하게 된다. 그 메타포의 동력은 의식에 이입된 제도화의 틈새를 겨냥하는 감성의 발굴이다. 최은영의 장편소설 『밝은 밤』의 도입부는 이미지의 표상으로 시작되는데 최은영의 주관적인 정서가 감성의 구조와 밀착되는 표현주의적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사찰에서 나던 향 냄새, 계곡의 이끼 냄새와 물 냄새, 항구를 걸어가며 맡았던 바다 냄새, 비가 내리던 날 공기 중에 퍼지던 먼지 냄새와 시장 골목에서 나던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한의원에서 약을 달이던 냄새…… 내게 희령은 언제나 여름으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희령에 처음 간 건 열 살 때 일이었다.(『밝은 밤』. 9쪽.)

희령이라는 지명이 냄새라는 직관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최은영의 심상으로 내면화되는 정서의 형상화된 모습이다. 냄새는 주변 사물들의 특성을 결정하면서 구체성을 띠고 그것은 여름이라는 형식의 틀로 장착된다. 냄새와 여름은 확장된 이미지로서의 인물의 기억인데 최은영만의 독특한 심리 현상을 관념화시키는 하나의 구조로 역할 지워진다. 개별적인 감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주관적 정서로 부각시키는 최은영의 표현 기법이다. 감성이 형식의 틀에서 구체화되면서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관념이 본질적이며 창조적으로 체화되는 최은영의 소설 세계로 구현된다. 최은영의 중편 「쇼코의 미소」에서도 도입부의 형식은 문제의 제시라는 과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넣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밀려나서, 역시나 대양에서 밀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다.

“언젠가는 바다를 떠나서, 사방을 둘러봐도 빌딩밖에 없는 도시에 가서 살 거야.”

쇼코는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다. 열일곱 살에도, 스무세 살에도.

언젠가는 도시로 나갈 거고, 언젠가는 한국을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고, 언젠가는 남자와도 함께 살아볼 거고, 언젠가는 병원을 관둘 거고, 언젠가는 고양이를 키울 거고, 무엇이든 해보리라든 내게 이야기했다.(「쇼코의 미소」. 9쪽.)

바다는 변두리를 표상하는 감성의 우발성을 연상시킨다. 이 선험적 우발성 때문에

관념의 직관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형식의 언저리에서 맴돈다. 불완전체의 감성은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해변과 변두리의 구조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의 시작과 끝이 서사의 중심이 아니라 서사를 주관하는 주체의 현시에 초점을 겨냥하려는 형식을 전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은영의 감성은 인물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존재와 당위의 간격에 대한 가늠대라는 의미 부여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과정이라는 미완성 주로를 탐색하면서 작품 구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쇼코의 미소」의 소유와 『밝은 밤』의 지연에게 인식된 세계는 정체되지 않은 아노미의 상태이다.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습적 규범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성적 혼돈상태이다. 현실은 불투명과 부적합이라는 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다. 지연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소유가 쇼코를 만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미세한 감정의 동요는 정체되지 않은 자신의 감성 노출의 재현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정체성에 대한 애착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들의 관념을 엮매고 있던 근원은 스스로 믿고 있었던 규범이나 도덕적 관습, 고정화된 사회와 가족의 이력 그 너머에 있다. 최은영 소설이 이러한 불편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형식의 조건 중의 하나인 이념적 윤리에 대하여 주관적 형성물을 통한 균형을 지향하려는 담론 전략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최은영 소설에서 감성의 형식으로 변주되는 요소로는 재현으로서의 시간,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표현으로서 미소, 존재와 당위의 간극을 메우는 구체적 서정으로서의 공감과 단절, 이 양자를 반어적 기법으로 활용하는 소외 등을 추출할 수 있다.

2.

최은영은 시간을 소설의 주제에 대한 메타적 함의를 설정하는 의도적 키워드로 활용한다. 등장인물의 감정의 흐름이나 서사의 전개가 시간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진폭이 조정됨으로써 대상과의 거리가 유지되고 이와 함께 화자와 대상 간의 간격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리다’라는 느낌의 감성은 시간을 주관화하면서 대상의 기억을 통해 영혼의 기제를 작동시킴으로써 발화된다. 최은영 소설에서 세계와의 공유가 감성 인자에 의해 축조되는 것이라면 자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의식은 시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감성과 시간은 자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키워드이면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의미화 된다. 보편적이고 객관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감성의 균형, 즉 최은영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감성 공유를 가능하게 직조하는 몇 가지 모티프이다. 그것은 단절과 공감의 연대, 감성의 중층성과 상징의 범주화로 축약된다.

최은영은 여린 감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에두르지 않고 현상을 직시한다. 순한 감성은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체험의 결과로 재현되는 현실 그 중심으로 몰입한다. 일상의 사소함에서 언뜻언뜻 묻어나는 삶의 본질에 대한 천착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이며, 이와 같은 내적 욕구는 정체성 인지를 위한

감성의 재해석으로 발현된다. 자아와 세계의 분리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소설의 인물이 봉착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불안하게 보이는 인물의 서정적인 삶에서 주관적 인식 확장을 통한 본질의 영역을 탐구하는 일은 현상의 보편적 성질을 추출하려는 작가적 의지로 읽혀진다.

최은영은 관습과 제도로 구조화 된 일상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재현된 시간과 상황의 직조를 통해 탐색한다. 소설의 공간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지만 의식의 흐름은 시간을 따라 전개되는 개별적 체험 공간에 구속된다. 그러나 인물이 펼쳐놓는 체험의 자락에 시간은 의식되지 않으며, 다만 주어진 고유한 캐릭터에 따라 시간으로 형상화되는 유기체적 특성을 스스로 체화시킨다. 즉 의식과 현상이 공유하는 것은 지속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시간 인식이 아니라 시공을 일관하는 일상의 통합이다. 오늘이라는 특정된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계의 삶이 내 삶으로 내면화되었을 때이다.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영혼의 교류를 통한 일체감의 획득을 통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일상의 길목에 감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감성은 시간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내적 동력을 가지게 된다.

『밝은 밤』은 자신의 삶이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게 된 할머니로부터 과거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는 주인공인 ‘나’가 안주한 것은 시간이었다. 자신의 관념이 사회적 공간과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 혹은 사회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예전의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겨울보다는 봄에, 봄보다는 여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되지 않는 듯해서 불안했다. 이혼 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다. 잘 사는 것이 복수라고, 보란 듯이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내 등을 천천히 두드리는 손길에서 내 등을 후려치는 채찍이 되는 동안에.

고통 안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뒷걸음질쳤고 익숙한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서린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강해질 수 없을까.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래 울던 밤에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작음을 직시했다.(『밝은 밤』. 155-156쪽.)

그러나 ‘나’가 사회적 경험이 진정한 보편성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내적 고통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시간의 속성은 복합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진실의 성격은 자신의 고유한 정신 구조로부터 규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곧 자신의 정신 목적과 치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시간이 자신의 감성으로 재현되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이 시작된다. 최은영에게 시간은 내적 욕구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감성의 고리로 작용한다.

통합된 일상에서 회상으로 표상되는 서사 또한 작가의 감성으로 이미지화된다. 바흐친이 말하는 예술적 시공의 통합이 기능하는 크로노토프의 재현 시점에서 인물의 감성을 이끌어낸다. 시간에서 놓여난 것처럼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시절' (2. 「그 여름」. 59쪽.)의 회상에서 시간은 인물의 경험 속에 정지되어 있다. 멈춘 시간은 '관념'의 표상이며, 그것을 현실 세계로 유입시켜 '실제'로 변환시키는 일은 공간의 전이를 통한 회상의 시간화로 가능하다. 시공의 역학관계는 작가의 동적 의식으로서의 행위가 정지된 시간에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된다. 「비밀」에서 손녀인 지민이 중국으로 기간제 교사로 떠난 뒤 소식이 없자 말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사진이다. 사진 속 말자와 지민은 정지된 피사체이지만 시간은 과정으로서의 삶을 작동시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지만 사진 속 그 풍경은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1. 「비밀」. 257쪽.)는 의식은 말자의 감성을 끌어내는 유기체로서의 시간이라는 모티프의 개입으로 가능하게 된다.

인물의 의식 변화는 대상이 아닌 시간을 지향한다. 의식의 굴절은 주체적 인물의 의지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비주체적인 결정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대학원생 영주와 케냐의 수의사인 한지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지만 헤어지게 되거나(「한지와 영주」), 아치디에서 만난 한국 출신의 하민과 브라질 청년 랄도의 사랑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어긋나는(「아치디에서」) 서사는, 그들의 기억으로 재현되는 공감의 동인이 자신들의 삶의 밀도의 대소가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지 못한 시간 때문이었음을 설명해준다. 헤어지면서 하민이 랄도에게 했던, “넌 네 삶을 살거야.” (298쪽)라는 말은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한 하민의 내면의 소리이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타자와의 유대감을 기대하려는 공감 의식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의식 지향성의 변곡점이 현상 그 자체가 아닌 기억 속에 정지된 시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소설의 인물에서 추출되는 감성이 공유 대상의 시간들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사소한 일상으로 포장된 영혼 전체의 울림이고 생명을 가진 인간임을 의식하게 한다.

3.

시간을 매개로 펼쳐지는 감성은 서사의 결을 따라 외형적인 증폭의 양상을 보이는데, 내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 결에 무늬를 입히는 모티프로써 사용되는 것이 웃음이다. 최은영 소설에서 과거의 기억이 불러온 회상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멈추는 지점은 과거 서사가 끝나는 일정 시점까지이다. 이것은 인물의 감성을 끌어내는 발화점을 시각화하여 작가 감정이 개입되는 통로를 차단시키고자 하는 작의로서, 대상에 대한 지적 판단에 선행하는 정서적 반응을 도출하려는 의도이다. 웃음이 개입하는 곳은 유기체로서의 시간의 유한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속성이 가시화되는 지점이다. 즉 과거 기억의 회상이라는 구조가 최은영 소설의 외관 형식으로 작용했다면 감성의 내적 발화 지점은 '웃음'이 개별 공간에서 다성적 의미로 재현되는 곳이다.

「쇼코의 미소」에서 쇼코의 웃음은 신체적 표현이 수용자의 시각 변화에 상응한 임

의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캐릭터의 다중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한국인 여고생 소유의 학교로 동갑내기 고등학생인 일본인 여학생 쇼코가 자매학교 방문단으로 오게 되면서 만난 두 여학생의 정서적 교감은 이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과 삶의 양태에 따라서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을 보인다. 소유는 자신에게 보여주는 쇼코의 행동이나 태도에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차가움을 감지한다. 이러한 굴곡진 정서적 교감은 어쩔 수 없이 외양으로 드러나는데 소유는 그것을 쇼코의 ‘웃음’에서 찾는다.

웃음은 서사의 전개와 함께 인물의 감정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웃음에서 미소로 변화하는 과정은 이들이 열여덟의 청소년에서 서른의 성인으로 이르는 동안 의식의 성숙과정을 은유와 상징으로 보여준다. 소유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웃는 쇼코의 웃음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는데, ‘공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1. 「쇼코의 미소」. 12쪽.) 여기에서 웃음은 소유가 쇼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웃음을 인식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니체의 정의와 일치한다. 소유는 쇼코의 성격과 태도를 그녀의 웃음으로 추론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타성은 정신활동의 신체반응인 웃음을 통한 감성의 진폭을 주체화시키려는 작의이다.

최은영 소설에서 웃음의 메시지는 사회관습적 체계로서의 언어가 갖는 논리적 사고의 통제력에 대한 감정적 거부이다. 소설의 인물은 외형상 주어진 환경과 규범의 비자발적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면의 심연에서 자발적으로 울리는 감성의 뿌리는 존재의 본질에 닿아 있다. 「한지와 영주」에서 영주는 자신의 정서가 유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난 뒤부터 내면의 목소리를 표정으로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그저 웃고 있을 뿐인데도 자연스럽기는커녕 쩡그린 얼굴’ (1. 「한지와 영주」. 137쪽.)은 본질의 상처가 드러내는 표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체성의 불편한 진면목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영주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불안이 한지와와의 정서적 공감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내면의 불안은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존재를 정당화 할 아무 것도 없고, 어떤 존재 이유도 자기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는 조르주 폴레의 말처럼 존재의 가치에 대한 회의는 자신의 타자화를 정당화시킨다. 영주의 비뚤어진 웃음은 이 소설에서 내면 서사를 구조화하는 존재론적 은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은영 소설에서 웃음은 이처럼 감춤과 추함을 전제함으로써 하나의 미학적인 의미 획득을 달성한다. 인물이 세상에 대해 숨기고 싶었던, 과거 속에서나 현재 속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존재 본질을 웃음의 모티프로 재현한다.

대상의 감정선이 지향하는 내면을 따라가면서 중첩적 의미를 띠고 있는 웃음의 상징성에는 변증법의 개념이 도입되기도 한다. 「쇼코의 미소」에서 쇼코의 웃음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열여덟의 웃음이 싸늘함이었다면 6년이 지난 스물넷의 웃음은 ‘웃음의 절대화’를 표방한다. ‘어린 시절에는 차갑고 어른스럽게 보이던 그 웃음에서 나는 쇼코의 나약하고 방어적인 태도’ (26쪽)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곤, ‘예의 그 예의바른 웃음’이 어린 시절의 유치함이었었던 것으로 의심 없이 결론을 내

린다. 대학생이 된 쇼코가 자신을 찾아 일본으로 온 소유에게,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 넌 누구니?’ (30)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때의 웃음은 언어적 의미를 뛰어넘어 그 자체를 절대적 개념으로 격상시킨다. 최은영 소설에서 웃음은 ‘어떤 대상 또는 객체가 우리의 표상, 즉 생각과 불일치하는 것이라는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쇼펜하우어의 견해나, ‘자신과 주위세계와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그의 현존재와의 단절의 체험’이라는 플래쓰너의 주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인간의 본질을 천착해 온 웃음이라는 감성 논리가 귀착하는 곳은 결국 단절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다. ‘나는 아직도 왜 한지가 내게 등을 돌렸는지 모르고’, 난 ‘그 단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1. 「한지와 영주」. 162쪽.)고 여백을 두고 있다. 한지가 등을 돌린 이유를 고민하면서 영주가 떠올리는 할머니의 얘기(1. 「한지와 영주」. 164쪽.)에서 ‘우리’란 너와 나의 공유 의미가 아닌 오로지 나 ‘혼자’의 의미다. 혼자로서의 ‘나’의 존재는 우리의 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사회적인 모든 장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나의 본질 추구는 속단하고 곡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와의 단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영주의 단절 의식은 한지의 행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영주 자신의 소외감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외 의식으로 밀봉된 존재 본질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형식을 의식하지 않으며 과정에 대한 천착으로 얻어진 공감이라는 형성물로 재현한다.

최은영은 「쇼코의 미소」에서 페르소나의 이중적 상징성을 조심스레 끌어다놓는다. 소유가 인지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불신과 쇼코의 미소로부터 의식되는 페르소나의 역할은 무의식적 발현으로서의 의구심의 상징이다. 상징의 대응이라는 설정은 미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이질적 성격을 변주하기 위해서다. 동화와 소외, 이것은 상관적이면서도 비상관적인 재현된 공감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나’와 ‘타자’의 개념에서 객체와 주체를 동화시키거나, 주체로부터 객체를 소외시키는 두 기능을 융합하는 방법론이다. 인물의 개성적이고 특별한 체험으로 해석되는 세계를 특정한 질서를 가진 하나의 ‘감성’으로 통합하려는 변증법적 의지의 표상화로 내세운 상징의 실체, 바로 무의식적 냉소는 감성으로 변주된 소외의 모습이다.

최은영 소설에서 소외 양상은 형식으로 변주되는 재료가 목적이 아닌 과정으로 형상화 되는 예를 보여준다.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소외를 시대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포착한 뒤 그것을 감성의 영역으로 전이시켜 주관적 표상으로 정립한다. 그 양상은 일차적으로 단절의 기제로 작용하는 범박한 의미로서의 응크림으로 나타난다. 최은영의 인물에게 가족과 사회는 외경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이분법적 논리로 재단하거나 은자의 미덕으로서의 도피를 선택하지도 않는다. 현상의 긍정을 통한 관념의 창출이 소설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를 비하하

거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소외의 추상적 행태를 소설 속 인물이라는 개물을 매개로 구체화함으로써 형식의 과정화는 완성된다. 『밝은 밤』에서 지연은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한 이혼으로 삶에 대한 좌절감을 겪지만 과연 그 고통의 실체와 근원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한다.

1) 나는 그와의 결혼으로 내가 지닌 문제와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부터 동시에 도망치고자 했다. 나의 원가족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처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된 채로 미지근한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있었을까. 이혼 후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은 남편의 기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대한 나의 기만의 결과이기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니, 그 중 나를 더 아프게 한 건 나에게 대한 나의 기만이였다.(『밝은 밤』. 298-299쪽.)

2) 하지만 나는 다시 그 문제로부터 도망쳤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굴었다. 체념했다. 그가 집에 없을 때 울다가도 그의 전화가 걸려오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목소리가 왜 그래?’ 하고 그가 물으면 ‘응, 자다가 일어나서’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에게. 내 인생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알고 싶지 않아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둠은 거기에 있었다.(『밝은 밤』. 299쪽.)

인용문 1)에서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 대표되는 이념적 윤리는 개인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소외 양상으로 부각된다.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개인의 본질적 소외는 형성체로서의 목적물이라는 일반성을 내포한다. 자신에 대한 기만이 도피구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현존재로서 현실에 대한 순응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용문 2)는 주관의 의향이 배제된 추상적 형성물을 관념으로 녹여내면서 소설의 본류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거리 좁힘에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지연의 세계와의 교감에 실패한 이유를 나에게 대한 기만에서 찾음으로써 비난의 대상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신 ‘어둠’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소외 의식의 일면을 공론화 할 뿐이다. 자신을 웅크리면서 세계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낮추는 절제된 감성의 세계를 창출한다. 삶과 사회에 대해 몸을 낮춘 자세는 열림과 화해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나타난다. 웅크림의 방편으로서 웃음 또한 인물에 대한 사회적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타자와의 경험의 교합이다. 즉 형식으로서의 목적을 지양하고 최은영류의 소설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테두리에서 불완전한 성숙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던 말은 곧, ‘침묵은 나의 혈뺨은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1. 「한지와 영주」. 174쪽.)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함을 인지하는 순간 단절은 현실화한다. 침묵과 단절은 소외의 다른 이름이다. 영주는 한지가 등을 돌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침묵이 이끌어 낸 소외 의식의 결과이다. 여동생 레

아를 돌보아야 하는 한지는 레아가 가족에게 선물해 준 ‘침묵’을 체화시켰다. 영주와의 우정이 사랑으로 감정선이 옮겨가는 것을 감지한 한지는 그의 침묵을 영주에게까지 전이시킬 수가 없었다. 우정과 사랑의 경계에서 돌아난 소외는 결국 한지에게 학습된 침묵의 끈으로 연결된다. “영주…… 넌 참 단순하구나.” (1. 「한지와 영주」. 148쪽)라고 말하는 한지에게는, 그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감성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영주는 침묵의 의미, 그것이 단절을 잉태하고 있는 소외 의식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단절은 공감의 상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공감이란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감성의 영역으로서 삶의 본질로 접근하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최은영 소설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소외 의식이 감성의 결을 따라 어떻게 작가 정신으로 장착하게 되는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된다.

내면 의식이 선택의 문제라는 감정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 장막에 가려졌던 캐릭터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을 두고 당사자인 아빠의 태도에 대한 웅웁 아줌마의 감성은,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 (1. 「썩썩오, 썩썩오」. 82쪽)으로 재현된다. 이해와 설득의 경계를 넘어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선택은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는다.’ (82쪽) 어떤 합리적인 상황이나 논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받지 못할 때, 그것은 소외와 공감의 경계를 넘어선 감성의 문제가 된다.

소외는 때때로 선택의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유보를 강제하는 물리력의 존재, 그 속에서 선택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소외와 공감의 경계에서 생존의 가치를 음미하는 이 지점에서 최은영의 손길은 멈칫거린다. 소외의 확장 적용이 문학의 범위를 넘는, 혹시 철학의 현학적 논리에 묻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은영 소외의 한계효용은 계산적으로 읽힌다. 소외에 대한 애증은 완곡하고 조심스럽다. ‘세상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제 목숨을 몇 번이고 팔아서라도 사람을 살려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도리어 비웃었다.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108쪽.) 철퇴를 내린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아무도 엄마의 내상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109쪽)는 점이다.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소외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은영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의 수용이냐고 세상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그 목소리는 여리고 약하다.

5.

소외와 단절의 미학을 조심스럽게 표면화시키는 과정에서 최은영이 발견하는 본질은 공감의 사회화이다.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 여름」은 ‘낭만적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 정체성 찾기 이야기다. 이경과 수이의 사랑의 끝은 수이의 환경이나 새로운 연인인 은지의 출현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는 배려, 네 잘못은 없고 모두 나 때문이라는 위선, 단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 그것은 ‘자기

상처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일이 가장 역겹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런 가능성을 차단했던’(56쪽) 수이의 눈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경을 상처 입힐 수 있는’(57쪽) 은지의 변덕과 동질적 감정이다. 이경이 은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수이와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가정 대해 ‘자신이 없었다’(59쪽)라는 고백, 최은영식 공감의 정조는 이경이 스스로 부순 소외 세계의 파편으로 향하는 시선 속에 있다.

동성애자의 또 다른 이야기인 「고백」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미주, 주나, 진희는 서로에게 공감을 느끼며 친밀하게 지내지만 어딘가에 숨어있는 완숙되지 못한 불신의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다. 그 원인을 ‘셋이라는 숫자 안에서 모두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2. 「고백」. 193쪽.)고 구조적인 상황으로 돌렸지만 본질은 성숙되지 못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 의식이다. 레즈비언에 대한 ‘어딘가 은밀하고 야릇하며 더럽고 무섭고 우스운 사람’(2. 「그 여름」. 14쪽.)이라는 이경의 생각은 열여덟 번째 생일날 커밍아웃을 하는 진희를 대한 두 친구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말 역겹다”(2. 「고백」. 198쪽.)라는 주나와, “근데 진희 너 그 말 정말이야?”(198쪽)라며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미주의 시선은 ‘사랑에 대한 불공평한 감정’(2. 「모래로 지은 집」. 181쪽.)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싶은 작가의 계산이 내포되어 있다. ‘언제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181쪽)는 작가의 목소리는 ‘늘 생각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사랑인 건 아니다.’(141쪽)라는 공감의 논리를 끌어낸다.

최은영에게 공감의 모티프가 과거의 회상이나 기억으로 소환될 때 그 양상은 고통이라는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공감 그 자체보다도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고뇌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밝은 밤』에서 지연은 할머니의 회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새비 아저씨다. 지연은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얼굴도 모르는 새비 아저씨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대한 나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거부 의식으로서의 감성이 시간이라는 매개물을 상정함으로써 내 존재에 대한 절대성의 확보와 이와 동시에 또 공감의 사회화를 획득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성이 나타난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억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답은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원하든 그러지 않든 그것이 인간의 최종 결말이기도 했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82)

할머니의 회상을 통해 그녀의 삶을 받아들이고, 할머니와 엄마, 엄마와 나의 소원한 관계를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최은영식 감성 표현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외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인간의 존

재에 대한 심각한 고뇌의 방편으로 활용된다.

공감 의식은 두 번째 소설집인 『내게 무해한 사람』의 표제가 도출된 내용과 아귀가 들어맞는다. ‘미주의 행복은 진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미주는 그 착각의 크기만큼 행복할 수 있었다.’ (196쪽)는 내면의 목소리는 소외의 근원이 자신의 타자화로 비롯되고 있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준다. 소외는 감성의 공감을 염두에 둔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이가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진 뒤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는 꿈을 꾸면서, “나는 내가 무서웠어.” (2. 「그 여름」, 15쪽)라고 이경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소외로부터의 존재 찾기가 감성 공감의 본질이 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최은영의 감성은 형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의식의 전도를 통해 인간 본성을 탐구한다. 그 보편적 가치를 정의하고자 하는 작가적 진단 행위는 윤리의 이념성에 대한 집요한 천착으로 형상화된다. 개별적이고 일부이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이성적이 아닌 정서적 감각으로 처리되면서, 그것은 곧 인간의 내면 목소리를 의식하는 작가의 문학적 자의식의 발현으로 정위된다. 최은영 소설에서 감성은 일상화된 감각의 틀을 깨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방법은 관습과 제도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 고착된 인식을 낫설게 하기로 파편화시키는 것이다. ‘왜 이해해야 하는 쪽은 늘 정해져 있을까’ (2. 「모래로 지은 집」, 120쪽.)라고 자문하는 ‘공무’의 글은 ‘나비’의 안에서 구르면서 마음에 상처를 낸다. 천리안 동호회에 올린 고등학생 공무의 글은 나이 어린 나비가 자신을 단지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대하는 부모를 이해하려는 안간힘의 표상이다. 아이가 어른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택한 방법’ (121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시대의 이념과 배치된다. 더구나 그것이 어른이 된 나비의 회상을 통해 완고한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켜기가 되고 있다.

최은영의 소설에서 일반화된 도덕적 규범은 특수한 소설적 윤리로, 서사를 해석하는 사고체계의 질서는 문학적 감성을 내면에 체화시키는 미적 개념으로 대체된다. 서정적인 서사는 얇고 간결하지만 감성은 깊고, 규범적 인물의 행동은 도식적이지만 개별적 윤리는 아프게 본질을 건드린다. 개인의 ‘외로움과 고독’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파열음의 다른 모습이다. 나의 행복이 오히려 소외가 되고 나의 감정이 집단의 목적 아래 도구화 되고 있는 현실 생활이 경계의 날 위에서 위태롭게 영위된다. 소외와 공감은 최은영 소설에서 중요한 맥락을 이루면서 작가 고유의 감성의 색깔을 창조한다.

최은영의 감성은 중층성을 근간으로 자의식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이다. 웃음은 해학이나 위트라는 관념적 요소가 배제되어 냉소적이다. 주관적이면서 무의식적인 냉소 뒤에 따라붙는 것은 단절인데 이 또한 공감의 사회적 연대를 겨냥하고 있다. 최은영이 인식하는 냉소와 단절은 ‘메타포가 강하여 세련되지 못하다’는 자의식의 지향성에 있음을 포착함으로써 감성의 은유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다. 단절은 공감과의 연대를 통하여 중층적 감성의 효용가치를 창출하고 메타포로서의 상징을 범주화한다. 인물은 주체적 개체로서의 대표성을 추구하지만 시대와 배경을 등에 업은 구매자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 존재와 부존재 사이에서 재현된 감성의

흔적만 남길 뿐 자의적인 판단을 거부한다. 최은영 소설에서 추출되는 웃음의 비결정론과 무의식의 냉소, 그 경계에 끈끈하게 밀착되어 있는 감성의 불확정성은 작가의 문학 행위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독자에게 묻지 않고 작가 스스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천착의 모습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는 작가의 고백은 그래서 서늘하다.

최은영 소설에서 형상화된 주관성으로 표현되는 감성은 소설의 주체가 당위와 존재의 양면성을 갖는 회의론적 의향을 담지한 개인으로부터 발현된다. 현실적인 삶 자체가 지닌 이념적 윤리 의식의 유효성에 대한 문학적 성찰을 위한 형성물이고, 가시적 거리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통제 가능한 관념이기도 하다. 감성의 요소들은 질료로서 주변적이지만 그것들이 변주되는 구조 속에서 형식으로 완성된다. 형식의 변주는 과정으로서의 감성으로 승화됨으로써 최은영 소설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서정의 구현으로 형상화된다. <끝>

제14회 목포문학상

회곡 당선작품

미얄

허 진 원

작가의 말

‘미얄’은 봉산탈춤 7과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령 탈춤으로는 영감 할미춤 과장이지요. 미얄은 언제나 영감을 찾아 헤매지만 영감은 미얄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짧은 첩 털머리집과 이제 배를 맞췄으니 미얄을 어디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행복이 쉬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역할입니다. 털머리집과 한 판 버르던 미얄을 결국 영감은 죽여버리죠. 수많은 제의적 해석과 새로운 민중사로 거듭나는 비평에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연민의 시선이 남아 이렇게 ‘미얄’을 제 시선으로 어루만집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겠지만 쓸쓸했을 그 영혼, 한없이 아름다운 그 마음에 다가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만 ‘미얄’의 ‘살煞’을 풀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딘 물결처럼 흐르지만 늘 예리한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인간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지요. 어느 한 가족에게 벌어진 건딜 수 없는 비극을 비가悲歌로 연주할 수 있기를!

줄거리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 ‘명심’의 시골집이 신새벽부터 분주하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명심에게 이 날 하루는 지극히 특별했기 때문이다. 아주 길고도 험한 여정의 마지막 날처럼. 명심은 문득 한 때 마을 길놀이며 탈놀이 때 팽과리를 잡고 신명나게 연행을 즐기던 바깥양반과 그의 아들 딸들이 한데 어우러졌던 ‘미알 과장’을 떠올린다.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신새벽까지 놀다 이제서야 귀가하는 셋째 ‘경자’의 헛바람부터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셔 밤새 뒤치락거렸던 큰 놈 ‘만식’의 뒷모습이야말로 아침을 여는 일상이 된지 오래. 이는 델 일도 아니다. 2년 간 거의 연락마져 두절됐던 둘째 ‘만혁’ 역시 방문한다. 둘째는 금속 노조 관련 강성 시위에 참여했다가 수배령이 떨어져 지방 이곳저곳을 전전궁궁 도피 중이었는데 최근 무혐의로 수배 해제됐다는 소식. 그 때 떠돌던 가락으로 어쩐지 쉬이 자리 잡지 못한 채 이제껏 산으로 들로 떠돌고 있던 듯. 무엇보다 만혁은 2년 전 꼭 이 날 밤, ‘만식’과 술을 나누다 형제고 뭐고 인연을 끊기로 악담을 주고받은 뒤 집을 뛰쳐나간바 있다. 명심과 경자에게 둘째 오빠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울 수 있었던 이유다.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은 비극의 서막은 막내 ‘우찬’의 방문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오늘의 이 제삿날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여기는 우찬. 그는 그간 모든 소식마저 피한 채 홀로 살아왔다. 우찬은 봉설이 밖에서 낚아 데려온 늑둥이이기도 하다. 안무가였던 우찬의 친모가 그나마 우찬을 키우다 일찍 세상을 떠나자, ‘명심’이 우찬을 받아들여 키웠던 것. 한 때는 모두 우애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으리라.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진.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우찬의 첫 연출작을 보러 향하던 길에 만식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던 것. 봉설을 비롯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던 사고다. 살아남은 자들의 일상은 끔찍했다. 현실을 비관해 술을 이기지 못하는 형을 보고 악담을 퍼붓던 동생이나 홀로 서울 어딘가에서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을 애증의 동생을 보는 경자의 말은 폐악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매듭으로 꼬인 식구들. 어머니 ‘명심’의 지혜로 이들 모두가 술자리에서 마주한다. 영문도 모른 채 경자를 따라 나섰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은광의 재치로 폐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일단락되는 듯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지만 상황은 점입가경. 결국 서로의 속내를 건네며 이 무거운 분위기가 사라질 무렵. 마치 ‘방 안에서 기뻐할 때 슬픔은 대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어느새 ‘명심’, 그간 무거웠던 짐을 훌훌 털기라도 하려는 듯, 홀로 춤사위를 추는 것 마냥, ‘미알’의 모습으로 이들 곁을 떠난다.

미얌

“한없는 사랑을 담아!”

겨울.

사건은 ‘명심’의 집 마당에서 일어난다.

등장 인물

명심

만식

만혁

경자

우찬

은광

봉설

주민1

주민2

주민3

주민4

주민 5 (무용수)

주민 6 (무용수)

주민 7 (무용수)

주민 8 (무용수)

초롱을 든 무희

外.

1막

1장. 만혁

블랙.
자욱한 안개.
새벽녘.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우는 소리.
등산복 차림의 ‘만식’ .
등산 스틱을 내려놓는다.
핸드폰 진동음.
서둘러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만혁 …… (들릴 듯 말 듯) 이 풍경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을 결국 보게 되네, 내 인생도 참. ……느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진짜 진짜 진짜 신비한 거야. 하얀 구름 그런 거 백날 떠올려 봐야 소용없어. 여기 안개는 살짝 색이 묻어 나온다니까. 연두, 그래 연두 때깔이 묻으면 봄이고, 이렇게 빨강게 살짝 묻어 나오면 가을.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런 거 나 안 키우는 거 잘 알잖아, 왜 이래. 이래봐도 나 지만혁. 물불 안 가리는 거 잘 알면서. 멧돼지도 사람보고 달려 들어. 나 보면 ‘형님’ 이렇게 인사만 하고 다리야 나 살려라, 줄행랑치기 바쁘서, 이 사람아.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끼 있잖아, 새끼 멧돼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원래가. 새끼 근처엔 꼭 어미 멧돼지가 있는 거거든. 그게 지 새끼 살린다고 들이 박는 거니까. 그 땐 뭐 요단강 건너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것도 다 팔자 아니겠어. ……정말이지 징글징글하게 무서운 건 인간인 거잖아, 인간, 인간. 사람 새끼들이 무서운 거지, 뭐가 무서워. 썩을 놈들이 문젠거야, 늘. ……물론 자긴 아니지, ‘자기야’ 는 빼고 우리 인간이야 말로 정말 짜증나고, 아무튼 일편단심 못 돼 쳐먹은 건 죄다 저지르고야 마는 종자들이잖아. 반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이거 하나네, 참 나. ……맞아. 이제 날 좀 추워졌어, 확실히. ……뭐긴 뭐야. 당신이 저번에 사 준 그거 등산복 입었지. 따뜻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너무 껴입어서 땀 나. 걱정하지 마셔. 그냥 얼굴만 선 선하다는 거지, 숨기는. ……걱정 붙들어 매셔. 그냥 눈 좀 더 붙이세요. ……무슨 소리, 인생 짧아. 좋으면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며 살자, 우리. ……물론 당신 말이 맞아. 다 맞지. 맞는 건 아는데. 우리 가족은 진짜 좀 달라. 그냥 안 맞아. 다 안 맞아, 다, 다. 진짜 변호사 판사 불러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타부타 공중 받아가며 따져봐야 한다니까. 이거 하난 확실히 알지, 내가. 한 번 어그러지지. 그럼 그냥 빠그러지고 마는 게 가족이야. ……티도 안 나고,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해 준 그 말이 요샌 딱 정답인 거 같아. 버릴 수만 있다면 쓰레기봉투에 콕콕 묶어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며. ……왓 더 뺑뺑이, 미국 놈, 양키 고 홈. 연극 대본 쓴 그 낭만 이름이 뭐였더라. 맞다. 오닐, 유진 오닐. 버릴 수 있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콕콕 싸서 버리고 싶은 거, 그거 가족 맞다니깐. 우리 식군 다 그렇게 생각할 걸. 그러니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만 인사 한 번 드려. 바다처럼 한없이 깊고, 강철처럼 무지막지하게 힘 쌰 양반이셔. 너그러우시니까 우리 응원해주시겠지, 뭘 벌써부터 그런 걸 신경 써. ……신새벽부터 무슨 일이라. ……알았어. 일단 빨리 남편 전화부터 받아.

끊을게.

만식, 전화를 끊고는, 물끄러미 관객석을 바라본다.
산새를 바라보듯, 아직 남아 있을 자신의 험난한 인생 고갯길을 바라보듯.
잠시.
만식, 접은 스틱을 야무지게 배낭에 꽂은 채, 퇴장.
희미해짐.
암전.

2장.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
곤충들의 울음소리 잠시 이어지다가 밝아진다.
‘명심’의 본채와 집 마당.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슬레이트 지붕이 눈에 띄는 가옥이다.
파란 색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단정히 발라진 시멘트 벽 중앙에는
미단이문이 놓여있다.
이 문을 열면 좌우로 툇마루가 이어진다.
시멘트 벽이건만 미단이 문 뒤로는 꼭 한옥처럼
툇마루를 두었던 셈.
툇마루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면서 안방과 건넌방, 부엌, 별채 등
집안 이곳저곳의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본채 가까이 야외 평상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왼 편으로 피크닉 테이블이 놓여 있다.
피크닉 테이블 옆으로는 텃밭이,
오른 편에는 세탁실과, 비좁은 골목처럼 그 사이길 건너에 별채가 자리한다.
사이길 뒷부분으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철문이 나 있다.
전체적으로 본채 뒤로는 야트막한 산의 형세일 테고,
아주 완전한 독립가옥이랄 순 없지만,
마을 어귀에서 후미진 곳에 위치한다.
실개천 위로 낮은 교각을 건너와야 들어서는 마을이라, 인적이 드문 편.
‘명심’의 마당 너머 논두렁과 산새가 멀리까지 보이는데,
바로 앞으로는 실개천이 흘러 식구들은 괜히 이 앞 의자에 앉곤 한다.
버려진 듯 짝이 맞지 않는 어설픈 의자 둘이 나란하다.
역시 콘크리트 재질의 마당.

객석에 해당하는 본채와 마당 앞 등이 주 무대인 셈.
단단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금이 가 있다.
명심, 텃밭에서 딴 깎잎이며 상추를 푸짐하게 바구니에 채겨 부엌으로 들어간다.
어느새 조끼를 입은 채, 마당으로 나와 떨어진 낙엽을 치운다.
잠시 텃마루에 앉아 허리를 편다.

사이.

최대한 밝은 불빛.
팽과리 소리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길놀이, 본놀이를 모두 마치고
아쉬웠던지 탈놀이꾼 몇이 사물을 들고 마을을 돌다,
‘명심’의 철문으로 들어선다.
철청거리는 소리 없이, 몹시 부드럽게 문이 열린다. 느리고 비현실적으로
영감 탈을 쓴 봉설과 미얄 탈을 뒤집어 쓴 경자,
장구를 짚어진 만식, 북채를 든 만혁이 뒤탈다. 모두 10년 전의 모습으로
마을 주민 몇이 이들을 따라 마당에 따라 들어와 함께 흥을 즐기다,
구석으로 퍼져 연행을 기다린다.

명심 승 봐. 그만 해.
봉설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이 봐, 할미. 내 누군지 아나?
명심 (웃으며 텃마루에 걸터앉으면)

어느새 만식과 만혁 마당 한켠 자리한다.
잠시 신명나게 사물을 두드리다가,

봉설 (중모리)
 들마당의 차일 치고
 동네 모화 자리 포진
 사면 한패 어더 오니
 화랑이 줄모지라.
 북 치고 피리 부니
 여민락이 제법이라.
 이현풍 김첨지
 잔말 끝해 취도하고
 최권농 강약정은
 체달이 춤을 춘다.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중에서>

북소리, 장구 소리.

봉설 낙양 동천 이화정
 흑운이 만천 천불전

덩 덩따 덩기덕 일쭉
덩 덩따 덩기덕 일쭉
〈‘봉산탈춤’ 불림 중에서〉

봉설 정약용이(의) 아들 정학유가 지었다는
 ‘농가월령가’ 에 내,
 가락 한 번 붙여 봤대!
 휘어이 휘어이,
 내 아까부터 울리는 전화 좀 받고 올 터이니,
 싸우지들 말고 니들끼리 어울려 봐라.
 (주민들을 향해, 일상의 목소리로) 원래는 이 탈들을 죄다 태우는 게 끝인 거
 다들 잘 아시죠 액을 떼는 건데,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집에 가져 와 두고두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태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주민2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 정말.
주민3 사물이라도 좀 더, 네, 네, 팽과리!
주민4 매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경자 아부진 잘 하세요
 농사 짓는 분 아닌 거 같애, 아주.
주민2 그러게, 능청스럽지, 그치. 애들은 또 어찌면 저렇게 잘 키웠대.

봉설, ‘명심’ 옆에 다가가 앉으며, 탈을 벗는다.
명심, 영감이 탈 벗는 걸 거든다. 땀범벅.
봉설, ‘우찬’ 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주민들과 섞여 있던 우찬, 영감 옆으로 다가가면,
봉설, 우찬에게 ‘탈’ 을 건넨다.
마당 한 가운데, 미얄(미얄 할미의 탈을 쓴 경자)이 등장한다.
영덩이를 뒤로 뺀 뒤, 아주 볼썽 사납게 영덩이를 흔들며 장단을 맞춘다.

미얄 (마을 주민에게 다가가) 여부시오, 우리 영감 못 보았오?
주민1 갔어, 저기. 전화 받는다고 (손가락으로 영감을 가리키면)
미얄 (고개 가우똥)

미얄, 악사 앞으로 다가간다.
역시 요란하고 방정맞은 춤사위 한 판 더 이어지고,
한 참을 그렇게 사물에 몸을 맡겼다가,
미얄, 숨이 차는지 이제서야 악사에게 말을 건넨다.

미얄 여부시오, 우리 영감 못 보았오?

명심 (함박 웃음 지으며) 아이구, 저 년.

미얄 (명심에게 다가가)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덜머리집이, 참 이렇게, 잡수셨네, 좀.
……거, 영감 취향도 참.

만혁 당신 영감이 어떻게 생겼으니

미얄 우리 영감이 훌륭하고 깨끗하고
이마가 투옥 터지고 사모꼴 나고
점잔허고 양반답고
말 소리도 알곰살곰하오
〈강령탈춤 영감 할미춤 과장 중에서〉

만혁 방금 그런 양반 저기 뒷마루로 간 것 같으니,

미얄 (창조로) 영감! 영감!

만혁 짧아, 짧아도 너어무 짧아!

미얄 여어어영 가아아암!

만혁 길어, 길어도 너어무 길어!

미얄 (목소리 깔며) 길면 긴 거고, 짧으면 짧은 거지, 지금 뭐시여, 시비 거는 거시여, 뭐여! 그래서 난 ‘오빠야’가 언제든 싫은 것이여!

만식, 뒷마루를 향해 손짓하면, 어느새 ‘우찬’ 탈을 뒤집어 쓴 채, 평상 앞으로 나선다.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다. 우하하고 격이 넘친다. 부채를 펼치며 ‘굽신’!

미얄, 평상 주위를 돌다가 ‘명심’ 옆으로 가 앉아 탈을 올려, 땀을 닦는다.

우찬 휘어이, 휘어이.

그냥 막 다 건너뛰는구나. 이제 나도 다 잊어버렸으니,
자, 그렇다면,
내가 집을 나올 때 삼존당이며 돈 한 돈 팔 뿐이며
자식 삼형제를 다 살게 마련해 주고
혈혈단신 나온 나를 왜 추접게 이리고 쫓아다니고
〈강령탈춤 ‘할미 과장’ 중에서〉

주민1 자가 가여?

주민2 (주민 1의 옆구리를 찌르면)

주민1 대학에서 전공까지 한다더니 다르긴 다르네, 허 참.

주민3 들어, 좀.

미알, 탈을 벗으면 ‘경자’ 다. 아주 땀범벅.

우찬, 역시 하던 동작 멈추면,

경자 저기요 숨차서 이제 못해. 올 한가위 잘들 노셨죠?

애들도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숙제 하자. 내년 단오 때나 한 번 더 놀던지요.

주민3 좀 더 하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고만.

명심, 경자의 가면을 아주 벗기며 주민들에게 눈인사 건넨다.

만식과 만혁, 장구 몇 번 가락지게 맞추더니,

일어서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 건넨다.

마을 주민들, 아쉬워하며 문 밖으로 나선다.

깃드는 정적.

3장. 경자

새벽녘.

홀로 남은 ‘명심’.

뒷마루에 앉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소쿠리에 놓인 마늘을 까기 시작한다.

별이 살짝 좀 더 밝아지는가 싶더니,

전날 과음에 시달리던 큰 아들 ‘만식’ 이 별채에서 나온다.

눈 비비며 ‘명심’ 을 보고선, 고개 숙여 대충 인사를 하고선,

철문 옆 부엌으로 들어간다.

금새 물 주전자를 들고 다시 별채로 들어간다.

머리끝이 아주 산발.

명심, 말없이 이런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

다시 마늘을 깐다.

마늘 양이 대야로 한 가득이다.

철컹철컹, 살살 연다는 게 철문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열린다.

경자가 넌름 모습을 비춘다.

핸드백에 구두, 원피스

화장이 짙진 않지만, 어딘지 꿈을 꾸듯 행복한 표정이다.

경자,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엄마 ‘명심’ 을 보고선,

경자 깜짝이야!

명심 …….

경자 엄마! 문 좀 고치자.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리 이 동네에서 제일 후진 집이고, 동 떨어져 있다고 해도,
신새벽부터 이진 정말 민폐라니까 민폐!

명심 …….

경자 엄마! 내 말 듣고는 있슈?

명심 ……그래, 고치자.

경자 (고개 가우뚱)

명심 (얼굴 들어 딸의 얼굴을 뻗히 바라보다가) 잘 거여?

경자 엄마! 왜 화 안 내?

명심 혼날 짓 하고 온 것이여?

경자 ……그거야 물론 아니지.

명심 그럼 됐지, 뭘.

경자 여보세요, 오마니. 내 나이도 이제 쉰 하나유. 내가 이 나이에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를 하
다 이제 들어 왔겠수, 야간 당직을 쉴겠수.
아니, 딸이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으면 걱정 비슷한 걸 해 줘야하는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엄마, 나 너무 방치하시는 거 같애.

명심 ……그래. 들어왔으니 걱정 났다. 신소리 고만하구, 자, 어여.

경자 엄마 참. 뭘 그렇게 자래. 도대체 내가 밤새 뭘 했다고, 진짜!

명심 (다시 얼굴 들어 딸의 얼굴을 뻗히 바라보면)

경자, 평상에 털썩 주저앉는다.

경자 그치, 혼낼 거지? 이제야. 엄마 같네. 눈초리가 막 막 퍼붓기 일보 직전이야, 아주.

명심 ……경자야.

경자 ……네. 오마니.

명심 동네 사람 홍보는 거 있잖어.

경자 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뭘.
엄마, 해! 해!
진짜 밥 먹다가 퍼 부으면 밥 알 막 곤두서거든.

명심 나도 말 좀 하자, 이년아.

경자 엄마,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이랑 술 마셨는데,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거야. 좀 들어가더라고, 어젠.
믿지? 엄마니까. 나 지금까지 술 마시다 왔어. 요샌 이런 게 유행이야, 엄마. 동 틀 때까지
음주가무를 즐기는 거.

명심 ……여관비도 없다니, 그 놈의 새끼는.

경자 참 나. 엄마! 엄마! 나 아니거든.

은광씨랑 나 플라토닉이거든.

손도 안 잡아 봤거든.

은광씨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깐, 이럴 줄 알았어!

명심 손이 없대, 팔이 없대? 이젠 하다하다 손모가지도 없는 놈 만나러 댕기는 거여.
방귀 똥 놈이 성낸다고

경자 참. 그리고 동네 사람 몰라.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 빨간 대문 집, 그 이장 집 똥개가 알면 알지.

그 개새끼는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짖어. 진짜 미친 거 아냐?

명심 동네 사람 알아.

경자 진짜야.

명심 다들 알아.

사이.

경자 그게 뭐. 뭐가 어찌고 저찌세!

명심 ……데려다 주는 거여?

경자 오늘은 아니구.

명심 신사는 아닌가베.

경자 신사라니깐, 진짜. 그리고 좀…….

명심 ?

경자 (웃음 똥) ……뚝뚝해.

명심 배운 놈이여.

경자 대학교? 아니 뭐. 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안 갔다는데,

명심 (고개 들며) 안 갔다는데?

경자 시험 쳤으면 서울대감이라구.

명심 그 놈이 그렇게 씨부려?

경자 아무튼 서울대급 사위 얻는 거라구, 엄만 그러니까.

명심 ……고맙다.

경자 그렇게 ‘야지’ 만 놓지 말구, 진짜루.

명심 집은?

경자 진짜 엄매!

명심 이년아, 엄마 귀 안 잡셨어. 살살 말 해.

네 오빠도 진탕 마셔대더니 속 끓여. 더 자게 좀 뉘둬.

경자 오빠 박자를 좀 맞춰야지. 혼자 매일 달려, 진짜 짜증나게.

명심 오늘은 아무 말 마.

침묵.

명심 집?
 경자 아니, 뭘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질문을 노크도 없이 혹 들이대신대?
 명심 (까던 마늘 접시에 털어내며, 허리 한 번 펴며, 경자의 얼굴 뻘히 쳐다보면)
 경자 ……있겠지. 지금은 뭐, …… ‘방’ 하나. 근데 커. 운동장이야, 진짜.
 명심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마늘을 깐다)
 경자 참. 오마니. 아까 꺼내려던 말 뭐야?
 명심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상관 없다구.
 경자 ?
 명심 엄만 상관없어.
 경자 뭐가?
 명심 다.
 경자 우리 엄만 진짜 깨어 있으시다니. 요즘 보면 아주 미국 엄마 같어. 엄마도 ‘위기의 주부들’ 그런 거 보시나? 전원일기도 잘 안 보시던 분이/
 명심 /그러니 오밤중에 휘청거리면서 들어오든,
 새벽에 철문 부수면서 들어오든 깨금발로 다닐 것 없다구 이년아.
 경자 나 깨금발로 안 들어왔는데.
 명심 (경자의 얼굴 뻘히 쳐다보면)
 경자 (순간 찡끔)
 명심 지들이 밥을 멕여 줘. 떡을 멕여 줘. 당당하게 살라구.
 남 눈치 살피다가 네 인생 개밥그릇 되는 거 한 순간이여.
 경자 (마늘 몇 개를 집어 든다)
 명심 고개 쳐들고 살라구, 이년아.

경자, 느닷없는 슬픔이 몰려온다.
 애써 눈물을 참는다.
 잠시.

경자 알어. 괜히 아침부터 엄만.
 명심 ……너.
 경자 아, 왜 또
 명심 잘 못 한 거 읊어.

정적.

경자 …….
 명심 너 잘 못한 거 하나 없다구, 이년아. 왜 맨날 빙신 같이 이 눈치 저 눈치 봐. 느그들은 그런 것도 유행이냐.

경자 알았다니깐. 신새벽부터 진짜 왜 이러신대, 또
명심 엄마 항상 네 뒤에 있다구, 이것야. 저기 오빠도 있구. 또 작은 놈도…….
경자 (객석을 뺀히 바라본다)

다시, 정적이 깃든다.
경자, 무릎을 웅크린 채, 고개를 파묻는다.
어깨를 들쭉이며, 소리죽여 운다.

경자 ……아이씨. 벌써 또 ‘오늘’ 이 돌아왔네. 태양도 참 졸라게 지구를 돌리는 거 같어. 이거
갑질 아녀!
명심 욕은 하지 말구.
경자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얼굴 들면)
명심 으이구, 썩을 년.
경자 그냥, 좋아서, 좋아서.
난 올 엄마가 왜 이렇게 이쁘지.
명심 (경자의 얼굴을 뺀히 보다가) ……경자야.
경자 네, 어머님.
명심 ……마늘 좀 까.
경자 어머님.
명심 ?
경자 이게 ‘쫄’ 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심 자.
경자 (명심의 얼굴을 뺀히 바라본다)

별채에서 만식이 빈 주전자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하다 말고,

경자 빠마했어? 물이라도 좀 문혀. 모자로 누르든지, 줌.
만식 아냐. 별로 안 마셨어. 차트 좀 보느라고 어디 나가니?

핸드폰 벨 소리.
만식, 부엌으로 들어간다.
경자, 핸드백에서 폰을 꺼내 받는다.

경자 (미닫이문을 열며 서둘러 뒷마루에 올라서려다) 잘 들어왔지, 뭘 또 전화야.

사이.

명심 (전화 받던 경자를 살핀다)

경자 (소리친다. 아주 찌렁찌렁) !!!, 진짜, 진짜! ……세상에, 그게 이 년도 더 지나서 할 소리냐?

……나 지금 들어왔거든. 아니, 일어났거든.

명심 (까던 마늘을 내려 둔 채, 허리 펴며, 하던 일 멈추면)

경자 ……특으로, 아니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그대로야, 거기 하나로 마트 앞에서 타면 돼. 언제 인간 될래.

명심 (일어서서 경자에게 다가간다)

경자 10분 먼저 서 있어야지, 여전해. 버스 그냥 지나치니까 알아서 하셔. ……됐다니까, 해장국은 무슨……. 집에 와서 드셔. ……엄마 바뀌?

경자, 전화 끊으면,

명심 (경자에게 톡짓)

경자 ……오빠 읍내에 와 있다네.

명심 (물끄러미 경자를 바라보면)

경자 꿀통, 작은 오빠.

명심 마당 쓸어라.

경자 안 올지도 몰라. 수육도 먹고 쌍화차도 마시다가 나그네처럼 그냥 다시 떠날 거래. 물론 잠깐 들릴 수도 있고

명심, 무대 앞이자 실개천 앞으로 다가와 소쿠리에 담긴 생쌀을 조금씩 뿌려 대는데,

경자 (명심 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으며) 자래매?(자라며?)

명심 쓸고 자, 어여.

(부엌으로 걷는다)

만식, 부엌에서 꿀물을 탄 대접을 들고 나온다. 두 잔.

만식 (명심의 표정을 읽다가, 경자에게 톡짓하면)

경자 뭐?

만식 ?

경자 몰라.

만식 이거 마시라구.

경자 진짜 큰 일 났네.

만식 왜 또 너라도 좀 엄마 마음 편하게 해 드려.

경자 …….

만식 야.

경자 ……아냐. 아무튼 지금 꿀 물 마시고

실개천에 떠다니는 쓰레기 건지고 그럴 시절이 아니라니깐.
오빠, 그거 여기 아니 그냥 저기 내려 봐. 좀 있다 내가 마실게.
땡큐. 나 전화할 데가 있어서, 급히 줘.

만식, 상겹다는 듯, 고개만 대충 끄덕거린 뒤, 대접을 평상 위에 올려놓는다.
별채로 들어서려다, 문을 연 채, 툇마루에 걸터앉는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만식이 하늘을 한 번 쳐다본다.
천둥 번개 소리.
최대한 밝은 불빛 / 빠른 압전.

4장. 우찬

밝은 불빛.
활짝 열린 미닫이 문.
통로에 가까운 길다란 툇마루에 걸터앉은 채,
식사를 이제 막 마친 명심, 만식, 경자.

만식 저 때문에 늦게 드실 필요 없어요.
명심 아들.
만식 줄일게.
명심 더 마시라구.
경자 (‘푹’ 하고 웃음을 참으려는데)
명심 (경자에게 눈치 주면)
경자 컨셉을 그렇게 확 바꾸니까,
만식 넌 가만히 있어, 줘.
경자 ‘깨!’ 깨, 엄마 ‘쭈’ .
만식 말버릇이 임마 그게 뭐야, 엄마한테.
경자 열려 있다구, 우리 엄마야 말로, 깨셨다구, 깨.
만식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명심 아니야. 그냥 더 마시라구.
만식 (머리를 굽적거리며) 줄일게.
명심 아니야, 아들. 어젠 나도 술을 좀 배워보고 싶더라니.
만식
경자 내가, 내가. 엄마, 내가. 그건 내가 도사야. 내가 갈켜 줄게.
 폭탄주는 진짜 내가 잘 말야. 살다살다 이제 우리 엄마랑 술을 다 마시게 생겼네, 앗싸.

명심 가만히 좀 있어 봐.
경자 혈, 페미니즘 이런 장르까지는 아직 못 깨셨나 보시네.
명심 ……취할 수 있으론 취한 채로 지내도 좋다구, 내 말은.
만식 ……알아.

사이.

만식 읍내에 좀 다녀올게.
명심 (턱짓하면)
만식 머리도 좀 자르고, ……절에도 좀.
 (경자에게) 넌 뭐 필요한 거 없어? 같이 나갈래?

만식, 일어선다.

경자 오늘 장 들어서는 날인가? ……문자할게. 다녀오셔.
명심 송충 마시고 가.
만식 속 풀렸어요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냥 두세요, 줘.
 금방 다녀올게.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다녀오시죠?
명심 (말없이 고개만 가로짓는다)
경자 버스 놓쳐. 다녀오려면 어여 다녀 와.

만식, 찬결음으로 철문을 열고 나간다.

경자, 뒤따라가서 철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명심, 그냥 열어 두라고 손짓한다.

경자 엄마 나 전화한다.
명심 또 누구한테.
경자 떡 본 김에 제사……. 아니지, 콧빠기도 안 비추는 둘째 오빠가 납신다는 데,
명심 손모가지 부르려고
경자 손모가지가 뭐야 엄만 참. 그냥 서울대, 서울대로 통일하자. 난 그렇게 불러. 그리고 은광씨
 인사 시키면 그걸로 딱 한 번인 거야. 그리고 나 이부자리 하나 챙기고 나갈 거니까 그렇
 게 알기만 아셔. 진짜 은광씨랑 난 말이야, 엄마. 베개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우리 진지해.
 (꿈을 꾸듯) 좀 앞서는 게 있긴 한데, 웃겨, 깨! 은광씨야말로 깨, 진짜라니까. 아무튼 엄청
 똑똑해. 모르는 게 없다니깐, 안 가본 데가 없구. ……아이, 진짜 오빠들 술 마실 때 부르면
 떡시루 얹어지는 거 시간문제인 건데.
명심 오늘은 아니지 않아? 날이 좀 그렇지 않아?
경자 둘째 오빠. 점점 전화도 잘 안 터져, 어디 사는 줄도 몰라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두
 물리 온 김에 내 냉장고든 텔레비전이든 오늘 약속 받아놔야 혼선이 안 생기는 거니깐. 야

무지게 챙겨야지, 이번엔.

명심 엄마 안 보니까, 저거 그냥 가서 둘이 틀어.

경자 내가 와서 봐야지, 됐구. 아무튼 둘째 오빠 진짜 아주 어긋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고 나발이고 없어. 꼬인 걸로 치자면, 파배기도 그냥 파배기가 아니라 아주 꿀파배기라니깐.

명심 (순간 무서운 눈빛)

경자 아이구, 이 놈의 헛바닥이 오늘은 조금 더 빠르고 멀리 멀리 나가셨나 보네. 휘어이 휘어이. 그런데 그렇잖수. 둘째 오빠가 지금 주거지만 불분명한 게 아닌 거잖아. 그 뭐야. 엄마 나는 뭐야, 그거. 높은 거?

명심 레미콘 아니 포클레, 포클레인?

경자 그건 여기 바닥 파고 새로 까는 거구, 세멘(시멘트). ……맞다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그런데 올라가서 며칠씩 머리띠 두르고, 그러는 분들 뉴스에서 나올 때 ‘작은(작은)’ 오빠 나오는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린다니까, 난.

명심 갠 거기 못 올라가. 염려 붙들어 매.

경자 벌써 몇 년째야. 느닷없이 열혈투사로 돌변한 게, 증말 미치겠다니까, 아주.

명심 그럴 위인 못 돼. 고소인가 뭔가 그런 공포증 있어.

경자 엄매 엄매

명심 이년아 엄마 아직 귀 안 샀어. 살살 말해.

경자 고소공포증 없어서 그 분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명심 아무튼. 그냥 휘청휘청 떠도는 거여, 니 오빠.

……너랑 니 큰 오빠랑 똑같은 거여, 그냥 허수아비 새깁인겨.

애미 눈에 그게 안 보이잖나.

술방울 맞아 뒤진 건, 아니다, 니들 눈엔 내가 아무 것도 안보는 거 같지?

그런 거지? 그러니 맘에도 없는 말 좀 들먹이지 말고,

오늘 너라도 잘해. 한산대첩이 문제가 아니여. 오늘 육이오 또 터지는 거시여.

너라도 정신 챙기라고 이것아.

한 번만 더 세수대야 찌그러뜨렸다간 내 네 놈들 면상을 아주 확.

경자 ‘확’ 뭐.

명심 나두 성깔 있는 년이여, 두고 봐라.

니 아버지…….

경자 됐어, 엄마. 임재범 노래도 3절까지야. 무슨 또 대여섯 시간 늘어진 테이프 마냥 아버지 흥 보시겠다고, 이런 날, 아무튼 엄마 나, ……은광씨, 오늘 부를까?

명심 오늘은 아니여. 나가려면 그냥 곱게 나가. 너 안 붙잡어.

경자 누가 붙잡으래. 그래도 좀 떳떳한 군데가 있어야잖수. 우리집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재료 손질을 언제 저렇게 다 한 거야. 누가 먹는다고

명심 (경자의 얼굴을 뺨히 바라보며) ……내가.

경자 ?

명심 내가 다 쳐먹으려고 그런다, 왜?

경자 엄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침묵.

경자 엄만 말을 해도

명심, 경자 옆에 나란히 앉는다.

동상이몽.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른다.

명심 알어? 다?

경자 뭐가 또

명심 말했어?

경자 ……요즘 이혼이 무슨 흥이라고,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8년이나 된 게, 뭐가 어째서.

진짜 울 엄마 감 많이 떨어지셨네.

명심 그것 말구.

경자 ?

명심 오늘…….

경자 ……오늘, 아, 맞다, 오늘.

명심 얘기했어?

경자 (느닷없는 슬픔이 몰려오지만, 애써 참는다. 떨리는 입술)

명심 자. 어여 들어가서 눈 좀 붙여. 그리고 저것들 좀 다듬어. 저녁 때 할 일 많아.

경자 ……하면 되지, 뭘.

……오빠 낱을 잡아도 하필…….

철문 두드리는 소리.

경자 버스 놓쳤구나. 택시 부르면 될 걸, 오빠도 참.

철문 두드리는 소리.

경자 (일어서서 철문으로 다가간다)

우찬, 우두커니 선 채, 선물 보따리를 건넨다.

경자, 받지 않고 당황한다.

우찬 오랜 만이야, 누나.

경자 여, 여긴 무슨 일이야.

우찬 지나가는 길에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경자 여긴 그냥 종점도 아니고, 마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회전 코스잖아.
 무슨 지나가다 들러. 무슨 말이 그래
 우찬 이거.
 경자 이게 다 뭐야.

명심, 우찬과 경자에게 다가온다.
 우찬, 명심을 보고 무릎부터 꿇는다.

경자 미친 거 아내 무릎은 왜 꿇어! 쏘도 참 별스럽게 하네, 애개
 명심 (경자의 등짝을 후려치며) 들어가 있어!
 우찬 (고개 숙인 채 눈물을 흘린다)
 명심 (마주 앉아 우찬을 일으켜 세운다)
 경자 엄매!
 명심 (방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손짓)
 경자 엄매 엄매! 이진 아니야, 이진 아니에요!
 우찬 큰형님 버스 타실 때, 잠깐 인사드렸어요. 막 읍내 나가신다고
 명심 (말을 못 잇다가, 어깨를 부여잡고) 잘 왔다, 잘 왔어.
 경자 야, 인간의 얼굴 가족이 두껍다 두껍다 그래도 이진 아닌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왜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고는 있어?
 아주 남은 속까지 다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지, 네가.
 명심 경자야, 경자야.
 우찬 괜찮아요. 갈게요, 이제. 이것만 드리고 가려고…….
 진짜 지나가다 생각나서……. 갈게, 누나.
 명심 (단호하게) 방으로 들어가! 추워. 국 데울게.
 우찬 식사하고 왔어요.
 명심 어여.

경자, 우찬의 과일 바구니를 내동이친다.
 멈추는 명심과 우찬.

경자 미친 거 아내 바나나가 목구멍에 쳐 들어 가네!
 무슨 병문안이라도 온 거야, 뭐야!
 뭐 오늘 이 동네 잔치 열린데, 이 미친 새끼가! 개 썩할놈의 새끼가!

경자, 미닫이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들어간다.
 명심, 실개천 앞 의자에 우찬을 앉힌다.
 우찬 앉고, 명심도 옆에 앉는다.

우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우찬의 얼굴을 뻘히 보려고 해도,
우찬, 실개천에만 시선이 가 있다.
눈가에 핏빛이 가득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걸까.
우찬, 얼굴이 일그러진다.
우찬, 고개 숙여, 울려고 하면,
명심, 우찬의 얼굴을 들어
손등으로 우찬의 눈물을 닦아준다.
경자가 미닫이문을 열며 구두를 신은 채,
대문으로 후다닥 뛰어간다.
명심, 일어났다가 하는 수 없이 도로 앉는다.

명심 저거, 저거.

우찬 (일어서려다 엉거주춤) ……건, 건강하세요 갈게요.
(명함 건네며) 일 바꿨어요 이제 연락드릴게요 사는 데는 다음에 일러드릴게요 고시원 옮겼어요.

명심, 다시 우찬을 앉힌다.

명심 (명함 받아 읽으려고 거리를 둔다) 잘했다, 잘했어.

우찬 서울에서, 신도림동이라고, 변화가예요 아주 높은 빌딩 거기에서…….

명심 잘했다, 잘했어.

우찬 ……물건도 팔고 그래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개통도 해주고, 중고도 알아봐 주고

명심 ……너 좋아하는 거 하구 살아야 하는데.

우찬 좋아해요, 저. 이번에는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말수도 늘었대요, 다들. 아무래도 남들보다야 잘 못하긴 하지만.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다들.

명심 ……아직 혼자지.

우찬 네?

명심 ……데려 올거지. 생기문.

우찬 물론이죠. 제일 먼저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누굴 만나요 기대는 마세요.

명심 …….

우찬 그냥 저는 정말 지금이 편해요 저는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명심 어머님한테는 자주 가지.

우찬 ……버스 한 번만 갈아타면 납골당이 금방이에요 서울은 교통이 편하잖아요.
(고개 숙인다)
……미안해요.

명심 네가 뭐가 미안해.
 우찬
 명심 우찬아.
 우찬 네.
 명심 생각을.....
 우찬
 명심 생각 너무 하지 마. 생각 많이 하는 버릇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우찬 알아요.
 명심 잘왔다, 잘왔어.
 밥도 먹고 떡도 먹자.
 (순간 목이 메어) 왜 이제 왔어, 이것야.
 말 안 해서 그렇지, 형들도 너 많이 기다렸어. 경자랑.
 우찬 미안해요.
 명심 딱!
 우찬
 명심 일단 쉬어. 저 화상들 오늘도 한바탕 퍼 마실 작정이니.
 너 온 거 알면, 술 더 받아놔야 쓰겠다.
 우찬 저는 술 끊었어요, 이제. 좀 됐어요.

우찬, 일어선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명심에게,
 명심, 본체만체하며, 명함을 들고 부엌으로 향한다.

우찬 또 인사하러 올게요.
 명심 (뒷모습 그대로) 있어! 그냥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인사하러 왔으면 인사는 하고 가야지.
 우찬 그냥 다음에, 저는.....

5장. 둘째

어느 새 철문 앞, 만혁이 우두커니 서 있다.

만혁 있으라잖아, 새끼야. 어른이 애길 하면 들어야지.
 우찬 형님.
 명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만혁을 뵈히 바라본다)
 만혁어머니. 효자 아들 절 받으세요.
 명심 (아랑곳 않고, 까던 마늘을 다시 까기 시작한다)
 만혁 어떻게 그대로시냐. 보톡스 필러 그런 거 맞으세요? 촌에서 맞으면 보톡스 값 좀 싸려나.

정말 건강하세요. 농악패 수장집 마나님이라 화색이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 아주 달라.

명심 저, 저!

우찬 (슬금슬금 현관으로 나가려는 걸)

만혁 (우찬의 팔을 잡으며, 시선은 명심에게) 어디 가려구?

우찬 형님, 잠, 잠깐 들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명심 (불안한 마음에 만혁을 쳐다보면)

만혁 (크게 한 번 웃고선) 인사만 드리는 게 어딴어, 임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다니. 마, 그리고 너 나한테 ‘형’ 이라고 불렀잖아. 왜 갑자기 거리 두는 건데. 형이면 형이고, 국이면 국인 거야, 갑자기 웬 형님 타령. 새끼야,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려고 그러는데, 가긴 어딜 가.

명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어여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다 왔는지, 원.

만혁 절 받으셔야죠 어머니.

명심 낮술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올 데 온 거야! 왜 맨 정신으로 못 살아, 이것야.

우찬 형님, 다음에 올게요. 갈 데가 있어요, 진짜.

만혁 각뚱하기는. 있어, 임마. 너나 나나 여기 뭐 초대장 받고 온 거 아니고, 그래도 너라도 있어야지 나도 마, 철판 깔고 국이라도 은어(언어) 먹을 거 아냐, 마.

명심 (별채를 가리키며) 옷 갈아입어. 고집 그만 부려, 우찬이 너도 네 옷 저기 다 다려놔어.

만혁 엄마, 엄마, 내것두?

우찬 (만혁의 손을 내린 뒤, 잠시 생각에 잠긴다)

네, 그럴게요.

명심 상 내올 테니, 둘이 같이 밥 먹어.

만혁 (배낭을 텃마루에 올려놓으며) 경자야! 경자야! 애는 오라버니가 어언 2년 만에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명심 잠깐 나갔어.

만혁 빨빨 거리고 다니는 성격은 여전하네.

명심 경자한테는 그래도 가끔씩 연락했다며. 어디서 오는 거여.

만혁 걸어서 왔어요, 저. 두물머리 저기 꼬트머리 있잖아. 거기 대덕산에서부터 걸어왔어. 창성 읍내에서 자고, 일부러 좀 걸었어.

명심 왜?

만혁 ?

명심 왜?

만혁 요새 유행이야. 웰빙이라고, 사람들 막 걸어. 밀창이 다 닳을 때까지 걷는 게 이제 유행인 거야. 돈 많으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산티아고도 걷고,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거길 뽕글뽕글 걷는다니까.

명심 그니까 왜 걷는 거여?

만혁 걸으면, ……그러니까 죽도록 걸으면, 밀창이 닳듯이 뭔가가 닳겠지. 기억도 그렇고, 다 닳아지면 좋은 거잖수.

명심 그러니까, 왜?

만혁 생각 좀 안 하려고
명심 그 녀의 생각, 생각.
만혁 할 만하니까 하지, 엄마. 내 속은 속이겼슈. 속이겠지. 난 좋아. 해피해. 아주 해피, 베리 베리 해피 중. 그리고 걸어야 돼, 엄마도 소 등줄기 같은 산새들을 보면서 걷는데 진짜 죽여 주더라고 옛날에 아버지랑 걸었던 그 길도 걸었어. 가끔 생각 나더라구, 그 길이. 엄마, 거긴 그대로야. 호숫가 근처라 안개도 기가 막혀. 별무리도 보고, 달빛이 얼마나 밝은데.
명심 ……만나는 사람 생겼대매?
만혁 ……하여튼.
명심 누구여? 뭐하는 처자여?
만혁 경자 애한테 애길 꺼내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에이.
명심 색시여, 과부여?
만혁 요새 그런 말 쓰면 잡혀가. 과부라니. 조선시대 때나 쓰던 말을 엄마도 참.
명심 (만혁을 뵈히 보면)
만혁 예뻐. 이쁘고, 아직은 좀 그렇고.
명심 니 나이가 뭇(뭇)인 줄은 알구?
만혁 그게 아니구 쪼오금(조금) 그러니까 엄만 모르셔도 돼요. 그런 게 있어.
명심 왜 딱 부러지지가 않아, 너넌!
만혁 그 때 대학을 딱 들어갔어야 했는데 딱 떨어져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질 않네.
만혁 (일어서며) 나 좀 자야 돼. 알람 맞추고 일어나니까 깨우지 마시라고
명심 ……만혁아.
만혁 왜 또
명심 잘했다. 잘 왔어.

만혁, 미닫이 문을 열어 놓은 채, 배낭을 올려놓고, 왼쪽 복도 끝방을 찾는다.
우찬, 별채에서 나와 마당 앞 의자에 앉는다. 생각에 잠긴다.
실개천 흐르는 소리.
어느새 빗소리.
번쩍번쩍 천둥번개 몇 번 내리친다.
거세지는 빗소리.
어두워짐.
암전.

6장. 기억

무대.
마당에 놓여 있던 평상은 온데 간 데 없고,
무대 위에선 한국 무용이 연행 중이다.

우찬은 기억하기 쉽지 않은 이 날 공연을
 마치 외면하려는 듯,
 정면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가쁜 호흡을 고르고 있다.
 4명의 여성 무용수들은
 변형된 한국 고전 무용의 틀을 두고,
 장구 가락에 맞춰 애절하면서도 열정이 담긴 몸짓을 선보이고 있다.
 장구 가락이 점점 고조되면,
 천둥번개 소리.
 비가 내리친다.
 무용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춤사위에 빠져있다.
 비현실적으로 미끄러지듯 미닫이문이 열린다.
 10년 전 모습의 경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단정한 정장 차림. 투 피스
 경자, 손 등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대 본다.
 뺨뺨 얼굴을 내밀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을 보며,
 걱정에 잠겼다가, 뒷마루 안방에서 이제 막 나서는 ‘봉설’을 본 뒤,

경자 (웃음 뿜 얼굴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누구세요.
 봉설 (중절모를 쓴 채) 모자까진 아닌가베.
 경자 비 이렇게 내리는데, 어떡해. 진짜 멋쟁이 신사 나올 찬스였는데.
 아니다. 그냥 우산처럼 쓰고 가자. 그치, 이게 낫겠지. 가오가 있지, 아버진.
 명심 이게 뭐야. 너무 퍼붓네요.
 경자 엄마는 또 한복이야.
 명심 예는 갖춰야지.
 봉설 전화 넣어라. 준비 다 됐다구.
 경자 큰 오빠, 작은 오빠, 저기 다리 건너에서 차 대기시켜 놓고 있대. 조심해서 오래. 깜빡하다
 간 저기 수위 넘쳐, 오도 가도 못할 것 같다구. 그러니까 엄마는 나랑 작은 오빠, 채연이
 이렇게 우리 그이 차 타면 되고, 우리 그이랑 작은 오빠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 휴게소
 안 들려도 될 거고 아버진, 큰 오빠 차 타면 돼. 채연이가 또 준서 오빠랑 같이 가겠다고
 큰 오빠 차 타도 대가리수는 맞으니까.
 봉설 말, 그 입.
 경자 아차, 머리수.
 명심 난 안 가는 게 맞지 싶은데.
 봉설 이 사람이.
 명심 비 내리고 그래서가 아니구요. 나는 좀…….
 봉설 우찬이가 고아야, 그런 거야? 잘 받아주고 또 왜 그래.
 왜 매번 중요할 때마다 틀긴 틀어!

경자 아버지, 아니야. (봉설에게 눈치주면)

봉설 (물러서고)

명심 장하슈, 내 참. 입이 열 개라도,

경자 엄마 그냥 가. 우찬이 아까도 전화해서 사진 같이 찍기로 해놓고 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냐구 난리 한 바탕 쳤어. 지금 뵈어도 몰라, 늦을 지도

명심 속도 참.

경자 오마니, 오마니! 우찬인 진짜 내 동생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힘 좀 실어주자.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우찬인.
이것 봐봐.

경자, 쇼핑백에서, 쇼핑백에서 꽃다발을 들어,

그 밑에 있던 아주 예쁜 다섯 살 배기 여아 원피스를 꺼낸다. 꽃처럼 화사하다.

경자 지금 문제는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젖지 않고, 오빠 차까지 가는 거잖아. 채연이가 이 옷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우찬 삼촌한테 꽃다발 건넨다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봉설,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코트를 입고 나온다.

우산을 편 뒤, 경자의 쇼핑백을 들고 선 나선다.

경자 아버지 같이 가. 엄마도 줌.

명심 가자, 그래 가.

경자 (신발 신으며) 지금 우찬이 장난 아니야. 방금도 전화 왔어.
늦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사망각이래.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 아주 예술가 집안 나섰다니까.

장구 가락, 더 거칠어지고, 춤사위 한 없이 격렬해진다.

경자, 뒷마루에서 내려와 우산을 편 뒤,

‘명심’ 과 함께 우산을 쓰며, 밖으로 나서려는 데, 일순간 모두 정지한다.

무용수 네 명의 제각각 동작에서 역시 멈춰 선다.

가능하다면 명심과 경자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마저도 모두.

잠시.

오직 우찬만이 이 모든 기억을 부정하려 애쓰는 듯

고개 숙인 채 일어선다.

울려 퍼지는 교통사고 현장음.

멀리서 들려오는 쇠내 가득한 그 현장음과 함께.

아나운서(소리)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인터체인지 지점에서 교통사고

가 나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과속을 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전미한 기자입니다.

기자(소리)

비가 퍼붓는 고속도로 갓길에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가 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조각과 번호판은 가드레일 밖에서 나뒹굽니다. 오늘 저녁 5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상행선 죽전휴게소 근처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2살 지 모 씨를 제외한 탑승객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지 모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많은 비로 도로가 젖어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 천둥 번개.

거세지는 빗소리.

고개를 피묻는 우찬의 어깨가 떨어온다.

북소리, 어지러운 장구 소리.

다시 천둥 번개.

최대한 밝은 불빛 / 빠른 암전.

2막

1장. 은광

밤.

본채며 별채는 불이 켜진 채,

어찌 고요한 밤이다.

뒷마루에 앉아 제사떡을 가지런히 썬 뒤, 접시에 놓으면

어느새 우찬, 이를 공손히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간다.

행주로 바닥을 훑치던 명심,

문득 평상을 바라본다.

뒷마루 안방에서 예의 그 중절모를 쓴 봉설이 어느새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은 채,

뒷마루에 걸터앉는다. 둘, 나란하다.

봉설 안 먹어. 그거 좀 하지 마.

명심 당신 먹으라고 하는 건 줄 알아요.

봉설 애들은?

명심 (별채를 가리키며) 자요.

봉설 왜들 그렇게 술을 마시누.

명심 맨 정신으로 오늘 어떻게 나요.

봉설 이제 잇을 만도 하잖아.

명심 잇어진답니까, 어디 이게. 생때같은…….

봉설 좀 쉬어. 다 괜찮으니까.

명심 쉬어도 오늘, 안 쉬어도 오늘이랍니다.

봉설 미련하기는.

철문 두드리는 소리.

명심, 마당에 놓인 조명들을 마저 모두 켜다.

마당, 좀 더 환해진다.

어느새 봉설 온 데 간 데 사라지고 없다.

명심, 잠졌던 철문을 연다.

명심 그냥 열어두라니까.

경자, 잔뜩 취한 채, ‘은광’에 기대 문 앞에 서 있다.

은광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경자씨가 오늘 좀 취해서,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려 아니, 부축해서, 아니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자 (정확하게 발음하려 애쓰며) 인사해. 올 엄마. 엄마, 은광씨.

은광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목례를 하며) 차은광이라고 합니다. 연암 차씨 그러니까, 18대

손…….

명심 (경자를 마저 부축하려는데)

안방에서, 우찬 나서려다 도로 안방으로 들어선다.

우찬 형님! 형님!

눈 비비며 나선 만혁, 슬리퍼를 신은 채 대문을 향한다.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만혁은 양복 차림이다. 검정색 양복에 검정 넥타이.

은광 형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차은광입니다. 경자씨가 술이 많이 취해,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좀 깨고 가야한다고 애길 건넸던 건데요 오늘 이상하게 막무가내로 집에 가야 한다고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혁 잠깐 스톱. 누, 누구시라고요?

은광 차은광이라고 합니다.

만혁 어떤 사이시냐구요?

은광 (다시 머리가 땅에 닿을만큼 크게 목례하며)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이일 수 있습니다.

만혁 ……뭐야 이거. 술이 다 깨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걸 그냥 확.
딱 봐도 너 유부남 맞지! 가정 있는 게 이런 개호리

만혁, 손을 올린다. 은광, 잼싸게 피하면서 뒷걸음질 친다.

은광 아닙니다, 저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정말 드 듣던 대로 ‘쌔’, 썬 형님이 계시다구…….

만혁 뭐, 임마? 이게 어디 귀한 집 딸 술 맥여 놓구…….

은광 (손으로 얼굴 막으며) 그, 그럼 저는 다음번에 정식으로다가 인사드리러, ……그리고 형님.

만혁 이게, 어디서 형님이래.

은광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결혼 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 이 때까지 경자씨처럼 인품 있고, 가정교육 잘 받고, 아무튼 세련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이 날 이 때까지 내가 참고 또 참았구나. 참고 또 참고? ……이건, 캔디인데, 들장미 소녀?

경자 (웃으며) 엄청 똑똑하다니깐, 엄마 봤지?

만혁 미친 새끼네, 일루 와. 너 일루 왜

은광 (뒷걸음질치면서) 경자씨, 오늘 밤 저기 하현달은 어쩐지 일단 피하고 봐야 할 달이었나 봐요. 경자씨는 흠이 많고 저는 나무가 많아 우린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기 하현달만큼이나 오늘은 그냥 제가 택시 불러 도망, 아니 그냥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일단 피아식별이 됐고,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일단 빠져주기로 끝! 끝! 끝!

경자 (배꼽을 쥔 채 웃는다) 엄마, 엄마! 맞지, 내 말. 우리 은광씨 이런 사람이야, 이거 왜이래.
 은광 경자씨, 전 진짜 진심인데요. 아침나절 전화 드릴게요. 정말 내 마음 다 바쳐서……. (만혁
 손이 또 올라가자) 잠깐만요, 잠깐, 스톱!
 만혁 뭐 이런 또라이같은 새끼가 다 있어.
 명심 들어오세요.
 만혁 엄마.
 명심 넌 빨리 절해.
 제사 다 끝났어. 하려면 빨리 하던지.
 만혁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만나는 분이 교회 다니
 니깐, 나도 약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명심 안 해도 괜찮어야.
 만혁 인사는 드려야지. 아니 서서 묵념으로 인사할게요. 관절도 좀 안 좋구, 내가.
 명심 (들은 채 만 채, 시선은 은광에게)

은광, 다시 경자를 부축하며 마당으로 들어선다.

경자, 은광을 밀치며 평상에 앉았다가, 은광의 손을 붙잡고 무대 앞, 의자에 앉는다. 실개천을 바
 라본다.

엉거주춤 은광 역시 앉는다.

경자 엄마, 물.

명심 씨글 년, 씨글 년.

명심, 부엌으로 들어가면,

우찬, 별채를 두드린다.

또다시 머리 모양새가 산발로 가득한 채,

검정색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맨 만식이 슬리퍼를 신고 나선다.

경자 (만식을 본 뒤, 역시 배시시 웃으며) 무쓰, 김무쓰 남신 줄

우찬 형님만 절하시면 됩니다.

만식 지방 안 췌는데?

우찬 인터넷 보고 제가 한 번 써봤어요. 너무 곤히 주무시길래.

만식 (웃매무새를 바로 하며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선다) 깨웠어야지! 잘했다 잘했어.

경자, 속이 울렁거리는 지 고개 숙이면,

은광, 경자의 등을 두드리고,

경자, 침을 한 번 내뱉는다.

경자 담배 좀 쥐 봐.

은광 아까 그게 똥대였는데.

경자 여유 있게 좀 사 놓지. 자긴 다 좋은데 빠듯한 게 흠이야.
아무리 빠듯한 삶일지라도 빠듯하지 않은 건 빠듯하지 않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 집 예술가 집안이야, 이래봬도

우찬 (은광에게 다가가 담배 갑을 건넨다)

은광 (얇은 채로 또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를 건넨다, 결국 머리가 땅에 닿는다)
……누, 누구신지? 고, 고맙습니다.

경자 (실개천을 살피며) 알 거 없어.

은광 그, 그래도

정적.

경자 (미친 듯 느닷없이 웃어재끼며) 몰라, 나두. 모르는 사람이야.

은광 그, 그래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라며,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다고…….

경자 파티가 있기 하지. 봐봐, 벌써 저렇게 드레스 코드 딱딱 맞춰서 이리저리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그렇게 쫓박힐만한 곳, 그런 발디딜만한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 이 넓디 넓은 마당에서.

은광 (담배 불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뺀 뒤 경자에게 건넨면)

경자 (담배 한 모금 길게 빨며) 술 깨는 덴 이게 최고야, 자기야 그치.

은광 그, 금연 구역 아닌 거 맞지, 그런 거지.

만식, 교자상을 하나씩 편다. 모두 두 개.

우찬이 거든다.

우찬 쌀쌀해요, 밖이. 안에서 드시는 게……. 전 가 봐야 해서, 택시 부르려구요.

만식 가긴 어딜 개. 엄마 말 들어. 손님도 있고 하니, 밖에서 그냥 같이 한 술 뜨는 거야.
(손짓하며) 파라솔 저거 치우고 넌, 불 좀 피워라.

우찬, 말없이 파라솔을 치운 뒤, 야외 난로통을 끄집어 불 피울 준비를 한다.

만식, 부엌을 들락거리며 쟁반을 나르며, 술상을 차린다.

경자 (만식을 가리키며) 큰 오빠야. 우리 집에서 젤로(제일) 똑똑해.
주식 해. 단타꾼이야. 수익률이 높진 않은데, 잘 안 잃어. 엄청 소심하거든.
내 돈도 좀 불러주고 그래.
신기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은 이득 보는 경제통이서, 저래 뻔도.
창성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농고 말고 상고 나왔어.
똥통 야간 나온 나랑은 차원이 달라.

저래 뻔도 증권사 영업맨 출신이거든, 서울.
원래 은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거긴 면접에서 떨어졌고,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아침에 보면 머리카락이 막 그러니까 막.

만식 그만.

경자 착해, 큰 오빤. 그래도 서울서 근무해서 거기 분하고…….

은광 거기 분하고, 뭐.

경자 ……아냐. 아무튼 그래서 주식은 못 끊어. 단타꾼. 스캘핑. 많이는 아니구, 좀 쫌스러운 데
가 있어서 아주 조금씩 버는 스타일이야.

은광 (벌떡 일어서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큰 형님이시라고

만식, 잠깐 나섰다가 은광의 인사를 못 듣고 다시 부엌으로 향한다.

은광, 조금은 기분이 언짢은 듯.

악수를 건네던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경자 뭐해. 앉아 있어 그냥 좀.

은광, 이번엔 말없이 불을 피우는 ‘우찬’을 예의주시한다.

우찬, 잠시 은광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랑곳 않고 장작더미를 거칠게 난로에 넣는다.

은광, 어쩐지 우찬이 신경 쓰인다.

경자, 이런 은광을 의식한 듯, 일부러 은광의 얼굴을 돌려 자기 이마에 맞댄다.

경자 자기야.

은광 (다시 ‘말 없는’ 우찬을 살피며) 그래, 나 여겼다, 왜.

경자 차은광.

은광 말해.

경자 차은광.

은광 뭐?

경자 ……빨아줄까?

은광 뭐?

경자 (배시시 웃으며) 빨아줄까?

은광 ?

우찬, 잠시 하던 일 멈추면,

경자 빨아준다고

은광 심장 떨려 죽겠네. 진짜 경자씨 왜 이래. 저, 정신 좀 차려.

경자 왜 말을 더듬고 그래, 자기답지 않게. 청산유수 이태백이.

은광 경자씨 많이 취했다. 그리고 나…….

경자 저기요. 그리고 또 뭐요? 사내 새끼가 배포가 그렇게 없어서 지 씨 가문 호적에 이름 석자 넣을 수나 있겠냐구요?

은광 (고개 가우똥) ……사, 사위도 들어가는 건가? 호적 같은 데에.
(벌떡 일어나며) 나 오늘은 갈래, 그냥. 가고 싶어.
정말 뭐랄까 분위기가 살 떨어져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경자 (목소리 낮추며) 야, 야

은광 (줄지예) 어?

경자 야

은광 네? 누나.

경자 사내새끼가 이 정도 분위기도 적응 하나 못해!

은광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좀 늦었고, 달빛도 예사롭지 않고, 오늘의 운수도 그냥 집에 콧 박혀 있는 게 나을 거라고 또 차도 끊기면……. 아, 벌써 끊겼나?

경자 택시비 줄게. 아니다, 자고 가라, 너.

은광 아니 그래도 어떻게 처음 인사드리러 와서…….

은광 ……저 분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저 분은 인사를 안 시켜 주시는 건지…….

잠시.

경자 알 거 없고, 됐고 우리 좀만 더 마시자. 은광씨도 마셔야 돼.

은광 제사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누구?

경자 (배시시 웃으며)

울 아버지 지짜 봉짜 설짜, 큰 언니, 양정은 님, 조카 지준서, ……그리고 내 딸 채연이, 송채연, 끝!

침묵.

은광, 잠시 일어났다 다시 앉았다, 엉거주춤 서 있는 모양새로 나가려는데,

경자, 은광의 손을 잡는다.

은광 (털썩 도로 앉는다)

경자 (은광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가지 마, 가는 거 아니야, 이 바보 시키야!
가면 끝나는 거라구.

우찬 (경자를 보면)

은광 (이런 우찬을 보며, 잠시 고개 가우똥)

경자 (은광에게) 우리 오래 가기로 새끼손가락 걸었잖어.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 욕망에 솔직해 지자고

한국 사람 땡키로 판단하지 말고, 행복해지기 위해 애 쓰자고, 이 씹새끼야.

은광 그건, 철학적으로는 맞는 소리인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자 넘아, 거기 그거 그 강을 건너지 마란 말이야,
 우리도 그거 찍기로 했잖아. 이 다음에 나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
 (느닷없이 소리치며) 야, 얘 차은광!

은광 네! 네!

경자 너 정말 이것 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사내 새끼가 배짱이 요것 밖에 안 돼!

은광 아닙니다! 아닌데요. 경자씨. 그런데 오늘은 줌.

경자 너 한 번만 더 가네 마네 해봐. 그 땐 정말…….

은광 그 땐 정말 뭐.

경자 ……사랑해 줄 꺼다.

사이.

은광 에이 씨팔, 안 가! 안 가요, 내! 안 가는데, 나 참 이거.

경자 그냥 병신아,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야.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거라구.
 몇 년 만에 달랑 바나나 들고 온 주제에!

은광 바나나요? 우리 빈손으로 왔는데?

사이.

우찬 (목청 높이며) 취했으면! 취했으면 들어가!

은광 그런데 진짜 누구……?

경자 넌. 넌이라구, 저 새끼, 그냥, 남이라구!

은광 (매서운 눈초리로 우찬을 살피면)

2장. 미알 과장

우찬, 아랑곳없이 불붙은 번개탄을 들고 야외 난로에 넣는다.
 갈탄을 뒤적거린다.
 만식과 명심, 나머지 쟁반을 평상에 올린다.
 명심은 다시 툇마루에 앉고,
 만식, 평상 우측 꼬트머리에 앉아,
 은광에게 손짓한다.

은광 저요?

만식 (고개 끄덕이면)

은광, 평상에 올라 만식이 따라주는 술을 받는다.

만식 이름이?

은광 (벌떡 일어나며 다시 인사를 드리려는데,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만식 앓아, 우리 집 그런 거 없어. 형식 이런 거 안 따져, 다들. 그냥 주면 마시고, 마셨으면 따라주고

불 다 피워 놓고, 우찬이 경자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은광, 이를 눈여겨 살피며 술을 마신다.

은광 좋네요

만식 술?

은광 네.

만식 (쓱쓱하게 웃다가, 점점 호탕하게 웃는다. 광기어린 눈빛으로) 자, 받아! 아주 마음에 들어!

명심 조금만 줘어. 잘 못할 지도 모르는데에. 왜들 그렇게 괴롭혀들!

만식 그래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경자하고는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 만난 거야. 누구 만나는 거 같다고 얘긴 들었는데, 내가 정신머리 없이 살다보니, 미리 초대를 못해 미안하게 됐네.

은광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까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경자씨하고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만식 (명심에게) 엄마, 경자 직장 다녔어?

명심알바 뛰었어, 금토일. 읍내 하나로마트 옆, 그 뭐였더라.

은광 맞습니다. 원래 알바, 아르바이트가 직장에서 일한다라는 독일어거든요. 맞아요, 거기 카페 ‘란’ 커피.

명심 그럼, 자네가.....

은광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인 거죠, 제가.

만식 바리스타면.....

은광 네, 맞아요 커피, 커피. 제가 드립이랑 콜드 블루 이런 걸 제조하는 거죠. 제조 기술자. 케냐 더블 에이랑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구찌 네츄럴 이런 생두 있잖아요. 말씀 드리자면, 이런 걸 제가 직접 로스팅이라고 적당히 볶고, 그걸 또 적당하게 식혀야 하거든요. 이 전 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식 그러니까.

은광 그러니까 아직 ‘쫄’은 안 났는데요. 제 경우엔 좀 빠른 편이긴 하니까, 거의 육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에서 이런 걸 배우겠다고 하면요. 지원금도 나오거든요. 출석율이 중요한데요.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뭐. (자세 바로 잡는다)

명심 그러니까, 거기 치킨 집이었던, 처갓집 양념, 거기.....

은광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치킨 집 사장님이 그거 탈썩 망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 카페 문화가 여기 창성 읍내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두물머리는 핫도그, 창성은 커피카피코

피, ……죄송합니다.

만식 어쩐지 오늘은 자네가 코피 터지겠다.

은광 네?

고개 숙인 채, 숨만 헉헉 쉬어 대던 경자가 고개 든다.

우찬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마셔.

경자 (우찬을 밀치며) 넌 됐구.

(소리치며) 사장님이시냐구? 그거 묻고 싶은 거잖아.

그 사람 사장 아니야.

나랑 같아. 거기 알바 뛰다가 만난 거야.

사장 말고 직원은 딸랑 우리 둘. 왜 고용인이랑 고용인이랑 만나니까 뭐 한심해 뵈!

만식 얘

은광 (머리를 긁적이며) 저도 이제 막 배우는 중이라.

(명심에게 얼굴 돌리며) 거기 처갓집 양념 통닭 사장님이 커피숍 차리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바꿔놔서 정말 분위기는 읍내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부합니다. 그 ‘란’ 이 왜 ‘란’ 이냐면 정말 그게 많거든요. 매란국죽. 사장님이 좀 많이 창업도 하셨고, 많이 이렇게 좀 안 되셨는데, 선물 받은 ‘란’ 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키우고 계셨더라고요.

만식 ……한 잔 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은광 물론입니다요, 형님. 그런데 아까 또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분은 어디 이제 가셨나 봐요.

경자 거기하고 앞에 계신 그 분하고는 겸상 안 해. 그런 게 있어.

은광 (난처해하며) 자기도 이리 와서, 뭐라도 좀 먹지 그래. 전이 참 맛있는데.

경자 많이 드세요. 전 그 전 먹으면 체하니까, 다 드세요, 다.

만식 올라와, 이제!

경자 (느닷없이 우찬의 어깨를 감싸며, 몸이 기울어지려하면)

우찬 (버틴다)

경자 난 여기 이 분하고 얘기할 게 참 많다. 다들 드시고 계셔.

은광 그치? 맞지?

만식 ?

우찬,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은 경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경자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준다.

순간, 텃마루에 얹전히 앉아 있던 은광, 마당을 가로지른다.

힘껏 공중 도약을 하며 이단 옆차기!

우찬을 향한 발길질이었던만 각도를 잘못 잡았는지,

헛발질에 미끄러지고 만다.

은광, 홀로 나뒹굴며 세수 대야만 요란스럽게 차고 만 셈.

양은 세수 대야 소리가 요란하다.

허리를 빼끗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난 은광.
우찬의 떡살을 신속히 잡아 비트는 은광.

경자 멋있다, 차은광!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명심과 만식,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상황을 파악할 뿐.

은광 (덜덜 떨며) 너 이 새끼!

우찬 네?

은광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무리 낮가죽이 두껍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여길 와, 감해!

미단이문이 좀 더 열린다.

잠에서 깬, 원래 입었던 그대로 등산복 차림의 만혁이 이 상황을 지켜본다.

만혁 동작 그만!

은광 형님들! 이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초면에 제가 실수가 많습시다만,

은광, 부르르 떨며 우찬을 한 대 치기라도 할 듯,
어느새 다가온 만식이 은광의 손을 잡는다.

은광 형님.

만식 왜 이래. 벌써 취한 거야?

은광 ? 네?

경자 좀 때려. 개는 좀 맞아도 돼!

은광 어?

은광, 떡살을 잡았던 손을 내려놓으며, 우찬에게서 떨어져, 우찬의 표정을 살핀다.

은광 호, 흑시 전, 전남편 아니세요?

만혁 미친 놈 맞다니깐, 개.

은광 네?

만혁 이혼한 전남편이 여길 왜 와. 얼어 죽을!

경자, 미친 듯이 웃는다.

경자 이래서 차은광이 최고인 거야! 봤지, 봤지!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이제 없다니깐!

은광 아니, 경자씨!

경자 개 내 동생이야. 좀 복잡한데, 아니지 복잡할 것도 없지.
아무튼 개가 우리 막내야, 막둥이.
(일어서며) 오빠들, 이 정도면 나 남자 잘 잡았지. 이 사람 들킨 거 맞지? 합격이지?
만식 아니, 넌 대체 애가 어떻게.
경자 엄만 어떻게수?

등을 돌린 채 명심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는 중.

만혁 엄마, 누워 계셔. 조용히들 마셔, 좀.
경자 그래, 그러자. 마시자. 오늘이 내일이구 내일이 오늘이고, 어제가 그저께구,
우리 식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어. 취해야지, 그래야 ‘오늘’ 이지! 자, 건배!
차은광 노래일발 자가자가 장전
은광 (작게) 바가바가 발사! ……죄송합니다.

만혁, 은광을 바라보면,

은광 (다시 머리가 땅에 닿게끔 목례를 하며) 미, 미안하게 됐습니다, 처남.
만식 (우찬에게) 너도 임마, 좀 떳떳하게 피아식별 할 수 있게, 먼저 인사도 허구 그래야지, 원.

만혁, 경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앉는다.
만식, 다시 평상 위로 올라가 우측 가장 자리에 앉는다.
그 옆으로 은광이 다시 앉아 만식에게 술을 따른다.
가운데에는 경자가,
경자 옆 우찬이 앉는다.
경자는 우찬의 얼굴을 뺨히 바라본다.
우찬은 고개를 숙인 채, 술도 비우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다.

경자 ……자니?
우찬 ……아냐.
경자 ……왜 이제 왔어.
우찬 …….
경자 여보세요
우찬 …….
만혁 시작했네, 시작했어.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가 다시 떴다)
경자 (큰 소리로) 여보세요
우찬 ……(무너진다) 내가, ……어떻게 와, 여길!

경자, 힘껏 우찬의 뺨을 때린다.

경자 고개 들어!
일년에 한 대씩 맞는 거야. 계산 깔끔하지!
우찬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경자 (두 손 치켜 올리면)
만식 (그저 술을 마시고) 경자야, 또 왜 이래.
만혁 (‘피익’ 웃는다)
은광 (잔뜩 얼어붙은 채로 도대체 시선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모르겠다)
경자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이게 할 말이야! 이게 할 말이냐구!
우찬 (자신의 뺨을 한 번 만지면)
경자 와야지, 이 사람아. 오는 거야. 네가 와야지, 그럼 누가 왜
너 어디 사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와야지, 엄마 여기 계시는데, 오빠도 여기 있구!

어느새, 명심 뒷마루에 선 채, 이들을 다시 바라본다.

명심 동네 사람들 오늘 재미지겠네.
경자 (우찬의 뺨을 잡으며, 서럽게 운다) 전환 왜 안 받아, 이 병신 새끼야!
……너, 너 엄마가 너 그냥 콧죽어버릴까 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 이 등신 새끼야!
왜 그렇게 살어! 왜, 왜! 네가 왜!
만식 경자야, 경자야!
명심 만식아, 애 데리고 들어가라!
만혁 (우찬 옆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다, 빈 대접에 이 술을 다시 부으며)
나뉘요. 오늘 아니면 언제 취해! 할 말이 있었겠지. 그건 해야 하는 거야.
정신분석이라는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 책에서 그렇다네요.
토할 거 같으믄 토하는 게 좋은 거래.
엄만 좀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엄마가 나서는 게 더 안 좋다니까.
명심 그래 내가 죄 많은 년이다.
만혁 엄마, 그게 아니구!
이게 다 뭐야. 잔칫날도 아니구.
여기 이 사람들, 엄마 이거 먹을 자격 하나 없어.
(손으로 김치를 집어 먹으며) 젓가락 줘!
은광 (젹싸게 젓가락을 집어 만혁에게 건넨다)
만혁 손이 빠르시네, 참. 우리 집은 다들 느려 터졌는데. 한가락씩 예술하시던 분들이라, 좀 생각
이 많으시거든, 다들.
만혁 오늘은 어쨌, 초장부터 좀 다들 달리시네. 그럼, 나도 빨리 박자를 맞춰야지, 여기선 제정신

인 놈만 손해 보는 거거든.

(은광에게 윙크 날리면)

은광 (얼떨결에 건배 시늉 한 뒤, 술잔을 탈썩 비운다.)

명심, 텃마루에 앉아 도로 이들을 내려 본다.

불안한 마음 여전하다.

명심 나는 그냥 오늘은 여기서 파했으면 좋겠어.

경자 (술 달라고 은광에게 킁킁하면)

은광 (머리를 긁적이다 마지못해 따라준다)

경자 (은광의 볼을 쓰다듬어준다) 자긴 진짜 최고

은광 ……그러니까, 내 말은…….

경자 (그 술을 우찬에게 건넨다)

우찬 (물끄러미 경자를 바라본다)

경자 마셔.

우찬 (마신다)

경자 (술을 또 따른다, 우찬에게)

우찬 (마신다)

경자 (술을 또 따른다, 우찬에게)

우찬 (마신다)

만혁 ……오늘은 니네 둘이 주인공인가 보다. 많이 컸네, 주인공두 다 해 보구.

(홀로 술을 따르려 술병을 들면)

은광 (젹싸게 자신이 따르려 엉거주춤 일어나면)

만혁 잘 들어 뒤. 애랑 살려면 그냥 살면 돼.

은광 네?

만혁 예의고 나발이고, 나한테 백날 잘해 봤자 다 헛거라구, 이 사람아.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거라구, 본업, 본업 몰라. 우리는 그냥 다 이런 게 업보로 또 이어진 거구. 두고 보면 알아.

만식 (홀로 술 한 잔 걸치고)

경자는 우찬의 얼굴을 연신 들여다보고 있다.

경자 안주도 먹어.

우찬 …….

경자 네가 그랬대매.

(무너진다. 서럽게 울며) 그냥 잘 살겠다고,

연락 없어도 찾지 말라구.

미, 미안하다구.

죽을 죄 지었다구.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살겠다구!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게, 그게 누나한테, 여기 형들한테 할 소리네!

내가, 내가!

명심 경자야 그만.

은광 그러니까 경자씨가 동생분을 많이 챙기시려다 보니까…….

우찬, 만혁이 따라 두었던 사발에 놓인 술을 벌컥 벌컥 모두 들이킨다.

만혁 천천히 해. 밤 길어, 임마. 새끼 술 늘었네.

명심 우찬아, 우찬아.

사이.

우찬, 일어선다. 다시 앉는데, 무릎을 꿇는다.

우찬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누나, 미안해, 형.

경자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네가 뭐가 미안해. 애 왜 이래 진짜. 뭐 이래. 식구라는 게 다들
거지같이!

어느새, 맞은 편, 만식 역시 일어섰다가 정중히 무릎을 꿇는다.

만식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만식 어머니, 미안합니다!

죽을 죄 지었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미안해요, 임마.

미안하다, 애들아. 내개! 내개! 죽을 죄 지었다!

어떻게 해요. 이 날이 꼭 일 년에 한 번은 돌아오니까, 에이 진짜.

경자 오빠 또 왜 저래.

만혁 (소리치며) 스톱! 그만 좀!

명심 경자야, 오빠 술 잔 치워라.

만혁 그냥 마시자, 무슨 술 한 번 마시는 거에 그렇게 의미를 갖다 대.

침묵.

만혁 (진양조로)

들마당의 차일 치고

동내 모화 자리 포진

사면 한때 어더 오니
 화랑이 줄모지라.
 북 치고 피리 부니
 여민락이 제법이라.
 이헌풍 김침지
 잔말 끝해 취도하고
 최권농 강약정은
 체달이 춤을 춘다.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중에서>

경자 좋대!
 은광 우와 좋은데요, 형님.
 만혁 좋긴 귀뽕.
 만식 (만혁을 쳐다보면)
 만혁 (만식에게서 눈 떴지 않으며)
 아부지가 이 노래 참 잘하셨지, 왜.
 그런데 정약용도 그렇고 정학유도 그렇고 난 다 싫어.
 ‘농가월령가’ 가 뭐야. 농사짓는 거 그거 노랫말이잖아.
 그런데 정학유 이 놈이 농사를 지어봤겠어, 뭘 해봤겠어.
 다 좇같은 새끼거여. 정약용도 얼마나 신분제를 나눴는데,
 편지 읽어 봐. 은근히 이 씨발 놈이 깔고 본다니깐. 다 개쌍놈의 새끼들인 거시여, 조선 귀
 족 새끼들은. 실학! 다 좇까라 그래. 개씨발 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알아?
 영킨 선율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셋바람에 떨지 말아!”
 우찬 형!
 만혁 가만있어, 새끼야, 년.
 (지붕을 가리키며) 여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야, 울 아버지 개똥 철학이란 게.
 만식 (고개 숙이면)
 만혁 석면이 가득하단 말이야. 이거 다 걷어내야 돼, 이제.
 명심 그래도 저 지붕이 니들 비 막아주고, 바람 막아줬어.
 만혁 맞아요, 맞아. 맞는데, 울 아버지는 근대성에서 못 벗어난 거야.
 철학이 없었던 거야, 아예. 그러니까, 내 말인 즉!

만식, 어느새 만혁에게 다가와 만혁의 뺨을 때린다.

만혁 아니 이 새끼가, 단타 쳐서 돈 십만원씩 벌더니 이제 돌았나.
 하다하다 이젠 원 별.
 너 오늘 진짜 죽어 볼래!

(만혁, 만식의 먹살을 잡으며 달려들면)

우찬 (만혁과 만식 사이 틈에 끼며 막아선다) 혁영, 왜이래에-

은광 (몹시 큰소리로) 노래 일발 바가바가발썌!

잠시.

경자, 박수 치며 나뒹군다.

은광 (역시 술이 좀 들어가 취기 어린 듯) 저기요 형님들,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자 (옆드린 채 그대로) 해. 다 해.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식구.

은광 ……저는 정말 오늘 그냥 갈게요. 다음에 깜깜하지 않을 때 오면 안될까요?

경자 (박수치며 나뒹군다) 우리 차은광이 최고다, 진짜 자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야!

만식, 자리에 가서 앉아 다시 술을 따른다.

만혁 (고개 숙인 우찬을 향해, 차분하게) 네가 그 때 그랬지. ‘미얄 과장’ 이라는 게 죄다 틀려 먹은 거라구. 네 말 맞아. 틀린 말 하나 없다, 네 말. 왜 맨날 미얄만 썰매지게 용쓰며 살았는데! 영감이란 작자는 꼭 덜머리집 같은 첩 하나 데려와서 쓸모없게 된 미얄 죽여 버리는 거냐구! 씨발!

우찬 (또 한 잔 마신다)

만혁 네 말 맞다니깐.

우리 아버지가 그래. 어느 날, 너네 엄말 만난 거잖아. 안무가는 무슨, 무속인, 아무튼. 그래 좋아. 난 그런 거 다 이해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정작 올 엄마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기로 한 거니깐. 우리 엄마 마음이야 태평양이니깐. 야이 새끼야, 그래도 연락은 하고 살아야지. 너 이 새끼, 도피다 그거, 현실 도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 아무튼. 새끼야, 그래, 난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참, 이 얘기까진 안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엄마가 좀 그러니까 일찍 자연으로 돌아간 거잖아. 우리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경자 (사색이 되어) 오빠!

만혁 잠깐만 줘. ……그치. 아니, 이 사람아, 뭘 그리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아. 난 아버지가 어찌면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구, 너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 했겠어, 안했겠어. 8년 같이 살았으면 새끼야, 너도 식군 거야. 어딜 새끼가 겹도는 척 해. 겹도는 건 새끼야, 정말 이 새끼 내가 오늘 죽여 살려…….

“ 짹!” 이번엔 명심이 텃마루에서 어느새 내려와 만혁의 뺨을 때린다.

만혁 엄마, 이건 아닌 거잖아, 그런 거잖아. (코를 때만지며) 코피 나잖아, 에이.

만혁, 코를 틀어막으며, 휴지로 대충 막는다.

명심 우찬인 건들지 마.

경자 지옥이 진짜 따로없다, 그치!

만혁 엄마.

명심 (만혁의 떡살을 붙잡으며 절규한다) 이 늙아, 그만 좀 후벼 파라구. 애 얼굴 좀 보구 파 이 잡놈의 새끼야, 이 빌어 처먹을 새끼야. 애 얼굴이 저랬으면 어땠겠어, 어땠겠냐구, 이늙아. ……너 가, (서럽게 울며) 가라, 그래 가, 택시 타고 가든, 걸어서 지리산을 넘든 빨치산을 넘든 니 맘 편한 데로 살어. 그래라, 그래. 거기 꼭대기 높은 데, 기린처럼 높은 쇧덩어리 올라가서 너 하고 싶은 말 노래 다 허구 살어. 이제 상관 안할랑게. ……여긴 다 괜찮으니 까, 그냥 너두 여기 잇고 살자. 그래 그러자, 그래.

철문 밖으로 마을 사람들 하나 둘, 모습 비춘다. 구경 난 듯. 하나 둘 얼굴 빼꼼 들이민다. 들어 오진 못할 테고

만혁 (무릎 꿇는다. 고개 숙인다. 취기가 어려 고개는 조금 살랑 거리지만. 큰 소리로) 어무니 말 씀 백점 만점의 백점! 모두 맞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은지 씨는 그러니까 아직 이혼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 나 정말 은지씨 좋은데. 애들도 너무너무너 무 좋아요. 착해. 그런데 그 남편 놈의 새끼가 도장을 안 찍어 주고 참 나, 내가 지금 무슨 소릴 짓거리는 거야, ……아무튼 우리 엄마가 최고 ……나 오늘 별 본 거잖아. 나 오늘 엄마, 아무튼 울 엄니 천하장세시네. 저 오늘 옥수수 이빨 출장 가는 줄 알았다니깐. 강냉이 죄다 털리는 줄 알았어. 천하장사 만만세 우리 어무니 만세 만세 만세! 우찬아, 내 동생! 형 이 미안 좀 멀리 갔다, 미안.

우찬 …….

만혁, 우찬을 꼬옥 안아준다.

만혁, 서럽게 운다.

오히려 우찬이 만혁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은광 술성이 참 진짜 세기말적으로다가 화끈들 하시네요!

(밖의 주민들을 향해) 우항청심환 하나 혹시 있으세요?

만식 경자야, 그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시자. 일어나자.

만혁 ……씨발, 형이라고 한 번 불러주니까 바로 태클 들어오네.

경자 오빠 진짜 ‘썸’.

만혁, 우찬을 밀치며 일어선다.

사이.

만혁 그날 씨발 핸들 잡은 새끼가 누군데. 그게 이 개 같은 새끼야!
 무릎 짹 좀 꿇는다고 ……네 형수랑 준서랑,
 (차마 말을 쉬이 잊지 못한다) 여기, 새끼야. 경자 딸…….

경자 아이 진짜! 오빠, 왜 이래 진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오열한다)

만혁 (경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미친년아.

은광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 경자의 어깨를 감싸 준다)

만혁 ……그 날 채연이가 원피스 보구 얼마나 좋아했는데!

만식 (다시 무릎 꿇으며, 고개 숙인다. 경자를 향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경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니! 오빠가 어떡하면 좋을까, 응, 오빠가 어떡하면 좋아!

만혁 (차분하게, 등산화 끈을 매며) 염불 외우지들 말고, ‘쫄’. 잘들 사슈.

사이.

은광 ……가실 거면 저도 같이 택시 탈게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중요한 일이 이 늦은 시간에 생겼거든요.

만혁 쫄보 새끼를 내 그냥 확!

우찬, 이제 막 일어선 만혁의 손을 잡는다.

만혁 왜들 이렇게 사냐구! 제일 미안한 건 나라구. 나야 내! 이 병신들아!……그날 좀 더 뽕자고 운전 중에 전화 때린 건 나였잖아. 니 차 뒷트렁크 닿을랑 말랑 뽕뽕뽕 붙어서 운전한 건 나였잖아. 진짜 다들 왜 이러는 건데. 개씹새끼는 나라구. 지옥불에 빠져 허우적 거릴 놈은 나 하나면 족하다구, 이 병신 새끼들아! 사람 진짜 돌아버리게 좀 만들지 말라구. 나 혼자만 국토순례 떠다니면 그만인 거라구.

만혁, 우찬을 일으켜 세운다.

만혁 너 이 새끼. 진짜 똑바로 행복하게 안 살면 그 땐 진짜 내 손에 뒤흔드는 거대! ……아니지.

은광 (놀란 눈으로 만혁과 경자, 만식을 바라보는데)

만혁, 일어나서 다시 정중히 무릎을 꿇는다.
 경자, 정중히 무릎을 꿇는다.
 열떨결에 은광 역시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다들 미동도 없이 무릎 꿇은 채로.
 어두워짐.
 서서히, 서서히, 그리고 암전.

3장. 아침나절

밝은 불빛.

틔마루, 그리고 식구들.

참새들 마냥 틔마루에 모두 나란히 앉아 있다.

어제 그 나열 순이다.

왼 편 끝자락, 만혁은 폰으로 바빠 문자를 보내고 있고,

우찬은 아주 조금이나마 한결 가벼운 차림새.

파자마 차림의 가디건을 걸친 경자와

그 옆 추리닝 차림의 은광이 앉아 있다.

은광의 추리닝은 좀 많이 작아 딱 낀다. 아디다스 위 아래, 만식의 옷인 듯.

바로 옆 만식은 꿀물을 들이키며 스마트 폰 화면에 열중하는 중.

만식의 폰 화면을 은광이 살짝 쳐다본다.

경자 그러지 마. 울 오빠 다른 건 다 참는데, 자기 폰 들여다보는 거 디게 디게 싫어해.

만식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괜찮아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좋지 않아서. 며칠 들어갈 일 없을 테니.

은광 그럼, 형님께서는 차트만 보시면 그러니까 돈을 버신다는 거잖아요.
(경자를 바라보며) 대단하시네, 대단해.

경자 (만식의 머릿결을 넘겨주며) 자기야. 선물이랑 옵션이랑 이런 것도 다 빨간 지 퍼런 지 확인하고 별 짓 다한 뒤에야 지르는 거야, 저게. 자긴 쳐다도 보지 마. 나도 좀 배우려다가 때려 쳤어. 저거 진짜 드러운 거야. 영어도 좀 읽을 줄 알아야 하구. 도둑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거래량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저게.

은광 잉글리쉬는 내가 좀 약한 편이지.

경자설레발이.

은광 ?

경자 우리 집은 그런 설레발이가 안 통한다니깐.
어제 보고도 몰라.

은광 아, 어젯밤.

만혁 원래 년에 한 번씩 무릎 딱 좀 닳거든, 우리 집이.
우리 집 식구 되려면 연골이 튼튼해야 돼.

은광 도가니요?

만혁 인간한테도 도가니란 말을 쓰나? 저 새끼 어떻게 점점 더 살벌할 정도로 무식한 게 튀어나와.아냐, 둘이 잘 어울려. 좋아. 딱이야.

은광 아, 네.

만식 수배 풀렸대매.

만혁 형, 알고 있었어?

은광 (벌떡 일어나며) 수, 수배라니요?

경자 앉아, 줌. 방정맞게.

저 오빠가 금속 노조 아무튼 그런 대기업 계열서 이런 곳에서 아무튼 그런 교섭 단체에서 간부까지 지낸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서 유일무이한 정치인 그런 분이시거든. 회사에 손해 끼쳤다고 도망 다녔는데, 그 때 나한테 돈도 좀 쥐갔지, 오빠. 그거 아직 안 갚은 것도 알지? 아무튼, 진작에 혐의 없다고 수배 풀렸는데, 그 때 싸돌아다니던 가락이 좋았다나, 뭐라나. 작년부터 저렇게 산악인 다 됐어.

은광 ……저는 주왕산이 좋던데요, 형님.

경자 ……또 누구랑 가셨대. 난 처음 들어보는 산인데?

은광 옛, 옛날에 수학 여행?

경자 ……오빠 차라리 히말라야를 올라가라. 이왕지사 올랐으면 꼭대기는 찍어야지. 테레비 한 번 나와야지.

정적.

만혁 행복하니, 경자야

은광 (경자를 바라보면)

경자 ……행복하려구, 오빠 난.

만혁 (느닷없이)

우리 할멈 참 잘 생겨 자빠라졌지.

난간 이마 주게 턱에

개발 코 우땀 눈에

쌍통은 시퍼러덩더궁한게

왼손에 방울 들고

바른손에 부채 들고

<강령 탈출 영감-할미춤 과장 中에서>

만혁 우찬이 넌 어떻게 할 거야?

우찬 난, 내일 올라가려구.

경자 그 때 공장은 잘 관렸어. 이제 핸드폰 팔이 됐음 누나한테 최신형 이런 거 하나 선물 줘야 하는 거 알지. 자동차 같은 걸 팔지, 차라리. 신문 보니까 그런 거 파는 분들 우리나라 돈 다 버는 것 같던데.

만혁 이 녀석 성격에 폰 팔이도 장죽의 발전인 거야. 쯤만 기다려, 새끼야. 내가 못 받은 돈만 받으면, 원룸은 해줄게, 기다려 새끼야.

우찬 괜찮아, 형. 중고 매장이야, 신형 없어, 누나. 그리고 말수가 적다고 옮겨야 할 지도 몰라.

경자 신도림이라구? 아무튼, 알지? 인간과 인간을 어떻게든 연결 짓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면서 전화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찬 알았어.

만식 백년이 지나면 아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손톱만한 칩으로 아니 손톱 하나에 모든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고, 인공 지능이 발달했을 테니 점점 더 혼자 살긴 편하겠지. 가족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일도 없어질 거야. 그래야겠지. 수명도 훨씬 더 늘 테고 슬픔 역시 주사 한 방으로 잠재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난 말이야.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엄마가 엄마고, 내가 아무리 흠 한 줌, 저 우주를 떠도는 먼지가 될 지라도, 그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경자 오빠 가끔 정리하려고 하더라. 정리벽 그런 거 있음, 컴퓨터 앞 좀 치워, 그리고 머리도 좀, 어떻게, 뽀뽀 밀던지. (우찬에게) 너도 좀 반짝반짝 ‘쫘’! 블링블링하게 살아 봐, 이 누나 처럼.

만혁 (경자 바라보며) 그런데 어제 니네 둘이 같이 방 쓴 거야. 경자 방에서? 합방?

은광 ……네, 장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요. 이부자리도 깔아주시고 추리닝도 이렇게 짝이 딱 맞는 좋은 걸로

경자 ……우리 엄마 멋있지?

은광 무, 물론.

경자 미국 엄마 같지?

은광 ……미국?

경자 깨, 깡다구! 이 사람아.

만식 밥 잘 먹었다구, 포상으로 식혜 한 그릇씩 내오겠다구 들어가신 분이 왜 안 나오신다니. (소리치며) 어머니! 엄마! 버스 시간 다 됐어! 경자야, 한 번 들어가 봐라. 어머니, 엄마!

우찬 (일어서며) 내가 들어가 볼게, 형.

우찬, 나서려는데,

만식,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하다 멈칫한다.

순간, 만식, 기겁하며 부엌으로 뛰어든다.

만식 (발음을 알 수 없도록) 엄마, 엄마!

은광 (부엌으로 들어가진 못한 채 안절부절)

경자 전화 걸어, 일일구, 빨랑!

은광 (전화 통화 연결된 듯, 이제 막 통화를 시작하고) 네, 네. 맞아요. 거기 회전 도는 곳 있잖아요. 버스 빨간색 9번 마을 버스, 네. 거기서 그대로 직진하면 파란 대문 집 세 채 정도 나오고요. 쪽 들어오세요. 네, 이 번호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네, 네. 정말 상황이 급합니다. 네, 네.

경자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고) 엄마, 울 엄마, 왜 이래! 엄마 일어나! 엄마, 자? 엄마, 여기서 뭐해! 일어나 봐 좀, 왜 이래 진짜.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냐구!

만혁 (부엌으로 향하지 않은 채, 객석을 향해 큰 절을 올린다.
애써 울음을 참으며, 한 번, 두 번)

어디선가 들려오는 장구 소리, 북소리 들려온다.

문 밖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웅기종기 ‘명심’ 댁 마당을 뺨뚱 고개 들며,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애를 쓴다.

흰 색 상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명심’ ,

안방에서 나와 뒷마루에 잠시 선다.

편한 걸음으로 미소 잃지 않은 채,

자녀들의 뒷모습을 하나 둘 살핀다.

누군가 (진양조리)

누군가 들마당의 차일 치고

주민들 들마당의 차일 치고

누군가 동네 모화 자리 포진

주민들 동네 모화 자리 포진

누군가 사면 한패 어더 오니

주민들 사면 한패 어더 오니

누군가 화랑이 줄모지라.

주민들 화랑이 줄모지라.

누군가 북 치고 피리 부니

주민들 북 치고 피리 부니

누군가 여민락이 제법이라.

주민들 여민락이 제법이라.

슬픔에 잠긴 만식, 만혁, 경자, 우찬이 객석을 향해 큰 절을 올린다.

서글픈 울음소리, 흐느끼는 어깨 선들.

초롱을 든 무희, 어느새 철문으로 들어와 ‘명심’ 을 안내한다.

‘명심’ , 초롱을 쫓는다. 천천히, 오직 초롱만 볼 뿐.

가는 듯 마는 듯, 불가항력의 힘에 이끌려,

그렇게 초롱을 든 무희와 동행한다.

마치 초롱을 든 무희가 건너는 돌다리를 따라 건너듯.

움직임이 춤이요, 춤이 움직임이랬대

한편, 마치 서글픈 표정의 ‘탈’ 을 쓴 것 마냥,

나란한 자녀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은 모습에서,

최대한 밝은 불빛 / 빠른 암전.

「막」

제14회 목포문학상

수필 당선작품

그녀는 나의 주인공

주 재 현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 한낮은 무덥다. 역사(驛舍)를 나오니 공기가 여간 후텁지근하지 않다. 목포역에서 두리번거리다보니 커다란 안내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옥단이길이란 문학기행 탐방로에 대한 설명과 옥단이란 여인에 대한 간략한 안내글이 적혀 있다. 광장이 크지 않아 금세 눈에 띄기도 하지만 택시 승강장 바로 앞에 붙어있으니 목포역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눈길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 광고판으로 치자면 제일 비싼 자리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목포 출신의 걸출한 인사들을 제치고 명당(?)을 차지하다니. 누군지는 몰라도 옥단이가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유명세에 비해 옥단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그렇게 스쳐 지나듯 만났던 옥단이를 목포의 여러 문화 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옥단이를 한번 두 번 만나다 보니 그녀가 꽤 흥미있인 인물임이 느껴졌다. 요즘은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타인과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insider의 줄임말)라고 하지 않나. 옥단이가 바로 시대를 앞서간 인싸였던 것이다.

옥단이는 1920년에서 1950년 사이 목원동 골목에서 지게로 물을 나르거나 날품팔이를 해 생계유지를 했다고 한다. 나이도 출생지도 모르는 혈혈단신의 아낙네였다. 그 외 옥단이에 대한 정보는 아마도 목포 출신의 작가 차범석의 희곡 ‘옥단어!’에 나오는 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묘사한 옥단이의 모습은 우스꽝스럽다. 오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사팔뜨기인 눈이 아래로 쳐졌다. 숯검정으로 그린 듯한 두 눈썹에 붉은 불연지와 입술연지를 했지만 미인 축에 끼지 못한다. 옷 입은 매무새도 엉성하고 말투도 어눌하니 동네 꼬마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고 놀림거리가 된다. 정해진 거처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래와 춤을 즐기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다. 1924년생인 작가가 유년시절 보았던 옥단이의 모습을 작품 속에 그대로 반영한 것일까.

정보의 여백과 인물의 결핍은 마른 창작 의지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가 된다. 만화창작을 하는 나와 남편은 이런 옥단이의 매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옥단이를 보면 볼수록 그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다는 욕망이 끓어올랐다. 어딘가 한참 모자라 보이는 인물이지만 작품 속 주인공으로서의 요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결핍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의 주인공으로 옥단이를 점찍고는 그녀를 뒷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옥단이의 숨결을 느끼고자 찾아간 옥단이길은 그야말로 미로같았다. 큰 뿌리에서 잔가지들이 퍼지듯 넓은 골목에서 여러 개의 좁은 골목으로 갈라진다. 폭이 너무 좁아

막혀있는 길이 아닐까 의심하며 가다 보면 골목 끝은 좀 더 넓은 또 다른 길과 연결된다. 그 모습이 우리 삶과 어딘가 닮은 듯하다. 목원동 고갯길은 얼마나 가파른지 여간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투실투실한 몸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이 먹고 체력을 비축하지 않으면 물지게까지 지고 산동네를 올라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기 때문이다.

유달산 아래 변화한 일본인 마을에서 밀려나 산기슭을 따라 다닥다닥 자리를 잡은 조선인 마을. 여기엔 수도시설은커녕 우물마저도 몇 개 없었기에 물장수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옥단이가 다녀가고 나서야 메마른 목을 축이고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물은 생명수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사람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물의 전령으로서의 옥단이, 힘이 장사인 소녀 옥단이 등 머릿속에 갖가지 캐릭터들이 떠올랐다.

옥단이는 본업과 부업을 부지런히 했던 의욕적인 여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투잡, 쓰리잡을 했으니 말이다. 물장수 일 외에도 자질구레한 심부름부터 마을의 행사에 빠짐없이 불려 다니며 일을 도왔다. 한창 하던 일이 고될 때쯤 사람들이 청하면 춤과 노래도 곧잘 불렀다니 스타성도 겸비한 인물이다. 게다가 품삯에 연연하지 않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그만이었다니 내 일을 하고 남을 도우며 마음의 여유까지 가진 완벽한 삶이 아닌가. 열정적이면서도 평온함이 공존하는 옥단이의 모습에 아마 그 시절 궁핍하고 껍박받던 이들은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옥단이길을 걸으며 옥단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한다. 옥단이에 대한 사실과 상상이 뒤섞이고 있었다. 나는 조금 더 쉬고 치대서 찰진 반죽 덩어리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충분히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옥단이는 50년대 이후 행적이 묘연했지만 최근 목원동 터주대감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위상이 높아졌다.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 하는 중이다. 문화해설사 노릇도 하고 때로는 역사 선생님 역할도 한다. 종종 찾아온 이들을 시간여행자로 만들어 주는 요술도 부린다. 그 길을 들어서면 정말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간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옥단이는 자기 이름이 붙은 길이 생겼으니 더더욱 신나게 사람들에게 여기저기를 안내한다. 옥단이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 마을의 삶, 목포의 역사가 펼쳐진다. 옥단이 덕분에 만인게터, 목포 청년회관, 불종대 등 역사,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니 벽화를 그리고 여기저기 가꿔 마을이 점점 예뻐진다.

옥단이길에는 공교롭게도 김우진, 차범석, 김현, 박화성 등 문인들의 생가가 모여 있다. 옥단이의 활동 시기와 작가들의 생존 시기도 앞뒤로 겹쳐진다. 그들도 옥단이가 걸어 온 물을 사 마셨을까. 옥단이가 허드렛일을 하러 갔을 때 문인들과 얼굴을 마주쳤을까. 골목길을 걸으며 옥단이에 대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동네를 산책하는 내내 옥단이는 수많은 질문을 건네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옥단이는 유달산 아래 근대역사관 일대에도 종종 나타난다. 주말마다 물지게를 진 커다란 옥단이 인형이 거리 이동극을 펼친다. 이쯤 되면 옥단이는 그야말로 목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물 아닌가. 관람객들도 공연에 참여하고 목포근대문화역사거리 일대를

함께 걸으며 옛 목포를 되짚는다. 옥단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옥단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생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타인에게는 스토리의 영감을 주고 본인은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셈이다.

과거는 슬프지만 옥단이는 즐겁다. 한바탕 떠들고 놀면서 일제 강점기의 목포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냥 옥단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길을 따라 목포의 역사를 되짚어가다 보면 암울했던 시대가 가슴에 와 박힌다. 사람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단이는 노래와 춤을 멈추지 않는다. 옥단이만큼 목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옥단이처럼 목포의 애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역시 옥단이 안내판이 목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옥단이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조금 더 귀 기울이며 지켜 봐야겠다.

제14회 목포문학상

아동문학 당선작품

그림 가족

이 연 숙

“빨강머리, 우아한 척 날개 좀 펼치지 마.”

오늘따라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리며 두루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두루미는 날개를 접고 소나무 가지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소나무도 끔벅끔벅 눈만 감았다 떴다 했어요.

사실 호랑이랑 시비가 붙으면 좋은 일은 없어요. 화가 조금만 나도 으르렁거리며 소나무 몸통을 발로 차거든요. 두루미가 죽은 듯이 앉아 대꾸도 하지 않자, 호랑이도 할 말이 없나 봐요. 괜히 꼬리만 좌우로 흔들었어요.

“까까까까까. 호랑이 체면이 말이 아니네.”

난데없이 나타난 까치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웃었어요.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랑이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요.

“야, 조용히 해!”

호랑이가 고함을 쳐도 깉깉거리며 시끄럽게 퍼덕거렸어요.

“저걸 콕!”

호랑이가 까치를 향해 앞발을 들어 올렸어요. 까치는 금세 소나무 맨 꼭대기로 날아갔어요.

“발톱도 없는 호랑이를 누가 무서워하겠냐?”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또 놀렸어요.

정말로 호랑이 발은 큼직했지만 날카로운 발톱이 없었어요. 부송부송한 흰털로 감싸인 발은 밀가루 포대 속에서 막 꺼낸 것처럼 하얗기만 했어요. 바위에 주저앉은 호랑이 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가신 지 한참 됐단 말이야.”

소나무가 모두를 둘러보며 걱정했어요.

“맞다! 붓도 벼루도 그대로 있어. 할아버지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두루미가 소나무 말도 끝나기 전에 끼어들었어요. 논에서 막 미꾸라지라도 잡아먹은 것처럼 긴 목을 구부렸다 펴면서요.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일이 계속 마르는 것 같아. 정말 너희들은 걱정이 안 되니? 나는 이대로 영영 안 돌아오실까 봐 걱정되는데.”

소나무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흥!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했다고 야단이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맨날 투덜거리던 것들이.”

호랑이는 커다란 눈에 힘을 주고 모두를 노려봤어요.

“우리가 언제 투덜거렸니? 오히려 투덜거린 건 너잖아.”

아까와는 다르게 두루미도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목을 휘휘 저으며 화를 냈어요. 그 바람에 소나무 마른 잎이 몇 개 떨어졌어요.

“두루미야, 진정해. 잎이 다 떨어지겠어.”

“미안해. 하지만 호랑이 말을 들으니 화가 나잖아.”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잖아. 오늘도 어디서 한잔하고 계실 거야.”

까치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맞아. 좀 있으면 ‘애들아, 나 왔다’ 하시며 기분 좋게 들어오시겠지.”

두루미도 할아버지를 흉내 내며 맛장구를 쳤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설령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가 봐요. 아직도 뚱한 얼굴이었어요.

“호랑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붓끝에서 탄생했잖아.”

“탄생이라고? 나는 발톱도 없는걸. 치!”

호랑이의 눈과 입이 썰쩍하게 돌아갔어요.

“걱정하지 마. 분명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거야.”

소나무는 차분하게 호랑이를 위로했어요. 까치와 두루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할아버지는 만날 우리를 보면서 털이 하나라도 빠졌는지 다듬어 주셨잖아.”

두루미 말에 까치도 새까만 콩지깃을 위아래로 들썩대며 거들었어요.

온종일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해도 기울고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왔어요. 집은 더 캄캄해졌어요. 이제는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호랑이는 소나무 기둥에 몸을 착 붙이고 두루미와 까치도 소나무 가지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소나무는 마치 엄마라도 된 것처럼 모두를 꼭 껴안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이불처럼 살며시 덮어주었어요.

아침이 되었나 봐요. 창박이 환했어요. 뽀뽀뽀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아,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제일 먼저 까치가 말했어요.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문만 바라봤어요.

“흠흠 무슨 냄새지? 울 아빠 냄새가?”

할아버지 딸이었어요.

딸은 꼭꼭 닫혀 있는 거실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할아버지 방문도 쑥 열었어요. 방 안에 있던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안 오고 갑자기 딸이 왔기 때문이지요.

“아, 물감 냄새였구나!”

딸은 먹물이 까맣게 말라붙은 벼루와 알록달록 물감이 묻어있는 접시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물감이 묻은 채 굳어버린 뿔뿔한 붓도 만져봤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화구 정리도 못 하고 병원으로 가셨을까?”

딸은 물감 묻은 접시와 붓을 베란다로 내놔요. 그러고는 책상 위의 그림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어머, 역시 올 아버지야. 호랑이 발 좀 봐!”

“어흥!”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어요. 큰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았어요.

“부승부승한 발이 정말 귀엽다.”

딸은 그림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웃었어요.

“애들아, 쏙!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자.”

두루미가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호랑이도 아까와는 다르게 슬며시 눈을 반쯤 내리감았어요.

“올 아버지 아무리 아파도 쉽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애들아, 방금 딸이 하는 말 들었지? 할아버지가 아프시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두루미는 빨개진 눈을 껌벅이며 긴 목을 빼고 모두를 둘러봤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까치야, 잘 들어.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는 말이잖아.”

출썩대는 까치를 소나무는 점잖게 타일렀어요.

“아니야. 아니야. 할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야.”

소나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까치는 연신 꼬리를 철썩대며 종종거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술에 취해 쓰러졌겠지. 술 때문에 내 발톱 그려주는 것도 빠뜨렸다고.”

호랑이는 친구들과 다르게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씩씩했어요.

“호랑이 너 때문이야. 네가 재수 없게 말해서 그랬어.”

까치가 호랑이한테 쏘아붙였어요.

“까치 저게 또 까부네. 너, 두고 봐!”

호랑이는 까치에게 으르렁거렸어요.

“호랑이야, 너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화를 내니?”

두루미는 빨개진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호랑이는 웬일인지 화도 내지 않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소나무가 말했던 할아버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튼튼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달아주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호랑이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집 청소를 마친 딸은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방안을 휘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있어요.

‘이 아빠 자원입대하여 전쟁터를 누비다 살아나온 용감한 사람이여!’

사진을 보던 딸이 획 돌아섰어요. 어릴 때 자주 들었던 할아버지 음성이 들렸거든요.

환청이었나 봐요. 딸은 손가락으로 귀를 후비며 다시 액자가 걸린 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팔순 잔칫상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병풍처럼 둘러 서 있는 가족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금방이라도 할아버지가 걸어 나와 맞이할 것 같았어요.

‘우리 딸 왔나? 난 항상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울 아버지 저렇게 웃으면서 등 떠밀며 보내더니 아픔도 혼자 견뎠던 거야.”

딸은 눈물을 훔치며 책상에 누어져 있던 그림을 콕콕 찢었어요.

“그림 속 친구들이 꼭 우리 남매들 같아. 들판의 소나무는 큰오빠, 예쁘고 우아한 두루미는 언니, 우락부락 성질 급한 작은 오빠는 호랑이, 까치는 졸랑졸랑 언니 오빠 따라다니던 내 모습이야. 자식들이 보고 싶어 이렇게 그림 가족을 그렸나 보다.”

딸은 그림을 가족사진 액자 옆에 나란히 붙였어요. 그러고는 그림을 곱게 쓸어내렸어요.

“울 아버지 용감하니까 그깟 병썴은 금방 이겨내실 거야. 우리 가족 못 잊어서 꼭 돌아오실 거야.”

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다가 할아버지 물건을 챙겨 넣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했어요.

“정말 할아버지 가족이 내 가지처럼 많았구나!”

소나무가 몸뚱이를 길게 늘이며 잔가지를 살살 흔들었어요.

“네 가지가 많다고? 우리 깃털이 더 많거든.”

까치와 두루미가 한목소리를 냈어요.

자식들에게 둘러싸인 할아버지가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유심히 보던 소나무가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저기 가운데 키 큰 사람이 큰아들일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큰아들과 같다고 했어. 그래서 유난히 내 몸을 굽게 만들었어. 부러지지 말고 튼튼하게 버티며 살라고.”

소나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맞다. 나도 생각나는 말이 있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주셨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유난히 도톰하게 모자를 씌워주셨지.”

두루미의 빨간 머리가 더욱 빛났어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는 모두를 그냥 그린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 내 발톱은 왜 빼먹었는데? 발톱은 나의 무기인데.”

아까부터 울상이던 호랑이가 투덜거렸어요.

“에그 이 호랑이야, 그러니까 발톱을 그려주지 않았지. 네가 함부로 무기로 사용할까 봐.”

까치가 호랑이 말에 날름 토를 달았어요.

“맞아.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면 널 보는 순간 다 달아날 거야. 할아버지도 네가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얀 털로 감싼 부드러운 발을 만들어 주셨을 거야. 발톱이 없어도 넌 충분히 씩씩해.”

소나무가 호랑이를 굽어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아까 딸도 너보고 귀엽다고 했잖아.”

두루미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애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를 위해 힘을 모으자. 액자 속의 가족처럼 우리도 할아버지가 그린 새로운 가족이야.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지내야 해. 할아버지 빨리 낮게 해달라고 산신령님께 기도하자.”

소나무는 마치 큰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어요.

“알았어. 나도 할아버지가 빨리 나아서 돌아올 수 있게 빌어볼게.”

호랑이도 눈에서 힘을 빼고 어슬렁어슬렁했어요.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는군. 호랑이야, 네 등 위에 한 번 앉아 봐도 돼? 으르렁 거리지 않을 거지?”

호랑이는 대답 대신 누구라도 업어주겠다는 듯 소나무 앞 너럭바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까치가 날개를 펴고 파드닥 내려와 호랑이 등에 앉았어요. 두루미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림 속 친구들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소나무가 가지를 활짝 펴서 모두 끌어안았어요. 아마도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나 봐요.

‘산신령님, 우리 할아버지 빨리 낮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세요.’

창문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왔어요. 햇살은 할아버지의 그림 가족을 가만가만 쓰다듬어주었어요. <끝>